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1호 2016년 4월 6일 수요일

표심 쫓는 여·야 불교문화는 '뒷전'

주요 정당 20대 정책공약 분석… 축소 확연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 중 전통문화 진흥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각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19대 총선 공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약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 강화방안이 유일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 당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방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의당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문화융성 분야의 공약 중 시도지정문화재 보존활용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도입된 현행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면 확대와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의 지자체 의무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불교계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산사문화축전 활성화 및 폐사지 소재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공약으로 충남지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의 보존 및 활용, 경북지역의 불교문화를 포함한 세계역사문화융성 플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19대 총선 당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한반도 천년 역사문화 거점 육성 등으로 제시한 내용을 승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관련 공약을 반영하지 않았다.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세부 목표로 6개 권역 지역문화재청 신설 및 문화유산지식개발원 설립 등을 비롯해 문화유산 관리 내실화, 전통문화 콘텐츠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정당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공약이 축소된데 대해 박주현 조계종 기획실 대외협력팀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다 보니 표심과 관련된 분야에만 공약이 집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 제정 등의 규제완화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살리기 분야에서 관광을 통한 지방일자리 창출을 선언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지 77%가 산림보호를 이유로 관광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9월 문체부가 입안을 시도해 불교계가 강력히 반대한 법안으로 당시 조계종은 반대성명을 통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훼손 및 전통사찰 주변 난개발과 유흥지화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및 국립공원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해결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통가치 및 환경보존과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응 스님은 "여당의 문화정책은 국가정책의 기반이 되는 심층적이고 폭넓은 공약이

새누리당 문화재보존안이 유일
더민주당 · 국민의당 아예 없어
19대 총선보다 대폭 축소 경향
"경제 등 표심 공약 집중" 분석

여당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추진
사찰 환경 파괴 예상 '대책 시급'

돼야 함에도 상시관리 강화 수준에 불과하다. 야당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어린 공약의 제시가 없다. 사실상 각 정당이 국토파괴와 상업주의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환경과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심도 깊은 정책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대 총선과 관련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불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뭇생명의 평화와 행복, 우리 불자들의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전국주요 사찰 · 불교계 기관의 포스터 1000여 장 배포 및 불시넷 페이스북 상 홍보로 진행된다. (02)722-501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0인 대중공사 시즌2 '시작'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한 올해 첫 100인 대중공사가 열렸다.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125명의 대중공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중공사 입재에서 제도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2 · 27면〉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한글 창제와 불교 역할' 본격 연구

종단 최초 교육아사리 연구프로젝트 추진

아사리 · 외부전문가 공동 연구
오는 10월 경 논문 발표 예정

조계종이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의 불교 역할에 대해 종단 차원의 연구를 시작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수경)는 3월 30일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를 주제로 교육아사리 중심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는 혜각존자 신미 대사 등이 직 · 간접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대한 불교 역할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단 차원에서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프로젝트는 처음있는 일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연구프로젝트는 크게 3개 세부 주제로 나뉘어 7명의 교수아사리 스님과 외부전문가 1명이 참여한다.

첫 세부 주제는 '훈민정음의 확산과 정착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로 정각 · 벽공 · 영석 스님이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 스님들은 간경도감에서 발행한 불경언해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글 경전이 번역되고 유통됐는지를 중점 연구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훈민정음의 교육과 활용'에는 오인 · 우석 · 자현 · 정천 스님이 참여한다. 훈민정음 창제와 여성 역할부터 황실불사와 훈민정음 등의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로는 〈훈민정음의 길〉 저자 박해진 작가가 참여해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끼친 혜각존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박해진 작가는 "훈민정음의 창제부터 보급까지 불교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었다"면서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정점에 있는 한글 창제에 대해 신미 대사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고찰할 것"이라고 연구 계획을 밝혔다.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의 연구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연구는 장기적 연구에 대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논문 연구 발표는 한글날 이전인 10월 6일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학진 등재 학술지 게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최대 규모 예술공모대전 연다

불화 · 조각 등 7개 분야
오는 8월 29~31일 접수

2011년과 2013년부터 각각 사진공모전과 서예대전을 개최해온 천태종이 예술분야 저변확대를 위해 종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오는 8월 29~31일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공모작품을 접수한다.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은 기존의 사진 · 서예공모전을 통합하고, 예술분야를 추가해 종합 공모전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사진 △민화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공모작을 접수한다.

전통불화와 현대불화는 200호 미만에 1인 2점 제한이다. 조각은 높이 250㎝ 미만, 공예는 가로세로 50㎝까지다. 출품 제한은 조각 1인 2점, 공예 1인 3점이다.(이상 출품료 1점당 5만원) 서예 문인화는 전지 이하이며 사진은 3024×2016 픽셀 이상이다. 1인 3점 제한에 출품료 1점당 3만원이다. 민화는 100호 미만에 1인 3점 제한, 출품료 1점당 2만원.

참가희망자는 출품원서와 출품자 경력서, 작품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는 5월 1일부터 천태종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장소는 서울 관문사(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6길 111호).

심사 및 결과발표는 9월 초 예정이며, 전시회는 11월 16~21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전시 기간에 진행된다. 전 부문에 걸친 심사 이후 대상(1명)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장 및 상패가 수여된다. 최우수상(2명)은 상금 500만원, 부문별우수상은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천태종 관계자는 "예술분야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코자 새롭게 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하게 됐다. 기존 별도로 시행했던 공모전에 비해 상금 규모가 늘어났다"며 "불교예술 전반의 신인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23-1559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제 33見 스승을 찾아서

다문제일 아난존자는
석가세존을 25년간 시봉하고
팔만대장경을 모두 암송하여도
부처님 열반 후에야
홀로이 깨달았다.

이런 사실은
석가세존의 허물인지?
아난존자의 허물인지?

이를 진귀가 품어보면.....

〈이 세상에 석가세존보다 훌륭하고
깨달은 선지식이 있다면 난 그 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리라...〉

〈석가를 품은 53見〉저자
화엄경 강원/강주
眞歸 두손모음

동국대 '春來不似春' … 학내 갈등 재점화

학생처 "학생 명부 무단 폐기"VS 총학 "학생 자치 탄압"

동국대 학내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동국대 학생처는 지난해 917학생총회 당시 사용된 재학생 명부를 무단 폐기한 것에 대한 책임과 학생회 간부 자격 기준 변경 등 회칙개정에 대한 자료 일치를 요구했다. 반면 동국대 학생회 측은 "학생 자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국대 학생처는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에 전달한 공개질의 회신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동국대는 지난 3월 22일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 측에 2013년 상반기 대의원 총회에서 변경된 '학생총회 의결(성사) 기준' 관련 근거자료와 지난해 9월 학생총회 시 학교 측이 제공한 전체 재학생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동국대에 따르면 확인 결과 해당 자료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917학생총회에서 사용했던 재학생 명부는 김건중 47대 부총학생회장이 무단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재학생 명부는 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는 개인 정보이며, 파기돼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47대 총학생회는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본 사안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미동추)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문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입증 차원의 법적 조치"라고 했다.

동국대는 "미동추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종교인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SNS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면서 "고소 사실 인지 후 미동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학생자치 탄압을 주장하며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주장과 조치에 동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등은 3월 28일 팔정도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중에는 안드레 총학생회장과 신정욱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학생회 측은 공개질의는 학생자치 탄압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회는 "학생회는 자치기구로 상위 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면서 "학생회에 대한 자치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학생사회 안에서 절차를 통해 회칙이 개정되고 선거의 정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교 측이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미동추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현 총장은 종단 개입으로 총장직에 올라 표절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학생들에게는 고소로 탄압하고 있다"면서 "학생회는 어떠한 탄압에도 무너진 학생 자치를 바로잡고 이사회 구조 개편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활수행지침 개발… "행동 불교 이끌 것"

신대승네트워크, 3월 26일 창립식 개최

"과거 2천여 년 전 '부처님 삶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아래 출재가 보살들이 불탑광장에서 열정으로 부르짖고, 냉철하게 탁마하고, 간절하게 호소했던 대승불교운동을 오늘날 정보네트워크 시대로 호출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력이며, 우리가 지금 쓰는 역사이고, 오늘 우리의 선언이자 맹약이다."

신대승네트워크(공동대표 김성규 · 전준호 · 이영철 · 박병기)는 3월 26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 10층 강당에서 '신대승원탁회의 및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대승네트워크는 1부 신대승원탁회의에서 정관 및 전략사업 등 안건을 심의 · 상정하고, 2부 창립식에서 창립선언문 낭독, '불자들을 위한 수행지침' 합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신대승네트워크는 전략사업 중 '생활수행지침 개발'에 대해 "바른 믿음(正信)을 정립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해탈의 연기성을 구현하고, 깨달음과 명상 중심의 정적인 불교에서 자비행 중심의 '행동하는 불교'로 전환을 추구할 것"이라며 "1개월 단위의 수행 집중 과제로 수지하는 생활실천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생활수행지침'에는 불교의 궁극적 지향과 깨달음 성취를 위한 실천방안, 사회적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과 실천활동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총무원장 선거제도' 변화 이뤄지나

조계종 대중공사추진위, 불광사서 올해 첫 대중공사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추첨이냐, 직선이냐, 아니면 현행 제도 보완이냐'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을 위한 대중공사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 대중공사추진위(공동위원장 정념)는 3월 31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2016년 첫 행사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첫 대중공사에는 100인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등 스님들과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장, 윤기중 포교사단장 등 125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 불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추첨제와 직선제, 현행 선거제 개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추첨제인 염화미소법은 추천인단이 3명의 총무원장 후보를 추천, 갈마위원회 검증을 거쳐 종정 스님이 추첨으로 선출하는 방법이다. 직선제안은 특정 연령 이상의 전 스님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족계 수지자 전원, 승랍 10년 이상자, 승랍 20년 이상자의 3개 기준에 따라 선거인단이 달라진다. 최대 1만여 명이 선거권을 지니게 된다. 선거인단 확대안은 현행 총무원장 선거인단인 321명을 최대 2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날 대중공사에 참석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토론에서 "3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선거를 2번이나 치르면서 많은 폐단을 느꼈기에 추첨제인 염화미소법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자승 스님이 지적한 폐단은 선거인단에 대한 금권선거와 과도한 선거열기로 인한 흑색선거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도 직선제안과 선거인단 확대안 모두 이 같은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적됐다. 자승 스님은 다만 추첨에서 소수 추천 후보가 선택돼 대표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 후보자 득표기준을 30%선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125명 참석
직선·추첨·선거인단 확대안 검토
지역 대중공사 후 입법화 추진 계획

하지만 이에 앞서 패널토론에서는 선거제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패널로 나선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운영위원은 94년 개혁의 산물이자 민주성의 상징인 선거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3월 31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개최한 2016년 첫 대중공사에서는 100여 불자들이 참석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 운영위원은 "금권, 매관매직 등은 철저한 법 집행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이지,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직선제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한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도 "먼저 선거제의 뿌리인 교구종회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제도에 선거인단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확대된 선거인단 구성시 비구니 스님 비율 및 재가자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 대표로 참석한 심원 스님은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적극 찬성과 함께 간선제의 선거인단과 추천인단 구성에서 비구니 스님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연구소 법안 스님은 제도개혁과 함께 그 제도에 맞는 공정한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스님은 "현행제도가 왜 이런 폐단을 낳아는지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없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또 다른 폐해가 나올 것"이라며 "어떤 제도이든 율장정신과 종헌종법을 따르고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중공사추진위는 개인 무선리모컨을 이용한 즉석투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중공사추진위는 4월부터 지역 권역별 대중공사를 진행한 후 5월 18일 불광사에서 토론 결과를 채택, 조계종에 제안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 선학원 갈등, 실력 행사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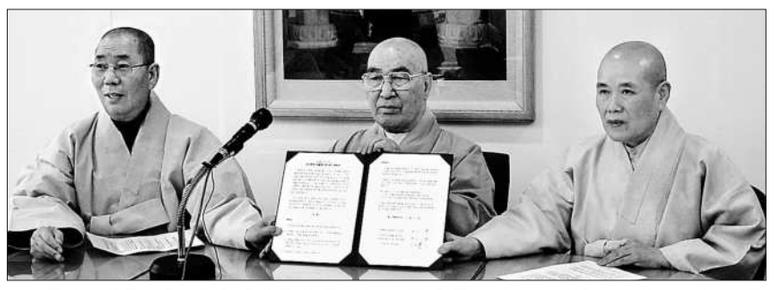
조계종 · 선미모 · 전국비구니회 공동대응에 선학원 반박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국면이 실력행사로까지 번질 위험에 처했다.

선학원 이사회 측이 법인관리법 폐지를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선미모, 전국비구니회가 특별교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해결안에 대한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들의 동의를 직접 받기로 했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위원장 법등)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상임대표 법상)은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3자 합의서에는 △선학원 정관의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 조항 복구 △선학원 재단임원 자격의 조계종 승려 조항 원상복구 △조계종 외 별개종단 설립금지 및 선학원 현행 수계 · 승려증 발급 중단 △선학원 이사 1/3 조계종 총무원장 추천 △선학원 사안 총회서 의결 등 선학원에 대한 요구 내용과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의 선학원 인사 배정 △선학원 특별법 제정 △선학원 소속 승려와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 해제 등 조계종 측 조치 내용이 담겨있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위원장 법등 스님(사진 왼쪽)과 선미모 상임대표 법상 스님(사진 가운데),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효경 스님(사진 오른쪽)이 3자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이 합의서에 대한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들의 동의를 직접 받기로 했다.

이번 3개 단체는 선학원 도제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한 거부의사와 함께 서명운동을 비판했다.

선학원 측은 "특별교구 제정은 조계종이 우리 재단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관리법 폐지 선행 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말한다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태고종 중앙종회 호법원장 선출무효 결의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는 3월 2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4차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종회에는 재적의원 54명 중 44명이 참석했으며 지홍 스님 등 보궐선거를 거친 6명이 새로 종회의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이날 종회에서는 2014년 3월 26일 제113회 임시중앙종회에서의 호법원장 선출무효가 결의됐다.

종회에서는 호법원장 선출 적법성 논란이 거셌다. 이에 종회의장 설운 스님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일 것을 상정해 찬성 25표, 반대 19표로 선출무효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상정된 종단부채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중앙종회 의장단 위임을 전제로 만장일치 통과했으며 51억 4522만원의 2015년 세입세출결산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교무부장 상진 스님 인준을 끝으로 폐회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원한 안식의 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한 순간도 '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챙긴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첫 법문 (오후 8시, 2년이내)
▮장 소 :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문 의 : 042)825-1724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학림사 오등선원

출가 의미 ·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

조계종, 4월 8일 개최

'출가 진흥 원년'를 선언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출가상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출가, 그 새로운 의미를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발제를 맡으며, 토론자로는 만당 스님(중앙종회의원), 허정 스님(교육위원), 무애 스님(교육아사리), 문광 스님(교육아사리)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적으로 여러 사업을 전개 중"이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출가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4.13총선 종교평화 정착 포스터 제작·홍보 나선다

조계종 3월 30일 전국 배포

4.13총선에서 공직자의 종교중립을 권장하고, 종교 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포스터가 제작, 전국으로 배포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이하 종평위)는 '4.13총선, 종교평화 문화 정착 포스터'를 제작, 3월 30일 배포했다. 종평위는 포스터에서 '종교중립 의무 위반의 예'로 △공직자들의 특정 종교화 기도 △신정정치 주장 △지역의 성시화 △성시화운동 추진 △시립합창단 찬송가 합창 등 6개 항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은 종교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포스터 배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후보자 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종교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평위는 종교간 평화를 위해 '깨끗한 선거 위반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종평위는 신고 사례 판별 후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직자의 종교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용성 스님 진영, 근·현대 변화를 담았다"

이정은 범어사 학예실장, 〈대각사상〉 기고논문서 주장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 중 한 명인 용성 스님(1864~1940)의 진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학술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진영 변화 연구는 동산 스님을 제외하고 이뤄지지 않아 연구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대각사상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대각사상〉 24집에 '용성 선사 진영에 나타난 근대적 양상'을 주제로 논문을 기고했다. 이 실장은 용성 스님을 화폭에 담아낸 진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논문에 따르면 용성 스님의 진영은 크게 그림과 사진으로 나뉜다. 회화식 진영은 △서울 대각사 법당(1점) △범어사 성보박물관(1점)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외부(1점)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내부(1점) △부산 해월정사 시월전(1점) △부산 범어사 청련암 사무동 외부(1점) △해인사 용탑선원 칠불보궁(1점) △만사 윤필구 개인소장 1점 등 8점이다.

사진식 진영은 △그림 원화를 촬영한 1921년 진영(선학원 소장 1점) △범어사 성보박물관(1점) △구미 아도모레원(1점) △장수 죽림정사(1점) △서울 대성사(1점) △경주 천룡사(1점)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1점)과 진영이 된 사진으로 〈동산대종사석영첩〉에 실린 작은 사진 1점이 있다.

용성 스님에 대한 회화식 진영은 다시 재료적 측면에서 한국화와 서양화로 나뉜다. 이 실장은 "조선 후기부터 서양식 명암법과 음영법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초상화도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해졌다"면서 "이후 근대기로 접어들면서 사진과 같은 사실적 표현에 중점을 둔 진영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용성 스님 진영 변화 고찰
한국화·서양화·사진 모사 등
다양한 기법·매체로 변화해
"근대기법 이행의 대표 사례"

그렇다면 용성 스님 진영의 원류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용성 스님의 진영은 1921년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림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1921년 제작된 진영은 이후 사진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진식 진영이 제작됐고, 60년 이후 이를 그대로 다시 모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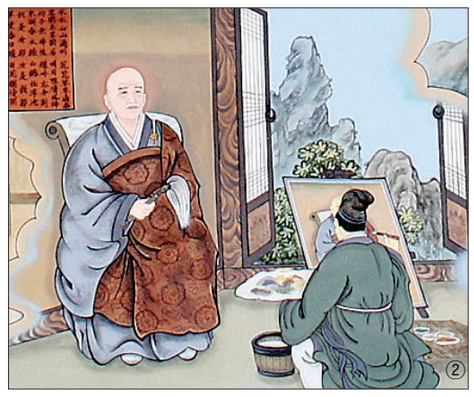





사진 번호 순대로 ①1921년 그림 원화를 촬영한 진영 ②죽림정사 용성교육관 외부의 진영(2004) ③정형모가 그린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진영(1982) ④서울 대각사의 진영(1981). 용성 스님의 진영은 ①를 원류해서 사진식 진영으로 계속 모사·변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용성 스님의 진영은 초상화 양식의 전통적 구도와 재료, 근대적 기법이 사용됐다"면서 "이후 재료의 근대성이 가미되면서 용성 스님의 진영은 재료적 측면을 살필 수 있고, 진영을 제작한 화가의 화풍이 가미된 근대적 양상도 나타난다. 화가의 화풍은 전통진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근대성"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식 진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1921년 그림 원화를 촬영한 선학원 소장 진영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1921년 진영은 치밀하고 정밀하게 극사실적 표현으로 제작됐다"면서 "이는 당시 한국화단을 넘어 진영도 근대적 기법인 사진식 초상화가 유행했음을 보이는 단서"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실장은 근대 선지식이자 불교개혁가, 민족운동가였던 용성 스님의 폭넓은 활동만큼 진영들도 근대 과도기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용성 스님 진영의 특징은 근대식 전통 초상화에서 사진으로의 전이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근대기를 넘어선 용성의 초상화는 동일 인물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다양한 시대상과 초상화 제작 기법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성 스님의 진영은 원근과 음영의 서양화를 접목하고 사진 매체를 활용하는 등 근대진영의 전통과 새로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용성 스님의 진영이 단순한 초상화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상과 그에 따른 선승의 인식을 보여준 예"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소녀상 옆에 선 스님들 "역사를 잊지 말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위안부 해결 촉구' 법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 및 재협상을 촉구하며 불교계가 거리로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 30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및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 스님 10여 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2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노동위원 혜찬 스님은 대표발언에서 "합의란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을 뜻한다. 할머니들이 당사자임에도 불구, 정부는 무슨 목적으로 할머니들 의견은 배제한 채 졸속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면서 "용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잊지도 말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3월 30일 열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기도법회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선교양종 수사찰 면모 회복할 것"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진산식 봉행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는 주지 능담 효광 스님 진산식 및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3월 30일 경내 통일약사대불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선원 수좌 대표 스님,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제 승가가 화합하고 사부대중이 단결하여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하고 조사님의 선풍을 선양해 그 속에서 금빛 사자를 길러내고 신통 자재한 용을 낚아내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진산식을 시작으로 수행자의 초심과 공심이 더욱 빛나고 사회와 국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팔공총림으로 크게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스님 진산식이 3월 30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신임 주지 효광 스님은 "조선불교 선교양종 제일 수사찰의 면모를 다시금 회복해 새로운 팔공총림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화사 대중 모두가 겸허히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사양하고 소임을 다 할때 총림 발전은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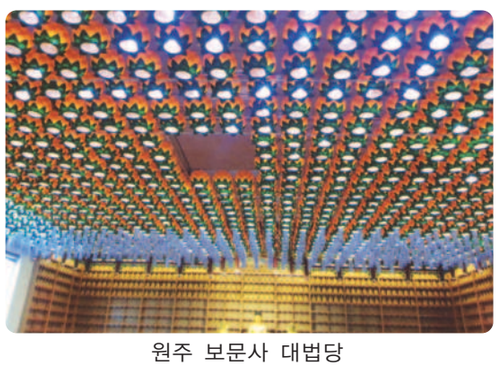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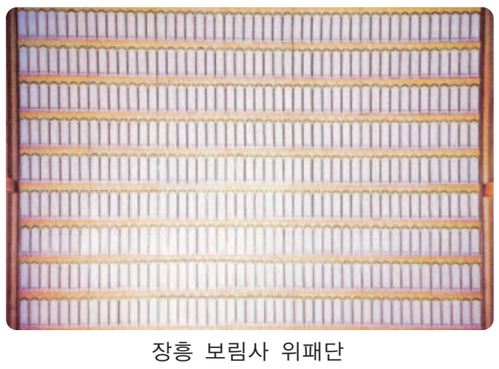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공단연등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일 주 문



56회 팔만대장경의 날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4월 29~30일 경내 일대에서 '제56회 불기2560년 팔만대장경의 날'을 봉행한다.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돈관 영천 은해사 주지 스님은 3월 27일 대구 불광사 만불보전에서 '제34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



군승 안거수행 포살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3월 29~31일 구례 화엄사에서 '군승 안거수행 포살'을 실시했다.



13차 힐링멘토 명상 여행

마가 (사)자비명상 대표 스님은 4월 2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제13차 53힐링멘토를 찾아 떠나는 명상여행'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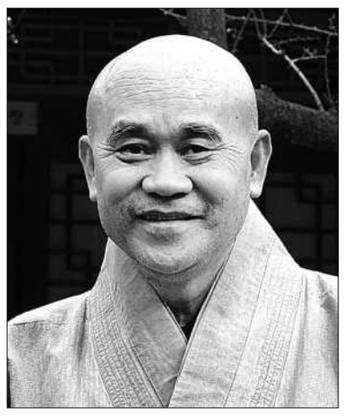
행복 나누는 바자회

화평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3월 30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행복을 나누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총림 위상 걸맞은 도량 만들 것"

Interview

제27대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문중 화합 위해 7직소임 안배

수행가풍 진작·문화포교 계획

"종파 떠나 부산불교 하나 돼야"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이다. 그 근본 뜻을 이어 선 수행 정진을 강조하며 수행 가풍을 총림의 위상에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부 불사다. 또한 동산 스님의 이념이 곧 총림의 역할이다. 따라서 동산 스님의 이념을 고수하고 방장 스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수행자들을 위한 바른 수행도량이 되도록 하겠다."

범어사 제27대 주지로 임명된 경선 스님〈사진〉은 3월 29일 경내 종무소 함흥당 앞 국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수행을 꼽았다. 이를 위해 방장 지유 스님을 위시해 사내대중스님들과 수행 가풍 진작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범어사 내 화합을 중요 과제로 보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답"이라며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각자 소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선 스님은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범어사에서 지내며 화합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들었다. 해답은 서로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침처럼 경선 스님은 사내 7직 소임을 각 문중에 맞게 안배했다. 부주지 설파 스님, 총무국장 정산 스님, 교무국장 범수 스님, 포교국장 능주 스님, 호법국장 정일 스님, 재무국장 원타 스님, 사회국장 응진 스님, 연수국장 성광 스님, 문화국장 성공 스님, 원주 현여 스님, 도감 도봉 · 묘중 스님이 내정됐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 내 선 수행센터 등 불사에 대해서도 진일보하는 마음으로 차질 없이 계획하고 진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범어사 내 박물관 불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15년 간 범어사 박물관 관장을 역임하며 숙원 사업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박물관 불사다. 현재 성보박물관은 도서관이나 여러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범어사에서는 문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을 여유 있게 지어 내부 행사 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회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뿐만 아니라 부산불교연합회장직도 수행해야 하는 경선 스님은 "현재 부산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함께 있다. 하지만 조계종연합회, 승가연합회 등으로 나눠져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러 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선 간섭할 수는 없으나 부산불교연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종파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가 주도하는 부산연등축제 및 신년하례 등 큰 행사에 승가연합회는 별도로 진행해 왔다. 앞으로 하나로 묶어 함께하는 화합의 모습이 되도록 의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4월 11일 오후 2시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진산식과 부산불교연합회장 취임식을 함께 봉행한다. 그간 다르게 실시했던 행사를 통합한 것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내용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법상종, 경기 종무원 개원

3월 25일, 종무원장에 원각 스님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3월 25일 여주 대성사(주지 원각, 여주군 금사면) 극락보전에서 '경기도 종무원 개원식 및 경기 종무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해월 스님, 원로위원 학산 스님(대성사 회주), 중앙종회의장 대광 스님, 신임 경기종무원장 원각 스님 외 종단 임원 및 종도 150여명이 동참했다.

원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상종의 대외 홍포와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민추본, 10人 '통일인재' 배출

제1기 불교청년통일기획자과정 수료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3월 2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1기 불교청년통일기획자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통일관련 총 6강의를 수강했으며, 3월 26~27일엔 현장순례로 고성 남북접경지역을 방문했다. 이에 최초 신청자 11명 중 10명이 수료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국제개발협의회, 2차 정기총회

2016 예산 및 사업계획 등 심의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3월 22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프로그램실에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2015 결산 및 사업보고, 2016 예산 및 사업계획 등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2015년 3월 창립 이후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며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한부모 청소년들에게 1천만원

(사)깨달음과나눔, 총 24명 수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육아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깨달음과나눔이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은 3월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4명(중학생 10 · 고등학생 14)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매옥 이사장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미혼부모가 된 청소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가출, 일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있다"면서 "그들의 향학열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을 원만히 마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불사를 시작했다. 향후 재원이 확충되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깨달음과나눔은 지난 3월 7~18일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총 93명이 지원, 6.64: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아름 기자

"참사람 양성 대학 만들겠다"

동국대 경주캠, 이대원 총장 취임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대원 총장 취임식 및 참사람 동국 비전 선포식이 3월 30일 오전 11시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을 비롯한 내빈과 기부자, 동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대원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 목표를 지방 3대 사립 대학으로 정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대학을 비전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연구와 산학협력, 국제 및 대외협력, 행정서비스, 재정인프라 등 5대 혁신분야에 대한 86개 핵심과제를 발전 계획에 담아, '지속발전 가능' '소통과 화합'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을 경영원칙으로 하고, 내실화, 전문화, 지역화, 국제화, 특성화를 발전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토원 '봉화산 메아리' 발표회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 창단한 '봉화산 메아리'가 3월 26일 정토원 경내 쉼터에서 첫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이 창단한 '봉화산 메아리'가 발표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3월 26일 정토원 경내 쉼터에서 열린 첫 발표회에는 선진규 원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대는 색소폰과 기타, 가야금 등 악기 연주와 민요, 클래식, 대중가요 등 노래 부문 그리고 춤 공연으로 이어졌다.

'봉화산 메아리'는 스님과 신도 10여 명으로 구성된 음악단이다. 정토원 종산 스님이 악단장이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창단했다.

앞으로 '봉화산 메아리' 음악단은 매달 한 차례씩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포교 현장을 비롯해 지역 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음악 봉사활동을 펼친다.

선진규 원장은 "김해 지역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이다"며 "불자들뿐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등산객까지 모든 이들이 쉼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창단 배경을 밝혔다. 김해=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임원선출 회의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가 회원 여러분의 종단에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본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에서는 이미 선출되어 활동하셨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어 이에 본회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 총연합회의 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사)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에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종단대표 및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아 래

▲ 회의일시 : **2016년 4월 1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회의장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55 AW컨벤션센터(구하림각) 3층 아젤리아룸

▲ 회의안건 :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 033)671-7751, 사무총장 010-3300-0408 산수스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이사장 의 륜

재단법인 근본불교 조계종

분한신고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가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 종도로써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재)근본불교 조계종 승려로써 자격이 정지 또는 말소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암의 주지스님은 물론 모든 승려께서는 (재)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본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로 계시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분들도 분한신고를 하시면 선별구제 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본종에 가입된 개인사암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사유재산 보호법과 근본불교 조계종 재단법인 재산보호법 등을 재정하기 위하여 종헌종법을 2016년 4월 5일자로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실시기간 : **2016년 4월 11일 ~ 2016년 5월 28일**

▲ 대상승려 : 제적, 탈종된 승려 및 본 종단에 입종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승려 및 법사

▲ 접수장소 : 재단법인 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

▲ 제출서류 : 분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3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총무원 전화 033)671-7751~4로 문의 바랍니다.

재단법인 근본불교 조계종 이사장 의 륜

평화는 살림이다… “물러서야 나설 수 있어”

2016 평화살림콘서트 현장… 주제 : ‘평화가 뭘까?’


3월 27일 서울 방배동 마지에서 열린 첫 평화살림콘서트. 소박한 공간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평화를 되새기는 이 행사는 명법 스님을 시작으로 올 말까지 다양한 초청강사들이 참여하며 이어진다.

평화(平和). 이 짧디짧은 두 글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글자 그대로 평온하고 화목한 것일까? 누군가는 평화를 ‘주변사람들과 다툼 없이 화목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뜻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평화의 정의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바로 ‘꼬마평화도서관을여는사람들’과 ‘으라차차영세중립코리아’가 마련한 연간 행사 ‘평화살림콘서트’다. 3월 27일 서울 방배동 마지 2층에서 열린 올해 첫 평화살림콘서트에는 〈미술간에 간 붓다〉 저자인 명법 스님이 초청강사로 나와 평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명법 스님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를 인용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주체적이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강조했다.

〈필경사 바틀비〉는 1980년대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가의 한 법률 사무소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바틀비는 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계급사회에서 고용주인 변호사에게 “I would prefer not to(하고 싶지 않다)”라며 작업 지시를 거부한다. 자본주의 위계질서에 대한 수동적인 저항이다. 그렇기에 〈필경사 바틀비〉는 사회구조가 낳은 불편한 현실을 낱낱이 드러낸 소설이다.


〈필경사 바틀비〉를 통해 평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 명법 스님의 강연은 청중에게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평화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 소설에서 명법 스님은 ‘하지 않음(無爲)’이라는 바틀비의 수동성이 갖는 미학에 주목했다. 스님은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했던 일이 많을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표현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기중심성을 느끼게 해준다”면서 “충분히 역량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드는지 모른 채 바쁘게 뛰어간다. 그만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함’에 메여있다”며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어떤 것’으로 자기를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쓸모 있어야만 하고, ‘어떤 것’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현대사회의 민낯에 대한 지적이다. 명법 스님은 “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을 하면 좋겠다’가 아닌 ‘~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가만히 있다 보면 심심함을 못 이기고 스마트폰을 켜서 게임을 하는 등 특정 행동에 자신을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 흐름 속에서 벗어나 있을 때 깊이 들여다보고 지혜를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평화살림콘서트는 ‘콘서트’라는 이름에 맞게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깊은 30대 도반 조성미 · 양인영 씨는 직접 작곡한 찬불가 ‘기도’를 선보였다. ‘기도’는

‘하지 않음’에 익숙지 못한 사회
성찰 없는 행위로 자기 제한해
“사회적 요구 벗어나 나를 봐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피아노와 비올라로 표현한 곡이다. 가사는 과거의 지은 죄를 참회하고, 불법(佛法)에 따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작사 · 작곡을 담당한 조성미 씨는 “7년 전 정토회 100일 출가를 체험하고, 큰 감동을 받아 찬불가를 만들게 됐다”면서 “불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불교에 관심이 있어 교리공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조계사 꼬마평화도서관 개관식서 공연한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호구아트’도 평화의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흥을 돋웠다. 이후에는 명법 스님과 농부철학자 윤구병 선생, 변택주 작가 등이 각각 평화를 주제로 한 대담을 나눴다.

윤구병 선생은 “살림에 맞서는 말은 죽임이다. 우리는 일손을 놓고 물러서 있어야 힘들어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택주 작가는 “‘되자’라고 하면 슬프고, ‘하자’라고 하면 즐겁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쓸모없음이 주는 넉넉함을 돌아보게 됐다”며 “물러섬은 꼭 해야 할 때 나서서 할 수 있음이란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콘서트를 관람한 사람들은 무위(無爲)라는 평소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평화에 접근하는 게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평화라는 주제가 폭 넓은 만큼 서로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좁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은희(43) 마을기업 밸류가든 대표는 “‘하지 않음’을 강조한 스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아등바등 지내왔던 시간이 평화롭지 못했던 것 같아 울컥했다”며 “마음을 비워내고 평화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송작가 출신의 이은주(49) 씨는 “소박한 곳에서 들은 평화에 대한 정의가 새로웠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문화공연도 어우러져 좋았다”면서 “다만 대담 내용이 평화라는 주제에 맞게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든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박종건(40) 씨는 “주제가 평화여서 통일을 생각하고 왔는데 내면의 평화를 다뤄서 색달랐다”며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살림콘서트는 지난해 개최된 ‘평화난장이야기-평화머니?’를 확대한 것으로, 평화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홀수달 마지막주 일요일마다 진행되며, 앞으로 문화운동가 채현국 선생(5/29),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7/31), ‘한국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이현주 한약사(9/2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저자 일진 스님(11/27)이 나설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성미(건반) · 양인영(비올라) 씨가 직접 작곡한 찬불가 ‘기도’를 김현진 마지 대표가 부르고 있다.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 ‘호구아트’가 평화살림콘서트 취지에 맞춰 ‘같이 살자’는 주제로 공연하고 있다.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佛法은 정의구현 경찰의 지표와 같아"

3월 30일 경찰대 아산캠퍼스 법당 이전 개원

십시일반 불사금 모연 동참해
30년 용인캠 떠나 새둥지 포교
41평 규모, 지도법사 혜전 스님
"학생 심리 안정 위해 노력할 터"


조계종 포교원 산하 경찰전법단은 3월 30일 경찰대학 아산캠퍼스 학생회관 2층에서 큰법당 점안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1981년 제1기생 입학을 시작으로 35년간 국가와 사회질서를 책임지는 경찰인을 양성해온 경찰대학교가 아산캠퍼스 이전 후 본격적인 '아산시대' 막을 올렸다. 이에 따라 30년 가까이 용인캠퍼스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앞장서 온 경찰대학 법당도 아산캠퍼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경찰전법단(단장 지현)은 3월 30일 경찰대학 아산캠퍼스 학생회관 2층에서 큰법당 점안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경찰전법단 부단장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 백승호 경찰대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문을 연 큰법당은 41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전 법당에 비해 공간은 2배 가량 넓어졌고, 탕비실 등의 부대시설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마곡사 · 조계사 · 봉은사 · 옥천암 등 사찰에서 각 1,000만원씩 불사금을 후원했으며, 일반불자와 경찰 등도 법당 불사에 동참했다. 아울러 법당 이전에 따라 지원사찰이 된 마곡사는 지난해부터 주지스님 등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탱화 및 불단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아산 봉곡사 주지 혜전 스님을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개원법회 법사로 나선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경찰대학의 고급 인력을 불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포교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부처님을 찾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찰불자들이 먼저 다가가고, 나누고, 실천하는 중생이 되자"고 강조했다.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은 부단장 원명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경찰관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운 분들"이라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수행이 여러분의 꿈과 같다.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 긍지를 갖고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호 경찰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인과법에 기초해 선한 행동으로 좋은 업을 쌓고, 악한 행동을 멀리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정의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경찰들에게 삶의 지표와도 같다"면서 "새로 조성된 법당에서 우러나온 자비와 지혜의 향기가 경찰대학생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학교 불자들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삼독을 참회하고, 불법(佛法)에 따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경찰대학법당은 1980년대 중반 수원포교당(현 수원사) 주지였던 성관 스님의 적극적인 불사로 건립됐다.

2010년까지 학생법회만 이어오다 고중현 포교사가 교직원불자회 창립을 주도하며 한 달에 2번씩 교직원법회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전법단의 관리 이후 체계적인 법회활동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교직원법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전법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교구본사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도법사 혜전 스님은 "새로운 소임을 맡아 경찰대학법당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부에 치중해 종교생활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아동성폭력 예방 '나나극단' 10주년 공연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폭행 대처법 교육 인형극



'나나극단'이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단 10주년 기념발표회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자'를 진행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단 '나나극단(단장 송미령)'이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단 10주년 기념발표회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자'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제2어린이집 외 영등포구 소재 6개 어린이집 아동 및 지도교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나극단은 이날 △친구들 사이에서 놀이와 장난으로 생각하는 성희롱 상황 △낯익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행과 올바른 대처법 △낯선 사람들의 유괴 혹은 성폭행과 대처법 등을 담은 인형극을 펼쳤다.

송미령 단장은 "최근 가슴 아픈 아동 피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극단의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의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단원들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단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5명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나나극단은 지난 10년 간 과천 · 안양 · 군포 · 의왕 등 경기 지역을 비롯해 최근 부산 · 제주도 등 활동무대를 넓히며 300여 회 전국 공연을 실시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글로벌 러브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나나극단 측은 "앞으로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더불어 학교폭력 및 다문화 교육 '틀림과 다름' 등을 실시하며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인형극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위국헌신 · 위법망구 정신 되새겨

국군불교총신도회, 3월 25일 창립 16주년 기념법회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군불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 장병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포교하자'는 기치 아래 2000년 출범한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았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현집, 이하 군불총)는 3월 2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창립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는 '국운융창과 국군장병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회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관 변재선 소장, 호국 충의사 곽병호 대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김현집 회장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가 지속돼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며 "군불자들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군인정신'과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불자정신'으로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국가와 군의 주역이 돼 호국불교를 실천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따뜻한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총신도회가 앞장서 달라"며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정우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깊은 신심과 신행을 동력 삼아 주어진 소임에 매진하시는 총신도회 진력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군불총은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전방 격오지 소규모 법당 20곳에 법회활동을 지원하고, 군법당 간부불자 네트워크를 통한 유대강화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등 각 종단 스님들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108울트라마라톤 4월 16~17일 개최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는 오는 4월 16~17일 서울 일대에서 '제6회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를 넘어 불교 성지인 사찰을 순례하는 실천수행의 하나로, 아마추어 울트라마라토너에 대한 포교 및 참가자들에게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다. 마라톤은 조계사에서 출발해 봉원사-백련사-수국사-파주 보광사-고양 흥국사-봉국사-개운사-조계사에 이르는 코스로 100km와 50km로 나눠 진행된다.

마라톤이 가능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대회 참가 동반주자의 조력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 참가비는 5만원, 완주패는 대회종료 후 개별 신청자에 한해 별도 제작한다. 체크포인트는 58km지점이며, 9시간 30분 내에 통과해야 한다. 완주 제한시간은 17시간. 010-5398-1279 **윤호섭 기자**

고사리 손으로 동전모아 유치원 건립

광진구 어린이들 기금 마련
'썽꼼민쩨이 유치원' 준공



지구촌공생회는 3월 24일 캄보디아 썽꼼민쩨이 마을에서 '썽꼼민쩨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광진구 어린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동전으로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선물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3월 24일 캄보디아 캄퐁스푸 주(州) 썽꼼민쩨이 마을에서 '썽꼼민쩨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썽꼼민제이 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유치원은 아동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칸 교실 규모로, 정부 교사가 파견돼 아이들을 지도한다. 또한 지구촌공생회의 운영 모니터링 및 광진구 어린이들과 교류, 교사 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썽꼼민쩨이 유치원'은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소속 25개 유치원 2,000여 명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모은 사랑의 저금통 및 바자회 수익금 4,500여만 원으로 건립돼 눈길을 끌었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광진구 어린이들이 모은 동전이 기적을 이뤘다"며 "이에 현지 주민들도 토지구입, 국기게양대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들이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캄보디아 아이들을 생각하며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바자회를 여는 등 기금을 마련하는 동안 내내 기쁜 마음이었다. 썽꼼민제이 유치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며, 세계적인 미래 인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디지털 업보 시대… 올바른 인식이 人文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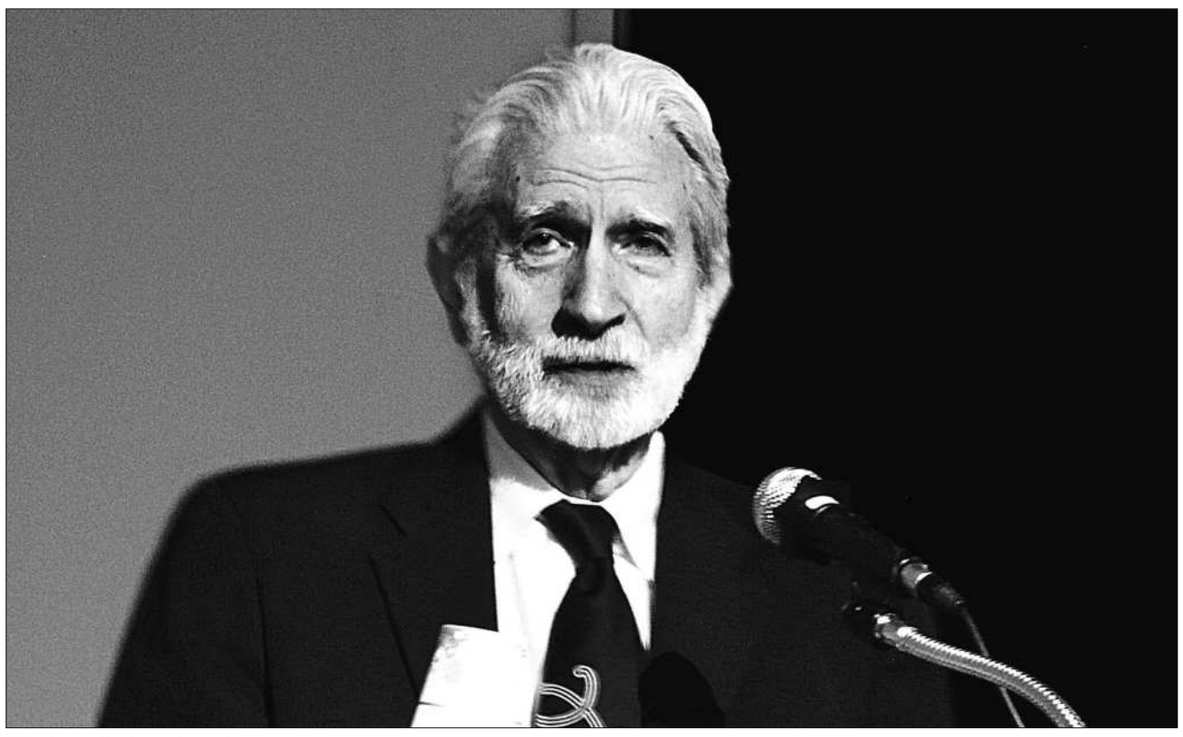
HK연구소협의회 세미나 기조강연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 명예교수

국내 43개 대학 인문한국(HK) 연구소 모임인 HK연구소협의회는 3월 25일 네어버 본사 그린팩토리 커넥트 홀에서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현재와 미래'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불교 석학이자 디지털 인문학 전문가로 잘 알려진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 버클리대학 명예교수가 참석해 기조강연을 가졌다.

'디지털 시대의 업보(Karma of Digital Age)'를 주제로 열린 기조 강연에서 랭카스터 교수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산업, 학문, 정부의 '삼중 나선' 속에서 운영되는 대학은 이제 캠퍼스를 넘어 디지털상으로도 '품질관리'라는 통제를 받으며 더 극심한 압박을 겪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현실 인식과 반응을 통해 열린다"고 충고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는… 1954년 미국 남가주대학(USC)에서 불교학 석사, 1968년 위스콘신대학에서 불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두 학위 모두 미국 내 첫 불교학 학위다. 1970년 후반에는 미국 종교학회(AAR)에 한국종교분과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했다. 불교 자료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전자문화지도협의회(ECAI)를 출범시켜서 세계 디지털 인문학을 이끌어온 세계적 석학이다. 한국에서는 그 공로로 만해대상 포교부문상(2007년)과 대한불교조계종 불자대상(2014년)을 수상했다.

지금 우리가 정보수집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대전환을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출판된 문헌들에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과 '기성세대'인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 사이에서 발생한 세대 격차에 대한 언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스벤 버커츠(Sven Birkerts)가 쓴 〈구텐베르크 만가(Gutenberg Elegies)〉의 말미에서 저자는 디지털 기술과 조우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자판을 몇 개 누르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극이 다운로드돼 중추신경계를 통해 흘어진다.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무한한 데이터에 접근해 조작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전기회로 속도로 움직인다. 밭에서 바위덩어리가 사라지고, 부러진 괭이가 사라지고, 아득한 거리는 좁혀진다.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는 '역사는 깨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악몽'이라고 했다. 어쩌면 깨달음(awakening)일지도 모르지만 마치 잠자는 내내 맴도는 환상처럼 기묘하기도 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라(Refuse it)'는 소리가 들린다."(229)

버커츠는 디지털 기술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면의 소리'를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버커츠와 그의 동조자들을 "디지털 러다이트(Digital Luddites)"라며 신랄하게 비난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저항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이용한 생산에 대항하여 기계화된 직조 및 편직에 사용하는 프레임을 부수던 산업혁명 초기를 떠올리게 한다. 러다이트를 말하는 이들은 기계사용의 흐름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적정 가격의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혁명'은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따라서 우리 사회와 정신(ethos)을 규정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은 세속적 이득을 가져다 줄테니 대신 우리의 영혼을 내놓으라고 유혹하는 파우스트 식 '악마'인가? 버커츠가 들은 '내면의 소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라(Mara)'의 유혹인가? 후자의 해석은 디지털을 현상(現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상의 지배자 마라를 위협하는 새로운 '깨달음(awakening)'으로 보는 시각이다. 마라 역시 자신의 재물에게 '내면의 소리'처럼 속삭인다. 마라는 변화를 이루려면 노력은 너무 많이 드는데 보상은 거기에 비해 보잘것없지 않냐고 상냥하게 말하며 사람들이 잠재적인 이익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불안하게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

19세기 러다이트들의 주장이 아예 틀린 것만은 아니다. 기계를 쓰는 사람들의 복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한다면 인간은 기계화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근로조건에 놓이게 되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컴퓨터 기계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산업혁명을 곤경에 빠뜨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산스크리트어인 '카르마(karma, 업보)'로 강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카르마'가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를 모두 나타내는,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다양한 결과가 따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행위자의 의도 없이 일어난 결과다. 신기술(행위)을 적용하되 일련의 후속사태(결과)를 완전히 막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정보수집 · 통신기술 대전환 도래
기회인가, 새로운 예속 도구인가
'디지털 러다이트' 경향도 나타나

산업 · 학문 · 정부에 영향받는 대학
디지털 상으로 통제 · 압박 극심해
적절한 현실 인식 · 반응 고려해야

3년 전 내가 고려대 여름계절학기 강의를 맡고 있을 때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시대에 뒤쳐진 사람이 아니었고 디지털 신세계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소곤대기 시작했다. 마침내 용감한 학생 한 명이 나서 "교수님, 저흰 이메일을 안 쓰는데요"라고 말했다. 나는 학생의 말에 충격을 받고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이메일을 쓰지 않는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답에 '디지털 원주민'의 방식에 완벽히 발맞추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여전히 이메일을 쓰시지만 우리는 문자메세지를 쓴다"라고 말했다. 이내 나는 내가 21세기 강의실에 20세기 기술을 강요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업보(Karma)'를 인문학적으로 고찰할 때 업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 방법과 연구 전략에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학자들은 필사본의 세계(codex world)를 끊임없이 개선해 왔다. 우리가 연구한 내용들은 책으로 엮여 도서관으로 전달되고 목록 별로 분류되고 배포되었다. 출판사들은 작가와 동등한 위치를 점한 검토자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처럼 서로 뜻이 맞고 비슷한 교육을 받은 유사한 판단기준을 갖춘 '동료들(peers)'을 학문적으로 가치있고 출판할만한 콘텐츠를 결정하는 공식 결정권자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출판업계 전반, 정보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도서관, 출판사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자료의 흐름, 소수의 저명한 서평가에 의한 콘텐츠 선정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컴퓨터의 큰 업적 중 하나는 과거에는 결코 불가능했던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널들 간의 인용관계나 인용 여부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 저자가 다른 저널들의 각주에 몇 차례 '인용'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저널과 단행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쇄본이 지배하던 필사본 시대(codex world)에는 인용색인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디지털 형태로 된 통계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은 우리가 이제 인용횟수만 집계하는 수준을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재된 문헌들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패턴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인용 시스템과 유명 저널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출판물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데이터 출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 등장하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함에 따라 의학계 연구자들도 흥미를 끄는 데이터라면 출처에 관계없이 읽어보고 인용하고 싶어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 등장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상에서 연구 관련 대화가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학 웹사이트 'Academia.edu'에서 이런 열린 대화를 목격할 수 있다. 이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학생, 독립 연구원, 관심있는 일반인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학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샌프란시스코에 근거를 둔 이 웹사이트는 등록회원의 수가 30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라면 무엇이나 여기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인용 측정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이 인쇄물의 세계를 압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존의 인쇄물을 디지털 형태로 스캔하여 사용자 수백 만 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현재 2,500만 권이 넘는 책이 구글 북스(Google Books)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다. 이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한 도서관은 3,200만 권을 분류/보관중인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유일하다. 수백 만 권의 책을 서둘러 디지털화하여 내놓고 있지만 사용자들에게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진하다. 사용자가 관심있는 용어를 검색하면 단행본과 저널들에서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메뉴'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읽어보고 살펴보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

디지털이 교육, 보건, 인지과학, 원격탐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고 있다. 일부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거 방식의 데이터 읽기, 연구, 참조, 수집을 신기술이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필사본식 접근법의 대부분은 여전히 모든 연구분야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와 디지털 방식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과거의 방법들이 필요하기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이 교육계에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한 연구 가운데 하나가 읽기 능력을 다룬 연구다. 부모 및 교사들은 디지털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읽기 능력이 뒤떨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읽는' 데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고 한다. 문해력(literacy)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독자들은 여러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과 각종 데이터를 단일한 형식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능력에 집중했던 이전의 교육 방식은 광범위한 맥락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분석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매일같이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이며 우리 삶을 바꾸는 신기술의 도래를 목격하는 시대이다. 이와 동시에 난관에 봉착한 시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대, 연구 · 학습 방식을 다시 배우고 다시 생각하고 고치는 시대이기도 하다. 디지털화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디지털의 영향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곳도 없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에 응당한 결과와 난제를 불러오는 '디지털 업보(Digital Karma)'의 시대이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5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청강 후 등록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경주세계엑스포와 산학협력 추진

동국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3월 30일 MOU

불교 문화콘텐츠 개발나서



동국대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3월 30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상호협력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총장 이동우)는 3월 30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주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영상과 실감미디어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 물적 교류를 추진한다.

불교학 기반의 인문학적 토대와 가상현실, 실감미디어 등 첨단 멀티미디어 공학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동국대는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경주문화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장 보광 스님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의 협력은 문화융성의 핵심인 문화콘텐츠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양 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佛事 참여 스님들의 진면목 고찰

불교미술사학회, 9일 학술세미나

불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지준)는 오는 4월 9일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간 미진했던 불교조각이나 건축 등 사찰 각종 불사에 참여했던 스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19세기 승려 장인 민열의 건축기법'에 대해 살펴보며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안성 봉덕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조각승 금문'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조태건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조각승 승호와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고찰한다.

이밖에도 박기헌(동국대)씨가 '중국 북위 금동연화수보살입상에 대한 연구-정주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해, 심인영(홍익대)씨가 '원각사지 10층석탑 4층 부조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은아 충남대 강사, 강건우 국립중아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희정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리뷰' 19호 원고모집

금강대 불문연, 4월 15일까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리뷰'가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분야는 △논문 △연구사 및 연구현황 △서평 △역주 △번역 △참관기 등으로 폭 넓다. 논문의 경우 인도학, 중국학, 티벳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불교학 전반을 아우르며, 더불어 문헌학 분야의 논문도 가능하다.

연구사 및 연구현황은 국내외 학술분야에 관한 연구사와 최신의 연구현황 소개를 주제로 한 논문이어야 한다.

논문은 본문과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며, 초과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 투고를 원하는 석사 이상의 학자는 이메일(criticalreviewforbs@gmail.com)로 4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체벌보단 훈육조건 충족 여부 살펴야"

이호근 교수, 〈불교연구〉 44집 발표 논문서 주장

현재 대한민국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직접적 체벌은 2011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다만, 학칙에 따라 간접 체벌은 허용되고 있다. 학생 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 침해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체벌이 다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호근 강릉원주대 철학과 교수가 〈불교연구〉 44집에 발표한 '체벌에 대한 불교적 고찰'은 숙고할 부분이 많은 연구이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체벌의 교육적 가치와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불교적으로 체벌에 대해 해석했다.

체벌에 대해 이 교수는 "체벌은 대부분 그것을 행하는 교사나 부모의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행된 점이 문제"라면서 "인본주의 교육사상에 비춰볼 때, 학생의 자존심 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체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 교수는 불교적 훈육 수단으로 섭수(攝受)와 절복(折伏)를 들었다.

섭수는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의 사섭법으로 중생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수용해 진실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반면, 절복는 신 · 구 · 의 삼업을 조절해 모든 악법 · 장애를 굴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절복은 저항하는 중생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자칫 폭력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절복은 서구적 폭력 개념과는 다르다. 폭력은 주체와 객체가 대립된 상태에서의 물리적 수단이지만, 절복은 주체적 자각을 통한 중생제도 및 자기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에서 직접 체벌 금지
교권 침해 빈번해 "체벌 부활"
체벌 허용여부는 교육계 숙제
불교적 훈육수단 '절복과 섭수'
타이름과 질책 모두 사용 가능
체벌 여부보다 지향성 중요해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체벌 허용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불가피하게 체벌을 해야 할 경우 체벌이 훈육의 방편으로써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훈육 수단은 절복 · 섭수가 있으며, 선가(禪家)에서도 방과 할이 있다. 절복의 경우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만 외적 성격보다는 지향성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

이 교수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체벌 여부보다 훈육 조건이 충족하는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섭수와 함께 방편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절복은 외적 성격보다는 그 지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불교의 사제관이 현재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근거로 봤다.

불교에서는 교사를 화상(和尙) 혹은 아사리(阿闍梨)아도 부른다. 화상 밑에서 배우는 제자는 동주제자, 아사리 밑에서 수학하는 제자는 근주제자라고 한다.

이 교수는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승과 제자는 흐트러짐없이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학습에 매진하는 것"이라면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엄격하지만, 자애와 친애의 정으로 충만한 인격적 관계 위에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민주적인 사제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관계는 인내와 사명감을 갖고 상당 기간동안 지속적이고 엄격한 실천과정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훈육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中 종파불교 원류 '지론종' 면모 살피다

금강대 인문한국연구센터 '지론종 문헌' 국제 세미나
韓·中·日 전문 연구자 참여 돈황 문헌통한 연구 발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론종 문헌과 정영사 혜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국 종파불교의 원류로 주목받고 있는 지론종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론종 문헌과 정영사 혜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직은 대중에게 지론종은 인도 유식학자 세친이 〈화엄경〉 '십지품'에 대해 주석을 단 〈십지경론〉을 연구했던 분파다. 510~580년까지 중국 북부에서 융성했던 지론종은 천태 · 화엄 · 선 · 정토 등 중국 종파불교가 성립에 초석이 됐다.

중국불교 사상사의 뿌리와 같은 지론종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돈황사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론종도 주목받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론종과 관련한 돈황문헌에 대한 연구들이 대중에게 공개됐으며, 지론종을 대표하는 정영사 혜원 스님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다수 발표됐다.

성카이 중국 청화대 교수는 '승현(僧賢)과 지론학파'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출토된 '대제고사문대통승현묘명'을 중심으로 승현의 일생과 사상을 정리했다.

승현은 승조의 제자로서 대총지사와 흥성사를 관장했던 지론사(地論師)였다. 그는 선학사상을 계승해 〈열반경〉의 사념처를 중시했고, 〈화엄경〉과 〈법화경〉을 제창했다고 성카이 교수는 설명했다.

창루 베이징 중국불학원 강사는 '지론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혜달, 지자, 길장 등이 기록하고 있는 '지론사'의 내용 다수가 돈황 문헌에서 직접적인 근간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론학파는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타케 스스무 일본 하나조노대 강사의 '지론종의 불신론' △박보람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초빙교수의 '지론종 육상설 고찰' △이케다 마사노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의 '돈황 출토 지론종 교리집성문헌 스타인 613V 제21장 경변오주지번뇌의에 보이는 아비달마 교리에 대해서' △츠리메이 일본 쓰루미 대학 불교문화연구소 준교수의 '속고승전 본문 및 그 특색-권8에 실려 있는 정영사 혜원전을 사례로'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원융종

분한신고 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대한불교원융종 종도 여러분과 가람에 항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원융종은 종단행정의 재정비와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이내 분한신고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내에 분한 신고를 못한 경우 대한불교 원융종의 승려로서 자격이 정지 및 말소 되어 대내외적으로 본 종단의 소속 승려로서의 어떤 업무 확인도 해 드릴수 없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속 사.암 주지 및 종도 여러분께서는 총무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기 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4월 30일
◆대 상 : 대한불교원융종 종도 및 승적 보유자
※ 2015년 ~ 2016년 체탈도첩 및 제적자 제외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
◆제출서류 : 분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증, 승려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4-39 / 전화 02)853-0430~1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배 진 호

인생그래프 상담법 안내

프로그램 유형

-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체도와 그래프를 통하여 과거.현재.미래를 예측해 준다)
- **설문응답을 입력하면** (부와 명에 중 어디가 발달되었나)
- **숫 자 를 입 력 하 면** (금년엔 재물 관계가 어떨까)
-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숨겨져 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순간 자료가 나오는 획기적 프로그램

【 학 생 용 】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뇌의 발달 여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은!
▶ 수시 1차. 2차. 정시 진학시 어느 계열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가!

1,2,3지망으로 계열, 학과 안내

【 성 인 용 】

- 인체도를 보며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알려주며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관계를 정확히 전달
- 언제 좋은 일이 생기는지 그래프를 통해 알려준다
  ▶ 나의 미래에 관해 궁금한 분!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어느 분야로 나아 가는게 좋을까!
  ▶ 부와 명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운세 및 진로 적성 상담

애정. 궁합. 택일. 매매. 이사 및 행운방향. 진학
작명(신생아.개명.상호.아호). 건강. 진로. 직업

➔ 지사 모집 ➔



- **지사 참여 대상 :** 종교인.
교육관련종사자.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학원운영자.
교육보험프리랜서. 미술치료심리상담
-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집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무점포. 무자본)
- 유년기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 가능

명리학 및 프로그램 활용법 강의 안내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 시 간 : 오후반 14시 ~ 17시 (3시간)
⇨ 장 소 : 본 연구소 강의실 (401호)

- **학생에겐 꿈과 희망을 드리며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안내하는 연구소!**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진로적성힐링 상 담 소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직진 흥진빌딩 401호
문 의 : H·P 010-5418-5972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 시방세계에”

부산 경남 연등축제 준비 한창

부산 경남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두고 다양한 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3월 24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016년 부산연등축제’ 제1차 실무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연등축제는 불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행사를 지향하고, 부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통등 전시, 거리등, 등터널 등 화려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및 부대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 경남 불교연합회들이 연등축제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연등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봉축
문화 · 음악제 등 행사 다채
“연등 빛으로 길거리 물든다”

올해 부산연등축제는 개막 점등식,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회로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개막 점등식은 4월 30일 오후 7시 부산 양정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시작되며 연등축제의 막을 연다. 이때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가 이어진다. 연등문화제는 송상현 광장과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아름다운 연등행렬로 거리를 수놓을 부산연등회는 구덕운동장에서 집결해 시작된다.

연등회는 5월 7일 오후 4시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행렬단과 부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율동 및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화합을 다진다.

이후 봉축연합대회를 개최하고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내빈들의 관불의식, 축사 및 대회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등행렬은 7시 30분에 출발하며 단일 구간으로 구덕 운동장을 출발해 동아대 부민 캠퍼스 방향으로 돌아 대청로 진입 후 대동회향한마당으로 마무리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16년 부산연등축제 과제로 연희단 참가 인원 확보와 대중들의 참여도를 꼽았다. 사무총장 심산스님은 “선거철이 맞물려 있어 효율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며 “문화포교의 방향으로 시민들과 어울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찰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도 ‘2016년 태화강 연등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는 4월 30일~5월 1일 이틀 동안 옛 태화호텔 맞은편 태화강 둔치에서 개최된다. 특별히 첫날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빛사랑 예술제’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학생의 재능을 개발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예술제 부문은 그리기, 글짓기, 창작등 제작이며 참가 접수 기간은 4월 1일~22일이다. 접수는 태화강 연등축제 조직위원회 (www.ubcf.net)로 하면 된다. 행사는 4월 30일 오전 11시~3시 까지 진행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 이날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예술제와 함께 부대행사로 다양한 전통놀이를 준비하며 청소년외 시민들은 발우공양체험 및 소원달기, 컵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오후 3시에는 시민한마음 축제가 열려 가수들의 뜨거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점등식은 이날 7시 30분에 봉행된다.

5월 1일에는 오후 2시 울산 태화루에서 태화강 둔치 행사장까지 부처님 이운식을 진행하며 오후 6시 봉축 법요식, 오후 7시 연등행렬이 이어진다. 연등행렬은 태화강 둔치를 출발해 시청을 돌아 달동 롯데마트 사거리, 번영사거리, 현대백화점 사거리,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거쳐 해산한다. 전체 동선은 약 4.8km.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진해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초)와 함께 넓은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연등축제를 진행한다. 먼저 진해에 있는 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5월 1일 오후 4시 진해 중원 로터리 일대에서 다문화 한마당 축제를 시작한다. 다문화축제는 먹거리 장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봉축을 맞아 자비의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점등식 및 법요식은 오후 7시에 봉행된다. 연등행렬은 중원 로터리로 시작해 진해역을 돌아 다시 중원로터리로 돌아와 해산한다.

이어 창원불교연합회는 5월 7일 오후 7시에 창원시청광장에서 연등축제를 연다. 1부 창원시연합 봉축 법요식을 개최하고 2부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봉축 음악회가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베트남 향기 품은 보금자리 쉼터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3월 27일 다문화인들을 위한 쉼터 베트남 하노이 빌리지를 개원했다. 삼광사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 해 문을 연 하노이 빌리지는 앞으로 다문화인들의 복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삼광사는 하노이 빌리지를 시작으로 나라별로 쉼터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 대강백 덕민 스님, 강맥 전하다

3월 28일, 기림사서 운암 스님에게

한국불교 대강백이라 일컫는 덕민 스님이 처음으로 강맥을 전수했다.

불국사승가대학장으로 평생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해온 덕민 스님은 3월 28일 기림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전강식을 통해 기림사 부주지 운암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전강식에서 덕민 스님은 전강게와 영송게를 전달하고 전통 강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하고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운암 스님은 “정말 감사드린다”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처음 뵈었던 그 심정으로 따르고 가르침을 향해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림사는 현재 전통 강맥을 잇기 위해 불국성립한문불전대학원 개원을 준비중이어서 강사 스님의 역할이 중요한 곳이다. 앞으로 운암 스님은 불국성립한문불전대학원 원장을 맡는다.

전강식에는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 前 동국대 교수 법혜 스님, 前 법주사승가대학장 종광 스님, 도업 스님, 성본 스님, 법산 스님 등 2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덕민 스님은 석전 한영 스님으로부터 고봉 태수 스님, 우룡 종한 스님으로 계승되는 강맥을 잇고 있다. 우룡 종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민 스님은 1956년 3월 범어사서 종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3월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청암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합천 태동서사에서 사서삼경을 수학했다. 1973년 법장사 주지, 1999년~2003년 부산 범어사승가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불국사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불국사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은 3월 28일 기림사 대적광전에서 운암 스님을 첫 전강제자로 강맥을 전수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운암 스님은 1987년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1년 쌍계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91~1998년까지 쌍계사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하성미 기자

동림사, “포교 위한 문화 공간으로”

외국인 · 의경 함께한 템플스테이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가 문화포교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림사는 3월 27일 경내에서 ‘의경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외국인 및 기장 파출소 의경 40여 명과 봉사자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불교문화체험을 통한 문화포교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외국인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를 제공해 불교와 더욱 친숙해지도록 돕고, 불자들과 교류하는 장이 되도록 힘썼다. 아울러 국전 초대작가인 주지 성타 스님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눔 재능기부, 신도 및 자원봉사자들이 다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행사들이 다채로웠다는 평가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먼저 선차 체험으로 문을 열었다. 차를 마시는 동시에 명상을 체험하며 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차를 마시며 차의 맛과 도자기, 한복을 통한 전통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사찰 비빔밥 먹기, 연등 만들기, 전통염색, 그림부채 만들기, 떡메치기, 염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에서 온 쉔타 씨는 “처음 접해보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어 기뻤다”며 “특히 선차 체험이 인상적이었으며 아름답고 쉽게 볼 수 없는 문화라 뜻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보현 의경은 “기장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전통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천받아 다 같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며 “할머니께서 깊은 신심을 가진 분이셔서 어릴 적에는 자주 절을 찾았지만 요즘 들어선 자주 가질 못하고 있었다. 이번 계기로 절에 오니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모습도 생각나고 종종 절을 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동림사는 현재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매주마다 운영하며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주지 성타 스님은 “문화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기장 동림사는 외국인과 의경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3월 27일 동림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 속성 마스터과정 모집 및 공개 특강



■ 석하명리 속성과정 제 6기 | 4월 18일부터 15주 과정 | 매주 월 19시 ~ 22시
■ 무료 공개 특강 : 4월 18일(월) 19시 ~ 22시 (선착순 참가신청 02-585-0079)
■ 수 강 료 : 150만원 | 한국웨딩플래너협회 B1 교육장 (학동역 8번 출구)
■ 명리, 동양미래 진로적성 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전 과정 동영상 반복 학습

석하 소재학 박사 직강
-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동양 미래학자
-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재)하원정미래학회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역임
- Earist University 동양철학부장 및 학장 역임
-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
- 저서 : 음양오행의 원리이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1~4권 외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 석하명리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벗기고 합리적인 이론체계로 정립시킨 과학역학
- 음양오행과 사주명리학의 모든 원리를 밝혀, “왜?”라는 물음에 답을 준다. (왜 재성이 여자이고 돈이며, 인성이 문서가 될까?)
- 사주명리학 총정리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찾는 법
- 격과 용신을 정하는 명확한 방법
- 인생사계절 10년 주기 ‘석하리듬’
- 명리 초 중 고급자 및 강사, 현업종사자
- 유튜브검색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동영상 참조
- 다음기수 무료 반복 수강(석하명리 도반, 평생회원)
- 초보를 위한 별도 특강 진행

(재)하원정미래학회, www.hawj.co.kr / 02)585-0079 / 동양미래예측연구소(다음카페참조),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

NAVER 소재학 검색 DAUM 소재학 YouTube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NAVER 동양미래예측학 검색


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청년식당을 찾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엄마 마음 담긴 절밥 맛있어요”

증심사 · 정안사, 취업준비생 위한 청년식당 ‘인기’

취업난을 이겨내며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식당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가 운영하는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은 지난 2월부터 ‘청년학생들을 위해 엄마들이 情을 담아 만드는 집밥 나누기 프로젝트-청년식당’을 펼쳐 취업준비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식당’은 광주의 대표적 학원가이자 고시원 밀집지역인 대의동 일대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무료로 저녁을 대접하는 사업이다. 메뉴도 여느 일반음식점 못지않게 풍부하고, 건강을 배려한 식자재를 사용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식당으로 사용하는 사찰음식체험관이 고급스러운 불교 내부 장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포교에도 한몫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사찰음식체험관을 이용하고 있는 구경식 씨(24, 경찰공무원 준비생)는 “식기가 고급스럽고 음식이 정말 맛있다. 특히 정갈한 음식 덕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라며 “자원봉사하시는 많은 어른들의 정성이 늘 느껴지는 저녁”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때로는 좌절을 느끼면서도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불교계의 따뜻한 밥상을 전하는 일이 삶에 큰 의미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식당은 취업준비생 8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다. 증심사와 정안사(주지 동초)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음식조리는 사찰음식 수강생과 봉사자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백꽃 아래 詩에 취했네”

선운사, 3월 25~26일 ‘동백 시문학 템플스테이’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국 사찰마다 봄꽃이 한창인 가운데 고창 선운사가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선운사(주지 지우)는 3월 25~26일 ‘시인과 함께하는 동백 시문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명물인 동백꽃이 만발하는 계절을 맞아 이종배, 정진권 시인을 초빙해 열린 템플스테이는 선운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 낭송, 동백숲 명상,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동백숲 그늘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유명 시인들과 함께 자작시나 평소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보냈다.

미당 서정주 시인, 최영미 시인, 김용택 시인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많은 시인들이 노래한 고창 선운사 동백숲에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겨우내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비우고 봄의 향연을 마음껏 즐겼다는 후문이다.

오성호 선운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봄을 맞아 선운사의 명소라 할 수 있는 동백꽃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며 “도량을 수놓은 동백꽃을 비롯해 아름다운 봄꽃들과 저명 시인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신행단체 역량 하나로 모으자”

광주 불교계, 연합회신도회 구성에 박차

광주불교의 신행을 이끌어갈 신도회 구성을 위해 재가불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회장 이범식)는 3월 25일 NC웨이브 애슐리에서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도회 출범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범식 신도회장, 송승종 광주광역시청 불자회장, 김정연 광주전남포교사단장, 노기욱 동구청 불자회장 등 재가단체장을 비롯한 실무자 40여 명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시각 스님 등 광주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일정 등을 제시했다.

‘신도회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회는 △광주전남지역 재가불자들의 구심적 역할 맡아 불교발전에 기여 △재가불자단체 발전 도모 △직능 · NGO · 학생 · 공무원 등 다양한 불교단체 발굴 및 확대 △교구본사 · 사찰 · 불교단체 · 사부대중 불교네트워크 구성 △봉축행사 지원 등을 기본 목적으로 운영한다.

신도회는 이를 위해 임원진을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 회의 열기로 정했다. 임원진은 회장과 부회장(광역단체 불자회장 및 중요사찰 신도회장), 고문(역대 신도회장), 이사(불교계 후원자), 각 부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범식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 발전을 위해 신도회가 꼭 필요하다. 신도회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힘을 한 데 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도회 구성과 지역 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향후 각 불교단체장과 사찰신도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도회 운영 기본 계획 발표

임원진 구성 후 정례회의 통해

“지역불교 발전에 이바지”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는 3월 25일 ‘불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한 데 모을 신도회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새로운 신도회장과 함께 광주불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신도회를 결성해 달라”고 당부한 뒤 “어느 단체든 참여하는 주체들이 어떤 주인의식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바뀐다. 신도회가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나서 서로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도회는 4~5월 중 결성법회를 목표로 신도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준비모임과 3번의 간담회(불교단체 · 사찰신도회 · 공무원불자회)에 이어 불교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의 해체와 함께 굴곡을 겪었던 연합신도회는 지난 2014년 2월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의 임기만료로 2년간 공석이었다가, 2016년 1월 광주불교연합회에서 제1대 이범식 신도회장을 임명하며 광주지역 연합신도회 재건에 나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진했던 경찰불자회, 재도약 꿈꾼다

광주 동부경찰서불자회 재창립

경승 위촉… 법회·순례 실시도

광주동부경찰서불자회(이하 동부서불자회)가 그간 미진했던 활동을 청산하고, 적극적인 신행 · 전법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동부서불자회는 3월 24일 광주동부경찰서 회의실서 ‘불자회 창립법회 및 경승 위촉식’을 열고, 불자회 회장에 이민주 경무계장을 추대했다.

동부서불자회는 오래전 창립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최근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미진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창립을 통해 조직구성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새로운 재도약에 나섰다. 이날 창립한 동부서불자회 전체 회원은 40여 명이다. 매월 동구청 불자회와 공동으로 동구지역 사찰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사찰순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주 신임회장은 “다시 불씨를 살리는 마음으로 경찰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광주동부경찰서불자회는 3월 24일 불자회를 재창립하고 적극적인 신행 · 전법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치안과 국민안정에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경승단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불자회를 통해 경찰들도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갖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연광 스님을 비롯해 경승에 위촉된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인성 스님(관음암 주지), 소궁 스님(관음사 주지), 김영근 서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회장 국승인)도 3월 28일 광주경찰청 소회의실에서 2년 임기의 경승을 위촉했다. 이날 광주경찰청불자회는 경승실장 연광 스님과 경승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 · 도제 스님(길상사 주지)을 재위촉했다. 또 증현 스님(만경사 주지) ·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 혜법 스님(미륵사 주지)을 신규 경승으로 위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 사회복지관 희망 나누리 발대식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과 고창군이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탄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창복지관은 3월 3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부안면, 심원면 주민 복지위원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제2기 희망 나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희망 나누리’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민관협력활성화사업 경과보고, 2015년 희망나누리위원 활동소감, 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모든 꽃이 피어야 진정한 봄이 오듯이 주민 한분 한분이 꽃이 되어 행복한 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과 관, 주민이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군민 행복 고창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한 생각 바꾸면 새로운 삶 열리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㊷ 보상국요괴를 물리치는 손오공

저팔계의 격장지계(激將之計)가 성공한 것인가? 단지 그것만은 아니로다.

손오공 마음에 선근 뿌리를 내렸으니 어찌 쉽게 구도의 길을 팽개칠까.

한번 스승은 영원한 어버이라(一日爲師終身爲父), 스승의 위기를 구하러 급히 달려온다. 황포요괴는 아직도 궁궐에서 술에 취해 있고, 사오정은 요괴 소굴에 잡혀 있구나.

손오공 우선 요괴 소굴에 들려 사오정 구하고 요괴 부인노릇하고 있는 공주 달래어 요괴의 자식들로 궁궐에 있는 요괴를 끌어낸다.

(잔인한 장면, 심의 삭제) 놀랜 요괴 바람처럼 소굴로 달려오고, 손오공은 공주로 변신하여 요괴를 맞는다. "여보, 저팔계라는 놈이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파~견딜 수가 없네요."

"여보, 내가 그놈들 물리칠 테니 걱정말고…이거 내 내단(內丹)인데 가슴을 문지르면 아픈 게 나을거요."

손오공 요괴의 내단을 받아 냉큼 삼키고는 정체를 드러내 싸움을 거는데 이 요괴 역시 비보통 요괴다. 손오공을 알아보는 눈치? 그러나 서로 통성명할 이유가 없지.

싸울 수 있는데 왜 말로 하겠어? 한바탕 경천동지의 싸움이 벌어진다. 요괴의 솜씨가 오묘하여 제법 상대가 되지만 손오공의 유인책에 걸려 여의봉 한방 얻어맞고는 픽~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손오공을 알아보는 눈치도 그렇고 지상의 요괴라면 자취가 남는 법인데 이리 자취가 없다면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정령이로다. 급히 천궁에 올라가 옥황상제께 아뢰어 하늘의 선관(仙官)을 점호해 보니…

"규성(奎星)이 하계(下界)로 내려갔습니다. 점호에 빠진지 13일째입니다. 하계의 시간으로는 13년이군요."

그래서 별의 신령들이 규성을 잡아 올려 옥황상제 앞에 무릎 꿇린다. 규성이 사정을 아뢴다.

"보상국 공주는 본디 천상에서 향을 올리던 선녀였는데 저와 사사로운 정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계로 내려가 보상국 공주가 되고 저는 약속을 지켜 요괴가 되어 내려가 13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천대성 손오공을 만났으니 그 인연도 이제 다했나보군요."

옥황상제 규성의 죄를 물어 벼슬을 강등시키고 손오공은 그런대로 일을 잘 마무리하여 기분 좋게 하계로 내려온다. 호랑이 되어있는 현장법사원 모습으로 돌려놓고 그동안 섭섭했던 것 서로 풀어버리니 스승은 어버이와 같고 아비와 자식 사이에는 다음 날까지 가는 원한 없다(父子無隔宿之仇)하지 않았는가?

다시 함께 뭉쳐 힘차게!!! 인도로 불경 가지러 가는 길로 나서네. 오직 애꿎은 인연놀음에 남편 잃고 아이들 잃은 보상국 공주의 애끓는 한숨만이 궁전을 휘돌았다 하던가?

여러분, 이야기의 줄거리 읽어보시니 어때요? 앞에서 '요괴 쫓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라는 말을 했는데, 이번엔 조금 경우가 달라졌네요. 요괴 잡아놓고 보니 하늘의 선관(仙官)이군요. 그것도 사랑 놀음에 얽혀 하계를 좀 어지럽힌, 괘씸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미워하기는 힘든 선관이네요. 선관은 선관대로 하늘의 법규에 의해 처벌받고, 공주는 공주대로 자기가 초래한 업보를 감수하며 그냥 살아가는 길 밖에 없는 건가요? 애고,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좀 그렇네요. 여기서 한번 전생의 업연 이야기, 그리고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운 경우를 당하면 "전생에 업이 많아서…"하고 푸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괴로운 상황에 있는 것을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닥친 일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다시 나쁜 업을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업이 계속 확대, 증폭 재생산 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악순환은 끊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당한 상황을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업이 동원되는 것이지요.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자신을 달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설득의 과정은 매우 필요하기도 하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일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니 더 나쁜 업을 짓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구요. 그렇지만 삼쾌선생은 업을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업을 너무 소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업이라는 사고방식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현실을 합리화시키는데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의 훌륭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지요. 업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서 훌륭한 업을 지음으로써 훌륭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을 합리화하고,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적극적으로 훌륭한 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인이 계속 남편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그 부인이 남편의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그 분노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자신도 망가진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과거의 업보를 받는 것이야. 분노하지 말고 순순히 이를 받아들여야 과거의 업이 씻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요? 앞의 경우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이러한 태도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참고 참다 보면 남편이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참회하여 좋은 관계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성공한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참으로 전설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쾌선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어쨌든 과거의 업이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지요. 남편이 계속 그런 나쁜 업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자신도 계속 수동적으로 폭력에 당하기만 하는 업을 계속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런 업을 방치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방편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남편을 설득하고, 폭력을 방어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수단이 모두 안통하면 남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나쁜 업을 끊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나쁜 짓을 계속하게 만들고, 그 나쁜 짓에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또한 나쁜 업이니까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이런 업을 청산하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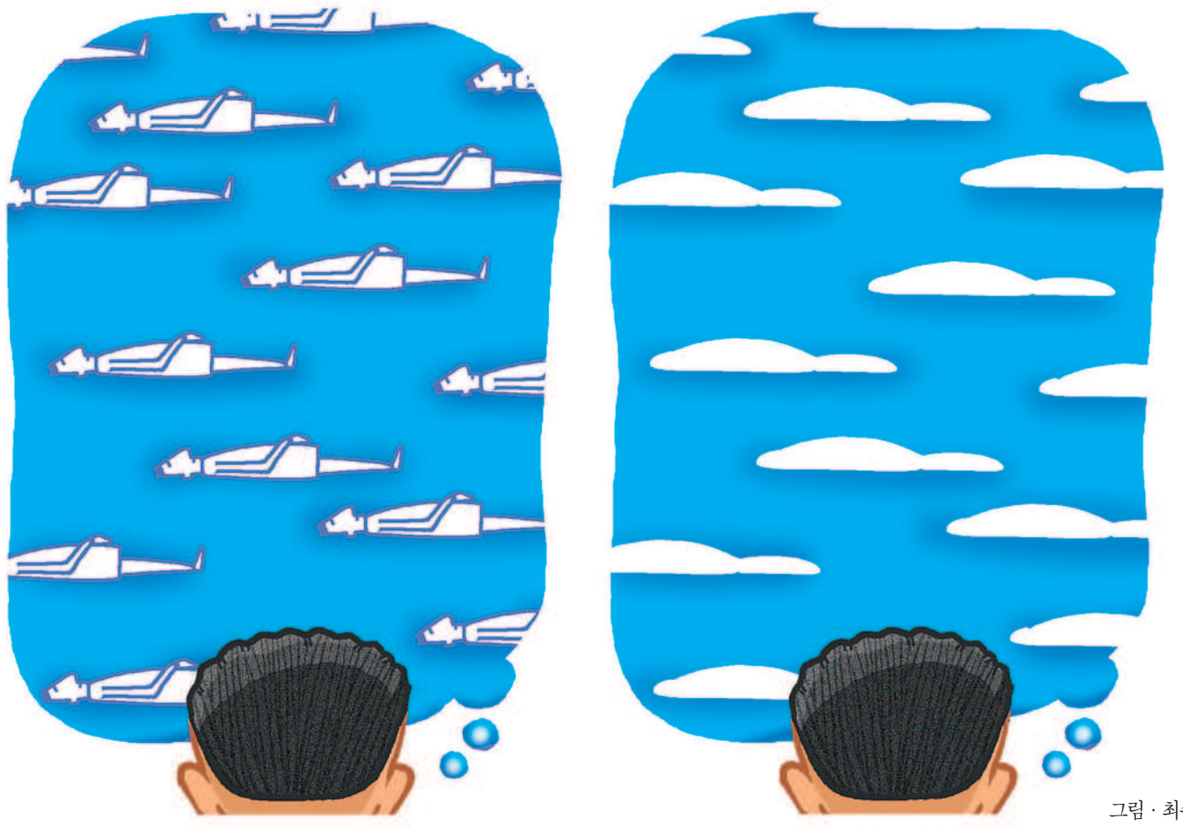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요괴 정체는 하늘 선관(仙官)
상계의 업으로 하계서 요괴돼
불교의 지혜가 업을 끊음을 상징
"전생의 업 타령 말고 선업쌓아야"

"전생에 업이 많아서…"하는 업 타령은 적절한 선에서 그칩시다. 그리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 나가는 힘찬 삶을 일으킵시다. 이것이 삼쾌선생의 주장!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삼쾌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업 타령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간혹 전생의 업을 확연히 아는 듯이, "보살님은 전생에 무엇이었고 남편은 무엇이었는데…그 때 보살님이 이리 저리 했던 과보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하는 식으로 전생의 이야기를 하시는 스님이나, 혹 도인 같은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또 위험하고, 또 사기성이 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정도가 되어서 삼명(三明) 육통(六通)이 환하게 열리신 분이 아니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을 것 같구요. 혹시 그런 이야기 끝에 그런 업보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짜리 기도를 드려야 한다든가, 어떤 액땜을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백발백중 사이비이거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것을 알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삼쾌선생을 삼쾌도사로 분장시켜 하나의 무대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앞의 가정폭력으로 해보지요.

〈짜가도사,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에 대하 근엄한 표정으로 설교를 한다〉

짜가도사 : 흠, 내가 신통력으로 살펴보니 보살님 남편은 전생에 소였고, 보살님은 그 소의 주인이었군. 그런데 보살님이 좀 심하게 소를 다루었네. 몹시 혹독하게 부려먹고, 거기다 심심하면 채찍질을 해 대었구먼. 그래서 지금 그 과보를 당하는 거야!

마자보살 : 아이고, 그런 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요?

짜가도사 : 흠…. 업보를 다 받으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몇 년은 필요할 것 같아.

마자부인 : 아이고! 전 그러면 죽어요. 지금도 겨우 겨우 견디고 있는데, 도사님, 제발 저 살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전생도 환히 보시니 무슨 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짜가도사 : 흠, 흠, 흠…. 아주 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나도 천기를 누설하는 일이고, 또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 좀 위험부담이 있어. 그래서 좀 이래저래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 감당이 되겠어?

마자보살 : 애고, 형편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끔찍한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해야지요…

〈이때 삼쾌선생, 삼쾌도사로 분장하고 혜성같이 등장한다.〉

삼쾌도사 : 잠깐 스톱! 짜가도사님, 저두 전생을 좀 보는데, 당신이 본 것과 내가 본에 완전히 다르네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군요.

〈짜가도사, 화들짝 놀란다〉

애고 지면이 다 되었군요. 짜가도사와 삼쾌도사의 대결…다음에 그 결과를 보도록 하지요.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양초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지난해 9월 10년 불사 끝에 복원된 대웅보전. 이곳은 과거 〈명찰순례기〉에 658판의 한글경판이 있다고 전해질 정도로 수많은 경전과 보물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대웅전 내부에 모셔진 삼존불 모습.


부처님 치아사리와 의습 10벌이 봉안된 금강계단

인고의 세월 견뎌 중생 마음 어루만지는 곳

'나'를 찾아 떠나는 山寺紀行

대둔산 안심사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옷깃을 스치는 바람결이 제법 쌀쌀하다. 절 아래 매화는 흐드러지게 피워 상춘객을 맞지만 아직 이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찾아보기 어렵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함께 아우르며 높게 서있는 대둔산 서쪽 안심사는 대둔산 끝자락의 품에 온화하게 안겨있는 사찰이다. 굳이 좌청룡, 우백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큼은 숨길 수 없다.

안심사는 꽃이 있어 향기로운 계절 봄날에 찾아야 제격이다. 절에 이르는 길을 가다보면 벚꽃, 개나리, 진달래, 배꽃들이 탐방객을 반겨주지만 아직은 일러 봄꽃은 보이지 않는다. 길가 큰 바위에 세워진 '대둔산 안심사'라는 표식을 보고 작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지만 안심사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4km남짓 더 가야 일주문을 만날 수 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 시골길은 포장이 잘되어 있지만 좁아 교행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마을이 대둔산 군립공원지역에 속해 건축등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예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끝자락에서 안심사 일주문이 당당한 자태를 드러낸다. 이곳에서도 언덕길을 한참 올라야 절 마당에 당도할 수 있다.

열반성지 안심입명처로 유명해

안심사는 신라 선덕여왕 7년(서기638)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안심사 사적기에 기록되어있다.

안심사 창건설화에 의하면 자장율사가 삼칠일을 기도하던 중 부처님이 나타나 '열반성지 안심입명처'로 가라는 말을 듣고 이곳에서 정진 중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절 이름을 안심사라 했다고 전한다. 실제 안심사 절 앞마당에서 바라본 앞산 능선의 모습은 영락없는 부처님의 열반상과 닮아있다.

그 뒤 헌강왕 7년(서기875)에 도선국사에 의해 중창되었고, 신라 말기 조구(祖球)화상에 의해 재중창 되었다. 그 후 고려를 거쳐 조선조 선조34년(서기 1601) 수천화상이 네 번째 중창을 했으며, 숙종 39년(서기1710) 신열선백에 의해 다섯 번째 중창을 했다고 전한다. 안심사는 조선시대까지 간경도감이 설치됐던 사찰로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무려 30여 채의 전각과 13개의 암자가 있었던 거대한 사찰이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원각경〉 〈법화경〉 〈한글언해본〉을 비롯해 수많은 경판이 보관돼 있던 판전을 비롯한 전각 일부가 소실됐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국군 8사단 88연대 3대대가 작전상의 이유로 '징발중 소각' 처리했다.

소각 이전까지 대웅보전 2층에 남은 경판본과 추가 제작된 경판이 보관돼 있다가 이마저도 대웅보전과 함께 소각됐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1931년 7월호 〈삼천리〉잡지에 기고한 '국보(國寶)에 잠긴 안심사'에서 안심사에 한글 경판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유숙하며 당시의 감상을 적은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만해 스님은 안심사에 전각 30여채 암자 12곳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만해 스님은 또 '명찰순례기'에서 안심사 대웅보전에는 658판의 한글 경판이 있다고 그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대웅보전은 현 주지 일연 스님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소각된 지 65년만인 2015년 9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10년만의 불사 끝에 복원했다. 현재 복원된 대웅보전에는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 여래의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부처님 치아사리와 의습 봉안된 곳

안심사에는 매우 귀한 보물이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보물1434호 안심사 금강계단에는 부처님 치아사리1과와 의습 10벌이 봉안되어 있다. 1759년 조성한 안심사 금강계단은 넓은 기단을 형성한 석조계단 중앙의 석종형 부도(높이 176cm)와 4구의 신장상(높이 110~133cm)이 자리잡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7년(638) 자장율사 창건

조선시대까지 간경도감 설치 사찰

지난해 9월 10년만에 대웅보전 복원 완공


대둔산 군립공원에 속해 절과 일주문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석조계단 면석의 연화문과 격자문양등의 조각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부각되어 매우 우수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고, 신장상의 조각도 갑옷과 신체의 세부표현이 매우 세련되고 풍부한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금강계단 아래에는 임시 가건물이 들어서 참배객들과 기도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웅보전이 복원되기 전까지 주법당으로 사용되던 적광전에는 안심사 동종이 봉안돼 있다. 안심사 동종은 일제강점기 공출을 피해 금산 보석사로 옮겨져 있다. 60년 만인 지난 2004년 안심사로 되돌아왔다.

현재 안심사에는 대웅보전 외에 적광전, 삼성각, 산신각, 육화당의 전각과 요사채 건물이 남아있다. 작은 개울건너 삼성각은 무지개 다리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보이지만 현재는 기와 번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적광전 위쪽에 자리잡은 산신각에서 내려보는 풍광은 산 아래 마을은 물론 앞산과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싼 대둔산을 감상하기 좋은 전망 포인트이기도 하다. 안심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안심사 사적기는 현재 농지의 한가운데 자연석 위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 효종10년(1658년) 당시 안심사 주지 처능화상의 청으로 우의정 김석주가 글을 지었고, 글씨는 이조판서를 지낸 홍계희가 썼고 대둔산 안심사비라는 전서는 영의정 유탁기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4면에 고루 새겼으며, 기록된 내용을 통해 이 절에는 대웅전과 약사전을 비롯한 30여 채의 건물과, 석대암 문수전 등의 12개의 암자가 딸려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 효종 당시 처능화상의 청으로 당대 석학들이 만든 사적기

이 비에는 총탄 자국이 여럿 남아 있어 한국전쟁 당시 이곳이 격전지였음을 말해준다. 절 아래 일주문 옆에는 이름모를 부도 여러기가 자리하고 있어 이 절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하다. 부도의 주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비명의 마모가 심한 이들 부도군은 대부분 온전한 모습이 아닌 상태로 남아 있다.

이렇듯 안심사는 병화의 아픔을 간직하며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고 이제 비로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그 옛날 30채 이르는 전각과 12암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웅보전의 복원만으로도 힘든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안심임명처임에 분명하다.

안심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성찰 없는 근대화… 기득권 위해 굴종

31. 문명개화와 불교 근대화

19세기는 정치사회적 위기의 시대였고 현실적 변혁 요구와 함께 종교적 갈망이 강하게 분출한 시기였다. 조선적 전통의 일부였던 불교도 서학과 동학, 기독교와 신흥종교의 발흥에 맞서야 했고 여러 계층에 걸친 신앙활동과 결사운동이 행해졌다. 그렇지만 불교는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고, 스스로의 가치를 성찰할 겨를도 없이 근대화의 격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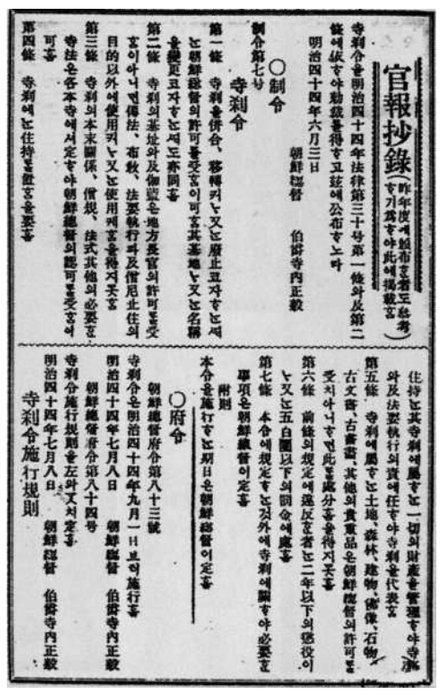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국과 근대화를 추진한 일본은 1867년 메이지유신 단행 후 서양을 답습한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 나갔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개항을 유도한 일본은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동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하였고 1895년 타이완, 1910년에는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일본은 메이지 초기에 천황제와 그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해 신도(神道)의 국교화와 폐불훼석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불교계는 국가불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고, 정치군사적 침투와 동반하여 일본불교의 조선 진출이 가시화되었다. 1878년 개항장인 부산에 정토진종 오타니파 혼간지의 별원이 세워졌고 일련종, 정토종, 진언종, 조동종, 임제종 등 일본불교 각 종파들이 앞 다투어 승려를 파견하고 별원과 포교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는 문명개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근대종교로 살아남기 위한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불교의 혁신은 구태의연한 전통을 폐기하고 근대의 신시대를 꿈꾸는 것이었고, 문명개화는 서구화나 근대화를 통한 종교적 부흥을 의미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제기된 문명개화론에서 기독교는 서양문명의 정수를 담은 근대종교의 총아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교육, 의료 등 근대문명의 상징기제와 함께 이식, 수용되었다. 이에 조선불교계는 기독교의 선진적 문화이식과 전도방식을 모델로 한 일본불교의 적대적 변용의 길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하였다. 근대의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눈을 뜬 이는 승려 이동인이었다. 그는 187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교류하면서 김옥균 등 조선의 젊은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근대문명을 소개해주었다. 그는 또 일본의 근대화 정책을 시찰하러 간 조선정부 사절단과 일본 정치계 인사와의 교섭, 미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895년에는 일본 일련종 승려 사노 젠레이의 주청을 계기로 이전 시대 불교 억압의 상징이었던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승려의 도성출입 허용에 대한 논의는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상황에서 일본불교의 포교와 조선불교의 포섭을 위한 해제 건의가 때마침 수용된 것이었다. 이에 조선불교계는 오랜 숙원이 해소되고 불교중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당시 일본불교의 적극적 포교활동과 시혜적 접근은 불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불교의 각 종파는 조선 진출 후 애국호법과 기독교 방어 문제에서 조선승려들의 공감을 샀다고 하는데, 서양 선교사와 기독교회가 교육, 의료 등을 매개로 조선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시기에 일본불교의 추종과 모방은 문명개화와 종교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첩경으로 인식되었다.



1915년 6월 20일 30본산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 불교진흥회 제1회 정기총회에 모인 불교계 인사들.
사진=〈한국불교 100년〉(민족사)



官報抄錄

寺刹令을 明治四十四年法律第三十号第一條와 及第二條에 依하야 勅裁를 得하야 玆에 公布하노라
明治四十四年六月三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制令
制令第七号
寺刹令
第一條 寺刹을 併合, 移轉하거나 又는 廢止코자하는 때에는 朝鮮總督의 許可를 受하야 其事由를 具하야 本令을 施行코자하는 地에 在하는 道長官을 經由하야 總督에게 申請할 事
第二條 寺刹의 基址와 及 伽藍은 地方長官의 許可를 受하야 아니면 處分, 抵當, 差押, 法要執行과 及 信徒의 住居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거나 又는 使用에 供함을 得치 못할 事
第三條 寺刹의 本末關係, 僧規, 法式其他의 必要한 寺法은 各本寺에서 定하야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할 事
第四條 寺刹에는 住持를 置할 事
第五條 寺刹에屬한 土地, 森林, 建物, 佛像, 石物, 古文書, 古美術, 其他의 貴重品은 朝鮮總督의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處分하거나 又는 擔保에 供하지 못할 事
第六條 前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二年以下의 懲役이나 又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할 事
第七條 本令에 規定한 事項 外에 寺刹에關한 必要한 事項은 朝鮮總督이 定할 事
附則
本令은 施行한 日로부터 朝鮮總督이 定할 事

○府令
朝鮮總督府令第八十三號
寺刹令을 明治四十四年九月一日로부터 施行할 事
明治四十四年七月八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朝鮮總督府令第八十四号
寺刹令施行規則
明治四十四年七月八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조선불교월보〉 1호(1912년 2월 25일자)에 게재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 1911년 6월 3일에 공포되고 동년 9월부터 시행된 사찰령은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일제가 제정한 법이었다.

불교 억압 상징 도성출입 해제 후
일본불교 추종하며 근대화 꿈 꿔
전통 벗어나 대중화 노력했지만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 안 보여

19세기 말부터 불교계와 정부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1899년에는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가 창건되어 전국 수사찰로 칭해졌고, 1902년 4월에는 국가에서 불교를 직접 관리, 통제하는 방향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궁내부 칙령에 의해 원흥사를 대법산으로 삼아 정부기구인 사사관리서가 설치되고 도섭리가 파견되었으며 지방에 16개의 중법산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편제하였다. 또 관리법규인 대한제국 사찰령 36조가 반포되었는데, 이는 사찰재산의 국가 관리와 정식 승려자격을 부여하는 도첩제의 시행을 골자로 하였다. 사찰령에서는 유교적인 효와 충, 왕법의 준수와 같은 8개의 종칙이 규정되었고 정치 참여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는 일본과 같은 국가불교적 색채를 띠는 한편 형식적으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용한 근대적 종교정책을 시행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되면서 1904년에 들어 사사관리서와 사찰령 체제는 혁파되었다. 대신 1905년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일본불교의 한국사찰 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사찰관리세칙이 시행되었다. 이에 일부 사찰은 일본불교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사격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통감부의 허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1906년에는 일본 정토종의 후원으로 이보담과 홍월초가 주도한 불교연구회가 만들어졌고 최초의 근대적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가 세워졌다. 현재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에서는 전국사찰에서 승려 학생을 선발하여 불교와 신학문을 가르쳤다.

1908년에는 전국의 사찰 대표 52명이 모여 불교계를 대표하는 통합종단 원종이 창설되었으며 서울 도심 내에 각황사가 창건되었다. 원종의 초대 종정으로는 해인사 출신으로 명망이 높았던 이회광이 선출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불교개혁과 종단의 발전방향을 조언해 준 이는 일본 조동종의 한국포교사인 다케다 한시였다. 다케다는 철저한 국가주의자로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도 가담하였고 일진회 같은 친일 정치단체의 고문을 맡는 등 식민지배의 포석을 까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처럼 일본불교계의 외호와 후원, 지도는 당시의 불교계를 각성시키고 문명개화와 근대화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불교에 대한 경계심을 없애고 우호심리를 확산시켜 제국주의 침탈의 첨병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의 불교계는 총독부 체제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한편 불교 개혁과 근대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대중적 불교잡지의 간행, 불서의 한글번역과 출판, 다양한 개혁론의 제기는 문명개화를 위한 불교계의 열망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불교 대중화를 위해 각지에 포교당 개설이 추진되었고 보통학교-지방학림-중앙학림으로 이어지는 근대적 불교 교육체계가 성립되었다. 이처럼 불교계는 문명의 신시대에 적응하고 근대종교로 살아남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였고 그 방향은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 현대화였다.

1910년대에 나온 개혁 논의와 혁신의 방안을 살펴보자. 우선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1913)에서 당시 크게 유행하던 문명개화론과 사회진화론에 의거해 불교야말로 철학과 종교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사유체계이므로 근대의 종교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향후 도덕문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불교의 평등주의, 중생제도의 대중주의를 각별히 강조하였다. 다만 조선불교의 오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량만 가지고는 안 되며 자각을 통해 구습을 타파하고 유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대적 교육이 절실하며 해외유학을 통해 사상의 자유를 배워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앞서 한용운이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여 불교 부흥과 사회화를 촉구할 것을 당국에 청원한 것도 이러한 근대화론, 발전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불교, 역사, 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긴 권상로도 '조선불교개혁론'(1912)에서 진화론에 입각한 종교경쟁 시대에 조선불교의 구태와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는 전통적인 불교를 의타적, 순종적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하였고 과거의 구습이자 타파의 대상으로 보았다. 근대기의 저명한 선승인 백용성도 〈귀원정종〉(1910)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의 성행을 의식하면서 불교의 낙후된 현실을 개탄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전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것과는 달리 백용성은 선종의 특색을 드러내고 불교 본연의 진면목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유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1910년대의 불교 개혁 논의는 사회진화론 등을 수용하여 종교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신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민족의식보다는 호교론적 입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이전 시대에 불교가 핍박을 받았던 것에 비해 근대에 들어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신시대의 종교적 활로 모색이 가능해졌다는 현실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1910년대 초는 합방 직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찰령 등 총독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부정을 전면에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신 불교계는 정치권력에 순응하고 타협으로 일관하면서 탈전통과 근대성 추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불교계는 조선의 불교전통 계승보다는 문명개화의 근대적 지향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불교가 가지는 근대성의 원형에 주목하였다. 즉 근대종교로서 불교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대중화, 사회화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반면 민족주의나 정치적 각성은 부재하였고 식민지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 또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특히 30본사 주지 등 교단 주도층은 정치권력에 순종하면서 교단과 사찰 내에서의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였다. 불교계에서 사찰령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정교분리와 교단의 자율권이 추구된 것은 3.1운동을 겪은 후인 1920년대부터였다.

불교는 유교로 대표되는 주류적 질서에 비해 전통에서 큰 지분을 갖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문명개화의 신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탈전통의 호교론적 변신을 보다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적 전통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나 부채의식도 없는 비주류적, 단절적 인식은 자기정체성의 심각한 혼란과 부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구태를 벗어던지고 근대 선진종교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호교론적 열망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내적 성찰과 근대성의 체화 없는 외형적 변모나 모방만으로는 주체적 근대화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물론 이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한국근대사의 몰주체적 지형과 식민지 체제의 태생적,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구문명의 후광을 등에 업은 기독교나 민족정서에 부응한 천도교, 주류 전통인 유교에 비해 불교는 전통과 근대 어느 쪽에서도 정당한 지분을 갖기 어려웠다. 근대종교로서 자립하기 위한 문명개화의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식민지 사찰령과 같은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 불교의 앞길에 가로놓여 있었다. 불교는 종교적 활로를 찾아 민중과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지만 호국보다는 호교에 치중한 전략이 식민지 체제 하의 정치적 종속을 겪으면서 주체적 근대화, 대중화를 위시한 호교의 길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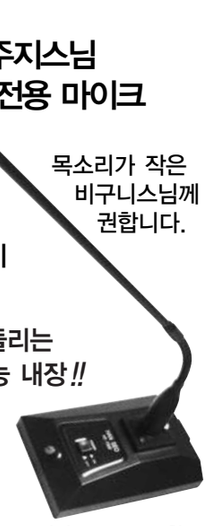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4월 중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니까야서 길을 묻다 10. 불교 명상의 의미 ①

'마음의 힘' 키우는 명상

축구 경기를 떠올려보자. 뛰어난 경기력이 발휘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남보다 빨리 달리기,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공을 몰고 가기,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으로 패스하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슛을 시도할 줄 아는 능력 등일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설정에서는 상대방에 따라 요구되는 상황 또한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제출할 수 있는 답안 또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뜬금없는 '설정'으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불교 공부의 내용으로 제시되어온 계율, 명상, 지혜의 의미를 축구 경기에 대비시켜 불교 공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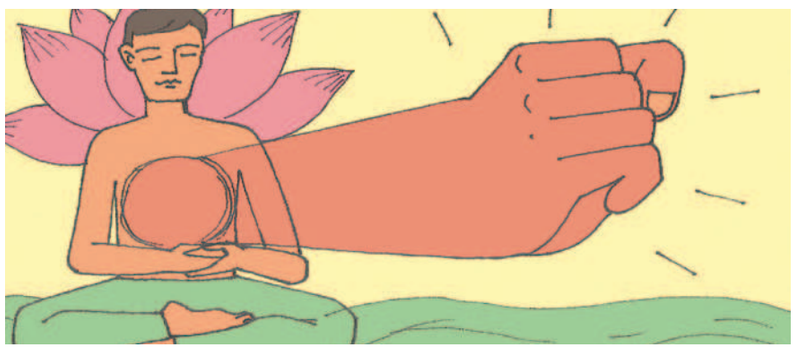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싶었다. 즉, 계율은 경기를 진행하는 규칙이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개인기 능력을 지혜로 대입시켜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흔히 '선, 선정, 조사선, 간화선, 위빠사나' 등으로 표현되는 불교의 명상은 축구 경기로 바꾸어 말하면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다.

일반인들도 경기장에 들어가 선수들처럼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연습이 잘 된 사람이라면 90분을 장애 없이 뛸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장에서 10분의 시간조차 충실하게 보내기조차 버거울 것이다. 그것은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의 명상이 추구하는 하나의 면모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다. 마치 축구선수가 90분의 경기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갖추어 경기에 임하듯이, 참된 삶의 본연을 찾아나서는 학인이라면 먼저 마음의 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진단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누구나 경기장에서 뛸 수는 있다. 그러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체력이 아마도 그의 한계일 것이다. 이 말은 일상에서 누구나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이니 '명상'이니 하는 공부가 왜 필요한가에 하나의 대답이 될 것이다. 즉, 불교 명상의 본연 중 하나는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집중력'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는 말이 된다.

초기불전에 따르면, 불교 명상은 두 가지 방향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다. 하나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힘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유하고 있는 대상의 움직임을 간파해내는 능력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측면을 사마타 수행으로, 마음이 대상의 움직임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펴보아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움직임의 문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위빠사나(觀)로 제시하고 있다. 팔리어 원어로는 사마타/위빠사나의 틀이요, 일상어로 말하면 '마음 집중하기/대상의 움직임 통찰하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즉, 불교 명상의 성격은 크게 '몰입 유형(사마타)'과 '관찰 유형(위빠사나)'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조사선의 경우를 고려하면 이러한 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간극이 분명히 있겠지만, 〈니까야〉를 근간으로 하는 불교명상의 출발점을 헤아려보면 이와 같은 설정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체력의 밑바탕이 없으면 축구선수가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듯, 마음의 힘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까? 불교명상의 하나의 면모인 '마음 집중하기'는 이 점을 먼저 묻고 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명상의 문화를 온전하게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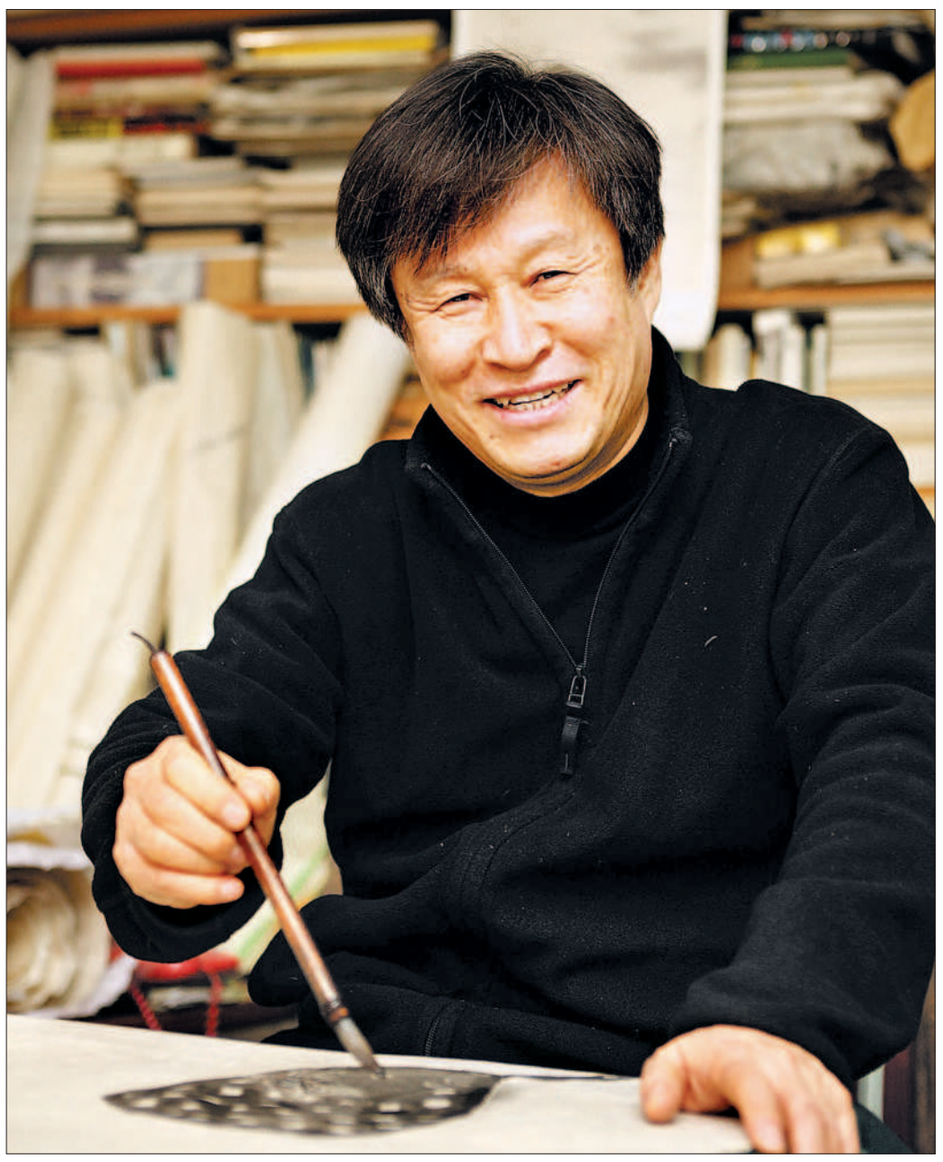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형태 아닌 내면 찾는 구도자

산문 밖의 禪

선화가 김호석 화백



김호석 화백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1999년 올해의 작가-김호석 전'을 비롯해 22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300여 차례의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에 참가했다. 2000년 광주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로 선정되어 미술기자상을 수상했다.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생각해본 적도, 공부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선(禪)의 세계를 궁금해 하고 다가가고 있다면, 그 상황의 근거와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선의 세계가 불교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교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산문 밖의 선'이 아닐까.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1999년 올해의 작가'이며 한국 수묵화의 일면을 일구고 있는 김호석(59) 화백이다. 그는 1994년 성철 스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의 진영(眞影)을 그려오고 있다. 산문의 바깥에서 산문의 안쪽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깊숙한 안쪽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선지식의 진영을 그리면서 다가가게 된 선의 세계다.

인연

1993년 11월 10일. 합천 해인사. 20만의 인파가 성철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에 함께 하고 있었다. 시대를 걱정했던 어른의 열반은 사바의 대중에겐 큰 슬픔이었다. 그 자리에 김호석 화백도 함께 했다. 그는 한 시대가 보내야 하는 한 어른의 입적을 애도하기 위해 동시대의 동거인으로 가야산을 찾았고, 화가로서 그 숙연한 장면들을 스케치북에 담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이미 사바의 문턱을 넘어간 성철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된다.

"성철 스님의 진영을 모셔야겠는데 그릴 수 있겠습니까?"

20여 년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이 김 화백에게 성철 스님의 진영을 부탁해왔다. 김 화백은 지난 겨울 스님의 다비식이 떠올랐다. 성철 스님을 친견한 적이 없는 김 화백이었지만 화가로서의 손은 이미 스님의 모습을 더듬기 시작했다. 성철 스님의 진영을 그리기로 한 김 화백은 그날부터 '성철'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스님

가고 없는 스님의 모습을 그릴 방법은 사진뿐이었다. 김 화백은 사진가 주명덕 선생으로부터 스님의 사진 수백 장을 받았다. 방안 가득 스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스님의 모습을 화가 김호석의 메모리에 저장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모리'에 저장된 스님의 모습은 그림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노장님의 참모습을 보고 싶고, 그 모습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소. 스님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하든 화가의 몫입니다. 다만 화가 자신, 김호석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 최고의 그림이었으면 합니다."

성철 스님의 진영을 부탁한 원택 스님의 주문이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현대불교사의 선명한 발자국 성철 스님. 그런 스님의 '얼굴'을 그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발자국 '성철'을 그려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물화의 궁극인 전신사조(傳神寫照)를 확인하는 말이며, 누구보다 김 화백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성철 스님의 형상만이 아닌, 그의 내면을 품은 그림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벽에 걸린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성철 스님의 삶을 알지 못하는 김 화백으로서는 원택 스님의 주문이 높은 벽으로 다가왔다. 김 화백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뒤로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성철'을 찾아 나선다.

'성철'을 따라가 '성철'을 그리다

김 화백은 스님의 태 자리부터 시작한다. 스님이 앉았던 곳에 앉아보고, 스님이 걸었던 길을 걸었다. 스님이 읽었던 책들을 읽고, 스님의 법문을 찾아 듣고, 스님의 생각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 '성철'을 더듬었다. 그렇게 그는 성철 스님의 수행처를 모두 좇으며 '성철'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화백은 방 안 가득 붙여놓았던 스님의 사진들을 모두 떼어낸다. 그리고 붓을 들어 '성철'을 그리기 시작한다. 더 이상 사진은 필요 없었다. 화가 김호석의 메모리에 석고상처럼 저장되어 있던 '성철'의 형상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김 화백은 스님의 족적을 밟으며 찾아낸 '성철'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의 진영을 그린다는 것은 붓만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설명'으로는 '내면'을 볼 수도, 그려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알아채는, 언어 이전의 언어와 논리 이전의 논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김 화백은 진영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화두 하나에 매달린 선방의 수좌와 같았다. 누군가의 생각 안으로 오롯이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깊이가 얼굴빛으로 형상화되는 스님의 피부 표현은 내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스님의 생가 터를 찾게 되었고, 스님이 태어난 큰 방과 아궁이까지 살피게 되었죠. 그리고 방구들 입구 주변에서 붉게 익은 황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흙이 스님의 피부를 그려내기엔 가장 적당한 물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죠."

김 화백은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고 새로웠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 진영을 인물화서 禪畵 경지로

다. 그는 인체가 지닌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색을 내기 위해 스님의 태 자리에서 가져온 흙으로 물감을 만들고 그 물감으로 스님의 얼굴을 그렸다. 또한 김화백은 작품의 뒷면에 채색을 반복하여 인물의 자연스러운 얼굴색을 드러나게 하는, 잊혔던 전통초상화 기법인 배채(背彩)기법을 재현했다.

"나는 스님의 태 자리 흙으로 만든 물감을 형상이 그려진 종이의 뒷면에 수백 번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해 앞면으로 물감이 배어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부질감은 물론 스님의 내면을 표현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태 자리의 흙으로 인물의 얼굴빛을 표현한다는 생각은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그림에서 거짓말처럼 그 인물의 피부색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초상화 기법의 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고려시대 불화를 그렸던 주요 기법이고, 조선시대 사대부초상화를 통해 초상화 왕국이란 명성을 얻게 한 배채법을 응용하여 새롭게 구현한 것입니다."

마침내 완성된 〈성철 대선사 진영-1994. 종이에 수묵담채. 253cm×183cm〉은 사실적 묘사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내면까지 구현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사롭게는 원택 스님의 주문을 따르는 동시에 우리 전통인물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미술사적인 업적으로도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전통형식의 피상적인 추종을 넘어선 것으로 현대적 표현성을 창의적으로 조화시킨 작가의 예술적 역량과 정신적 탐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김호석

화가 김호석은 다섯 살 때 붓을 들기 시작했다. 서당의 훈장이었던 조부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스스로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진영'으로부터였다. 고향 정읍 집엔 사당이 있었고 소년 김호석은 매일 아침 조부와 함께 사당에 모신 고조부의 진영에 인사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 김호석은 그 진영을 그림으로 바라보게 됐고, 이내 그 그림에 마음을 뺏긴다. 소년 김호석은 진영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고 서원한다. 그리고 그는 화가가 되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김 화백은 재학시절인 197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아파트〉로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1980년대 '수묵운동'에 참여하며 수묵의 그림을 그려왔다. 그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화, 역사적 인물화, 서민 인물화, 가족화, 군중화, 동물화 등을 그렸다. 그중에서도 성철 스님의 진영 제작 후 성철 스님의 다비식 스케치를 완성한 〈그날의 화엄〉은 고려시대 불화나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등과 같은 옛 전통회화의 서술적 표현양식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단순히 스님의 운구행렬과 다비식 과정을 담는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정신성과 삶의 모습을 담은 한 편의 대서사로 평가됐다.

선지식의 세계 들여다보며 선의 세계로

김 화백은 성철 스님의 진영과 40여 점의 수묵화를 통해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 전신(傳神)이 스며있는 존상을 구현해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진영이라는 것이 '인물화'의 영역에서 선화(禪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론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그는 많은 문중과 스님으로부터 진영 의뢰를 받게 된다. 관응 · 법정 · 광덕 · 일타 · 지관 · 만해 · 지효 · 통광 · 청화 · 송담 · 명성 · 초의 스님까지. 그는 성철 스님의 진영을 그린 후 한국불교가 선지식이라 부르는 큰스님들의 진영을 계속해서 그렸다. 그는 선지식들을 만날 때마다 그 선지식의 삶을 오롯이 좇고 그들의 세계를 느끼기 위해 애를 썼다. 그렇게 한 순간 한 순간을 모아 열네 분의 진영을 완성했다. 그는 결국 열네 분 선지식의 삶을 산 것이다. 이렇듯 화가 김호석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산문 밖의 선'인 것이다.

성철 등 14 선지식 진영 그려
친견 한 번 없이 '성철' 그려내
스님 태 자리 흙으로 얼굴 채색
종이 뒷면 칠하는 배채기법 계승

외형 넘어 전신(傳神)의 그림 위해
수행처 답사하고 인물과 함께 생활
"스님 진영 붓만으로 그릴 수 없어
인물의 지난 삶과 오롯이 만나야"

"초상화(진영)는 대상 인물이 돌아가신 뒤 진영각에 모실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화가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그림만이 다른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 내내 표현 대상자에 대한 공부는 물론 그분의 분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가 관응 스님의 진영을 그릴 때, 그는 스님과 한 달 여를 함께 살았다. 그 또한 '관응'을 알아가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전신(傳神)의 진영을 그린다는 것은 얼굴 몇 번 보고 사진 몇 장 찍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이다. 누군가의 내면을 그림에 투영하는 일, 그것도 깨달음의 세계에 닿아 있는 선지식의 내면을 온전히 투영한다는 것은 언어와 논리의 영역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세계인 것이다. 스님의 진영을 그린다는 것이 다른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노장의 진영을 시작하면 그 노장의 삶과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 아닌 욕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꿇어앉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희망과 좌절을 오가며 어쩌다 눈빛과 눈빛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노장의 언어와 스치듯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모여 한 노장을 그려냅니다."

김 화백은 오늘도 언어와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문의 안 쪽 깊숙한 그 곳을 그리고 있다. 산문 밖에서.

〈모든 벽은 문이다〉 3월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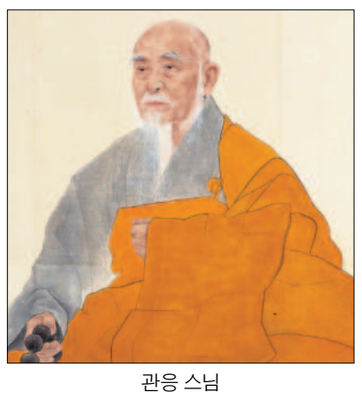
그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린 진영과 그 진영을 그리면서 겪은 이야기를 엮어 지난 3월에 〈모든 벽은 문이다-도서출판 선〉를 출간했다. 책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본지에 연재한 〈화폭속의 선지식〉의 내용에 김 화백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림과 글들을 보탰다. 단순한 화집의 개념이 아닌 책에는 언어와 그림, 그리고 그 언어와 그림 너머에서 나눈 인간과 인간의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시간들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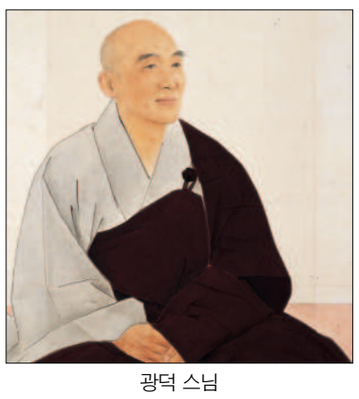
"사람을 그린다는 것, 그것도 일가를 이룬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보람이었고 늘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나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김 화백은 책에서 쓰고 있다. 화가 김호석은 조선시대 전통초상화기법을 오랫동안 연구해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국미술의 소중한 붓 중 하나이다. 그 붓끝에서 많은 선지식의 세계가 오롯이 남겨져 전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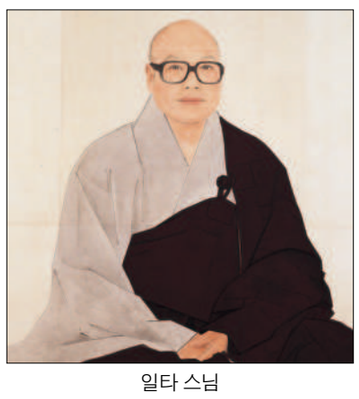
박도일 수필가

김호석 화백의 작품들


성철 스님


관응 스님


광덕 스님


일타 스님

전법일기

참회 속에 새 삶이 이어지니

교도소 교정활동에 발을 디딘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교도소에서 첫 법회를 진행할 때였다. 오전에는 이미 경찰서에서 범죄없는 세상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 상태였다. 강단에 서자 어떤 법문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재소자들에게 어떤 말이 와 닿을지 고민하다가 내가 몸소 체험한 인연법을 털어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의 길을 떠났다. 이후 6년이 지나, 아들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게 된 사연이 있다.

법문을 하면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다. 나는 내 아들을 통해 옛날 내 부모에게 불효한 일을 스스로 반성하고 그런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법회를 마쳤다. 큰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두가 함께 울고 말았다.

한 재소자는 "스님의 법문에서 업은 스스로 지은 만큼 자신이나 그 자식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울부짖었다.

나는 참회와 함께 남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문했다. 이 재소자는 이후 모범수가 되어 형기를 대폭 줄이고 출소했다.

우리 속담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 참회를 통해 발심한 이들은 또다른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것이다.

처음 교정활동을 진행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도 참회의 삶으로 한 여성을 계도한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사건을 일으키게 됐고, 그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상태였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젊은 청춘을 그늘에서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면회를 요청하는 말에 그 남자친구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다.

차마 이런 상황을 전할 수 없었다. 그 여성에게 나는 "성실한 삶을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얻는다면 그 것이 업을 해소하는 길이고, 또 다른 인연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급하게 청주교도소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이 여성재소자의 상담은 계속 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전일작업반으로 자리를 옮겨 성실히 생활을 했고,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출소 후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다.

젊은 교정위원들에게 선배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정교화 대상자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재소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과 함께, 이들이 진심으로 이에 대해 참회해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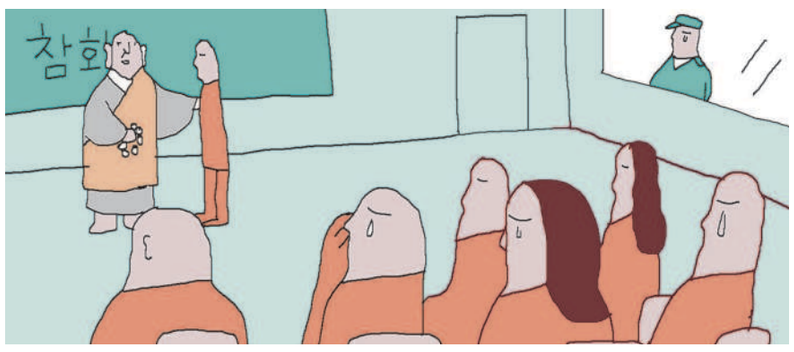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지만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단순한 작업지식을 전하고, 또 법회에서도 부처님 법문과 지식을 전하는데만 치우치고 있다.

지식을 전달하고 교리를 말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해 발심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인도 하루 이틀 정도의 수감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긴 시간을 재소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참회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점수를 정해 특별 가석방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교정교화는 재소자들이 스스로 참회의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소자의 악한 마음이 스스로 소멸될 때 밝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발심이 생긴다. 참회로 이끌고 정서적 불안함을 따듯한 부모의 마음으로 녹이는 교정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 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산불원
부산시 중구 광복로 35번길 36(4층)
051-231-6455
010-9409-0016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지성으로 기도하면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준다"는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신 해동제일의 기도 성지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산신제 봉행에 신심있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팔공산의 영험한 기운이 나투기를 기원하는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산신제 봉행

일자 _ 2016년 4월 9일(토) 9시
문의 _ 053.851.1868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경상북도 와촌면 갓바위로 699 053)851-1868~9

진여, 차별을 떠난 평등한 상태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 자체와 작용으로 인한 훈습이 일어날 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채 일으키는 불완전한 훈습이 있는가 하면 다 완성되어 일으키는 완성된 훈습이 있다.

범부나 이승들 그리고 처음 뜻을 내어 도에 임하는 보살들은 사물을 식별하는 의식기능을 통해 훈습을 하고 또 훈습을 받아 진여의 이치를 믿고 수행을 해가지만 아직 나와 너를 분간하지 않는 분별이 없는 원만한 마음이 체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고 아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진정한 자유가 구현되지 않았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회복한 상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이는 불완전한 훈습이 된다.

반면, 진리를 체득한 법신보살들은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어 각자의 지혜로운 능력이 자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훈습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본문에서는 미상응 훈습(未相應薰習), 상응훈습(相應薰習)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의 두 가지 훈습이 다른 점을 다하고 다하지 않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생의 물든 생각은 무명훈습으로 무시이래로 끊임없이 계속해 온 것이나 부처에 이르면 끊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법훈습 곧 진여훈습은 단절됨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왜냐하면 진여가 항상

사물은 본래 마음에 의해 의식돼
홀연히 일어난 망념, 본질을 왜곡
어리석음·무명은 진여 자체엔 없어

훈습력을 발휘하고 법신이 드러나서 작용하게 되기에 중생제도의 이타원력이 멈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훈습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시 진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더한다. 진여자체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격이나 수행정도에 따른 많고 적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언제 생성되었다는 시점도 없고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종점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한결같고 영원불변하는 것이다. 전제에 생기지도 않고(非前際生) 후제에도 멸하지 않는다(非後際滅)는 것은 과거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 가서 소멸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영원하고 항구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이 진여에 대해 자체에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고 본문에서 설명하는 말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진여는 ① 큰 지혜요, 광명이며 ② 세상의 모든 대상경계를 두루 빠짐없이 비춰주며 ③ 있는 그대로 참되게 아는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④ 자체 성품이 맑고 깨끗한 마음 그대로이며 ⑤ 영원하고 즐겁고 주체적이고 오염된 번뇌가 없으며 ⑥ 인과의 법칙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갠지스 강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불가사의한 진리의 법이 진여 자체를 떠남이 없이 다 갖추어져 조금도 결함이 없는 까닭에 여래장(如來藏)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여래법신(如來法身)이라 한다 하였다.

여래장이란 여래가 갈무리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여래의 씨앗이라는 뜻이며, 또 진리 자체 그대로의 완전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바로 여래의 법 그대로이므로 이를 의인화하여 여래법신 곧 진리의 몸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진여를 설명했지만 진여가 가지고 있는 공덕은 차별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 설명한 말들은 다만 한결같은 진여를 표현한 한 가지 의미 밖에 없는 것이다. 진여의 모습은 이미 대립적인 차별을 떠나 모든 것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입장이나 자타의 분리된 모습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둘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여의 모습을 차별적으로 설명한 것은 업식(業識)의 생멸하는 모습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본래 마음에 의하여 의식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그것들을 보고 망령된 생각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만 어리석게도 홀연히 망령된 일으켜 나에게 대치된 대상세계를 보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무명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리석음, 무명이 진여 자체에는 없는 까닭에 진여의 본체는 큰 지혜요 광명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는 이, 받는 이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⑭ 시주의 근본바탕

施主體品第三 (시주체품제삼)
受者得無量珍寶心大歡喜 施者行少施時心大歡喜 過於受者百千萬倍 能如是施者是為第一行
(수자득무량진보심대환희 시자행소시시심대환희 과어수자백천만배 능여시시자시위제일행)
成就救濟者 飮大悲甘露
(성취구제자 음대비감로)
菩薩行此行 永除 病老
(보살행차행 영제간병로)

번역

시주의 근본바탕에 대한 품 제 3

받는 이는 한량없는 주옥과 보배를 얻어 마음이 크게 즐겁고, 보시하는 이는 적은 보시를 행했을 때라도 마음이 크게 기쁜데, 받는 이보다 백천만 배로 기쁨을 얻습니다. 능히 이와 같은 보시라야 이것이 제일 수승한 행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성취하는 것은 대 자비심의 단이슬을 먹는 것이니만큼, 보살행을 이렇게 행한다면 인색한 가운데 병들어 늙는 것을 영영 없앨 수 있습니다.

해설

〈대장부론〉 세 번째 품은, 시주의 근본바탕에 대해 설법한 내용이다. 곧 보시에 있어서 보시를 하는 시주자의 근본바탕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보시를 받는 이는 한량없는 보배를 보시 받음으로써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받는 이가 얻게 되는 한량없는 보배란 무엇일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아마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시를 행하며 살아야겠다는 보배로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시에 있어서 보시를 받는 이는 단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도 베푸는 이 만큼 따뜻한 마음 씀을 발원하여 그렇게 살기를 바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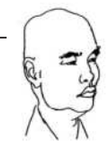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시주의 근본에 대해 설해
베품이 주는 보배로운 마음
생로병사 괴로움 벗어나게 해

또한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은 한량없는 기쁨이자 위로가 될 것이다. 그 기쁨이 바로 자비(慈悲)의 감동이다. '자비(慈悲)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불보살님의 마음이니, 주는 이와 받는 이가 함께 극락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리라.

다음으로 보시하는 이의 공덕을 말하였다. 보시하는 이는 비록 적은 보시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보시를 통한 기쁨은 받는 이보다 백천만 배나 크다고 하였다. 아낌없이 내 것을 덜어내어 주는 일이 받는 것보다 백천만 배나 기쁜 일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보시의 이치인가.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보시하여 설령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보시의 과보는 결코 적지 않으리라.

거기다 보시를 행한 공덕의 과보로 인색한 가운데 병들어 늙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생로병사의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보시를 행하는 이는 인색한 가운데 병들고 늙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늙어가되 병들지 않는 복은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이다. 병들고 늙되 남에게 인색한 인간이라는 욕을 먹으며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공덕이 바로 보시라고 길을 안내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영험 있는 도량

중국에 머물 때 대사관의 영사 한 사람이 찾아와 내게 물었다.

"관음도량에 가서 기도하면 관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고, 문수도량에 가서 기도하면 문수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는데 스님께서는 이것을 긍정하십니까?"

"관음도량에 관음 없고 문수도량에 문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긍정치 않으십니까?"

"관음도량에만 관음 나타나면 관음이 아니요, 문수도량에만 문수 나타나면 문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이 특정된 도량에만 나타나지 않으시면 세상 그 어디에서라도 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마음이 청정하면 문수요, 헐떡임이 없으면 관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은 이 몸뚱이 법당이며, 청정한 마음을 부처로 모시면 저절로 관음과 문수는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계의 신문 광고란에 석가모니 시대는 지났고 미륵불의 세상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조잡한 광고문을 볼 수 있다. 또는 어느 사찰을 알리는 홍보성 기사와 광고에도 영험 있는 관음도량과 나한도량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며, 상업성 냄새 구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요 ,바른 불교와 바른 신양을 멀리하는 박수무당의 주술적 속임행위이다.

사찰에 찾아오는 신도 숫자를 늘리고 사찰경제를 앞세우면, 사찰의 수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기본이 흔들리고 상식이 비켜가는 행위는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일이다.

신앙의 대상인 문화유산을 상품화하여 신앙의 매개체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부끄러운 얄팍한 상술이다. 영험설화를 앞세우며 미끼 던지듯 몰아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사주, 관상 등의 친절함을 보이며 운명론 쪽으로 기우는 신앙도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당연히 배척되고 사라져야할 어둠의 그림자이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원을 뜻하는 메시아가 아닌,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커다란 스승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신본주의(神本主義)가 아닌 인본주의(人本主義) 종교이다. 신(神)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화엄경〉에서도 밝히고 있듯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법하실 때, 쥔 주먹도 펴서 열린 진리를 보여 주신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설법하라고 일깨워주신다. 설법의 다섯 가지 원칙을 여러 번 인용해 강조해 온 터라 생략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증험될 수 있는 내용만을 즐겨 옮겨야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법이다.

불교, 깨달음 중시한 人本主義 종교
가장 영험한 도량은 몸뚱이 법당이다

참으로 영험 있는 도량은 이 몸뚱이 법당이다. 영험 있는 부처님은 내 마음의 부처님이다. 끝마무리로 또 하나의 대화를 옮겨 놓는다.

서울에서 온 신도 부부와 나눈 대화다.

"사자암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으로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더군요. 스님께서는 사자암에 오랜 세월 머무시면서 뭐 영험 있는 일은 없으셨는지요?"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반기며 영험 있는 일을 재촉한다.

"봄에는 어김없이 진달래꽃 피고, 여름에는 숲에서 매미가 노래하며, 가을에는 낙엽이 많아 마당 쓸기 바쁘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고구마 구워먹는 일이 많습니다."

나의 친절한 설명에도 부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기적은 없느냐고 채근질한다.

"기적도 많죠."

"그럼, 스님이 몸소 겪으신 기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졸리우면 자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게으름 없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장학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漢文 /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으로 십여 년간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 드리오며 마지막 수정편으로 염불과 경전공부 한글 염불수행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호남 佛母 계보 이어간 대표적 조각승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⑥ 일기(一機) 스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고흥 능가사에서 거주한 색난(色難) 스님과 같이 많은 불상을 조성한 일기 스님은 불상 제작의 우두머리인 수화승(首畵僧)으로 만든 불상이 많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 가운데 아미타불을 주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아 색난 스님이 믿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조각승이다. 현재 일기 스님이 불상을 만들거나 중수한 작품은 전국에 걸쳐 10여 건에 이른다.

아직까지 일기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고, 조각승(彫刻僧)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 발원문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 지역, 조각승의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일기 스님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98년에 색난 스님과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보살좌상(제주 관음사 봉안)을 개금하고, 1699년에 개인 소장 목조여래좌상과 1700년에 해남 성도암에 석가삼존상과 나한상(가섭존자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나한상 1구는 영암 축성암 소장)을 제작하였다.

또한 스님은 색난 스님과 1701년에 해남 대흥사 응진전 불상과 1703년에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칠존불상을 제작하였다. 화엄사 각황전은 원래 670년에 의상대사가 건립한 삼층

색난 스님 후배나 제자로 추정돼
생몰 미상… 문헌 통해 활동 가늠
부안 변산반도 능가산에 거주하며
주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조성 · 중수 불상 전국 10여 점 산재

장륙전으로, 내부에 장륙존상(丈六尊像)을 봉안하였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99년~1702년에 성능대사가 중건하였다. 전각의 내부 중앙의 수미단 위에 석가불 · 아미타불 · 다보불(多寶佛)이 있고, 그 좌우에 보현보살 · 문수보살 · 관음보살 · 지적보살(知積菩薩)을 배치하였다. 불상과 보살상들은 3m가 넘는 거대한 불상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일기 스님은 이 가운데 아미타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각황전을 세운 계파 성능(桂坡性能) 스님은 경상북도 학가산(鶴駕山)의 승려였지만 화엄사(華嚴寺)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4-1659)의 계보를 이은 스님이다. 벽암 각성은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의 직계 제자로 색난과 그 계보 조각승이 부휴 문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기 스님은 1703년에 색난 스님과 전남 영암 도갑사 견성암 목조보살좌상(서울 경국사 봉안)과 1705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보현과 문수동자상 등을 제작하고, 1707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을 만들었다. 또한 일기 스님은 색난 스님과 1709년에 전남 고흥 금탑사 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과 목조삼존불좌상(광주 덕림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1980년에 화재로 소실)을 웅원 스님과 혼평 스님 등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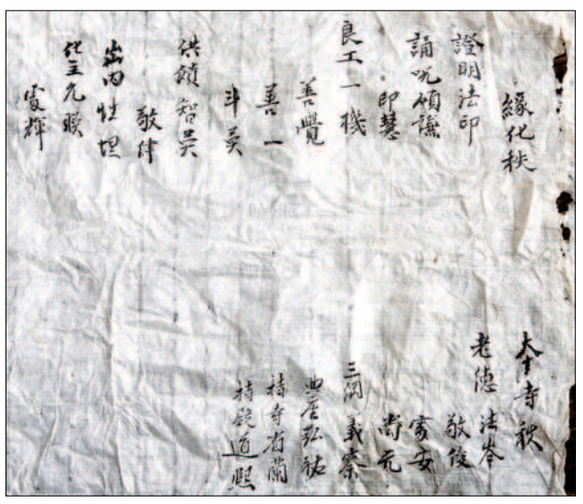
그리고 1719년에 수화승으로 경기 안성 칠장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을 선각 스님과 선일 스님 등과 조성하고, 1720년에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개채(改彩)하였다.



구례 화엄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03년 일기 스님이 주도적으로 만든 불상으로 그 실력이 매우 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사진=최선일



안성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1719년 일기 스님이 제자들과 만든 불상이다. 사진=최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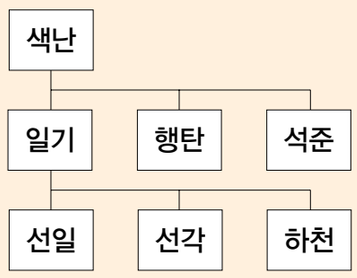
안성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내 작가들.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일기 스님이 어느 사찰에 주석했는지는 1703년에 만든 화엄사 각황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능가사사문(楞伽山沙門)'으로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 능가산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거주한 부안 지역은 양질의 나무가 많이 자라던 지역으로, 고려 후기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할 때 전남 장흥 천관산과 같이 선박을 만들었던 지역이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일기 스님은 1660년을 전후하여 태어난 1698년부터 1708년까지 색난과 불상을 제작하였다. 1703년에 그가 색난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을 제작할 때, 아미타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이전부터 수화승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의 마지막 활동은 1720년에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개채하여 이후에 열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18세기 초에 부안 변산반도 능가산에 거주하면서 전남 해남, 고흥, 구례, 순천, 경기 안성 등 서해와 남해에 위치한 사찰에 불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표 1. 일기 스님의 조각승 계보



일기 스님은 색난 스님의 계보에 속하고,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색난(色難, 色蘭)→ 일기(一機, -1698-1720-) → 선각(善覺, -1703-1720-), 선일(善一, 善日, -1718-1720-), 하천(夏天, -1703-1730-)으로 이어진다.

일기 스님이 1719년에 수화승으로 만든 안성 칠장사 원통전(圓通殿) 불상은 관음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자(童子)가 서 있다. 이와 같은 존상의 배치는 다른 사찰의 원통전이나 관음전(觀音殿) 등에서 볼 수 없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가 120㎝로, 조선후기 제작된 중대형 보살상이다. 관음보살의 신체와 상투는 은행나무, 양손은 버드나무, 밑판은 소나무로 제작되었다. 또한 대좌의 연판은 버드나무, 연화좌와 팔각대좌는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높고 커다란 보관(寶冠) 가운데 봉황(鳳凰)을 중심으로 좌우에 운문(雲文)과 화문(花文) 등이 빽빽이 장식되었다. 관음보살은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 정도이다. 이러한 신체비례는 17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보살상인 1605년에 제작된 전북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과 비교해보면 인체의 비례가 깨지면서 얼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각이진 사각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일자(一字)로 가늘게 뜨고, 코는 얼굴에 비하여 작고 가늘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 보살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목구비(耳目口鼻) 처리에서 색난이 만든 작품과 다르게 눈을 일자로 처리되고, 눈과 입에 비하여 코가 작고 길게 표현된 점이다. 또한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보살상보다 어깨와 무릎 폭이 넓은 편이다. 양손은 손목에 끼우게 따로 만들었고, 오른손은 가느다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과 겹쳐져 있다. 특히, 하반신의 대의처리는 네 겹으로 접힌 주름이 안쪽에서 넓게 접히고, 나머지 주름이 물결이 출렁이듯 펼쳐져 있다.

결가부좌한 무릎 아래에 갑대(甲帶)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조각승 색난이 제작한 보살상에서 아직 발견된 예가 없고 1660년대 활동한 혜희가 제작한 충북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에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 표현은 조선 후기 불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판이 위를 향한 앙련형(仰蓮形)으로 처리되었다. 보살상 뒷면의 처리는 목 주위에 대의(大衣)를 두르고 천의 자락이 펼쳐져 있는 듯이 표현되었다.

그밖에도 일기 스님은 18세기 전반에 사천왕상 개채 등을 주도하여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전북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일기 스님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경남 밀양 표충사 대광전 목조삼세불좌상이다. 이 불상은 당당한 신체 표현이나 일자(一字)로 처리된 눈, 가늘고 길 코의 표현 등에서 18세기 전반에 색난 스님보다 일기 스님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쫀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연등(등표)사다리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40cm,50cm,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판타지의 보고 서유기 TV 드라마로 만난다

BTN, 매주 금 · 토 밤 9시
불교라디오 '울림' 앱 출시도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는 동양 판타지 콘텐츠의 보고다.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서유기〉는 현대에 와서도 다양한 변주를 쏟아내며 많은 사람을 받고 있다.

병신년 원숭이 해를 맞아 〈서유기〉가 TV 드라마로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간다. BTN불교TV(대표 구본일)는 장편 52부작 드라마 '서유기'를 4월 1일 시작으로 방송에 들어갔다.

〈서유기〉는 불경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가는 삼장법사를 수행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온갖 요괴를 퇴치하고 깨달음을 얻어 투전승불(싸워서 이긴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불자들에게는 더욱 더 친숙하다.

'서유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배역중의 하나는 손오공으로 원숭이다. 불교 경전과 설화에 나타난 원숭이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용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원숭이가 부처님 전생이며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신장의 상징적인 동물로 친숙하면서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 애틋한 모성애와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불교와 원숭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방송되는 '서유기'는 52부작의 장편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 전개와 설화 속 인물들이 재간을 부리는 장면에는 수준급의 그래픽으로 시청자들의 보는 재미를 더하고 상상력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편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된다.

'서유기'는 매주 금 ·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며, 재방송은 일요일 오후 2시 50분(2회 연속방송)이다.

이와 함께 BTN은 불교라디오 전용 앱 '울림'을 출시했다. '울림'은 불교관련 콘텐츠만으로 이루어져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으로 현재 법문, 불교음악, 독경, 명상 등 4개 채널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울림'은 기존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주 듣는 주요 채널 설정' 'APP 자동실행 및 종료기능' 'SNS 공유하기' 기능들이 있어 청취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이밖에 BTN불교라디오 개국 1주년을 기념해 광덕, 무진장, 서암, 정락, 대행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큰스님들의 음성법문을 서비스한다.

신성민 기자

'버림의 미학' 둥근 원에 담아내다

윤양호 교수 '아는 것을 버리다' 개인전

사람들은 채움으로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채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많지 않다. 인생살이가 그렇고,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앎과 깨달음은 버릴 때 이뤄진다. 故 법정 스님도 자신의 수필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버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윤양호 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는 '버림'이 가지는 정신성과 철학을 미술작품을 통해 녹여낸다. 다채로운 색감과 다양한 형태의 원을 바탕으로 한 그의 작품은 말 그대로 선적인 느낌이 물씬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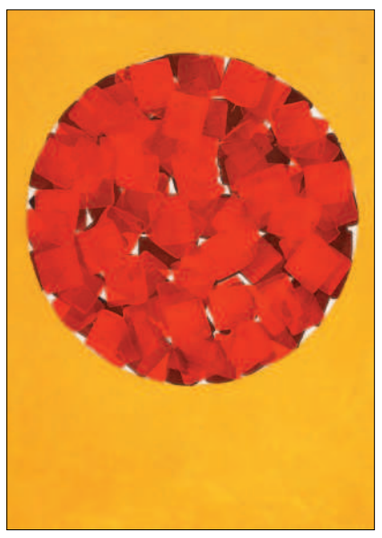
선적 풍취가 담긴 윤 교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고도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Von Geist-아는 것을 버리다'로, 윤 교수가 끊임없이 천착하고 있는 화두이자 연작 시리즈이다. 이번 전시에는 미발표 작품을 포함한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윤 교수 작품의 콘셉트는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맞닿아 있다. 단순함과 반복성으로 절제된 그의 작품은 '버림'이라는 화두와 만나면서 동양적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작품에 대해 윤 교수는 "작품을 통해 반복성과 변화, 정신성을 투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작품을 위해 행해지는 무수한 반복 작업 안에서도 정형화 될 수 없는 변화가 담겨 있다.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은 곧 선 사상과도 맞닿는다"고 설명했다.

박래경 미술평론가도 "한 생각을 극단적으로 절제된 형식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윤 교수 작품의 기하학적 기본형"이라며 "선불교에서 깊은 깨달음의 상징이 되는 원의 의미를 윤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예술로 심화시켜 나아갔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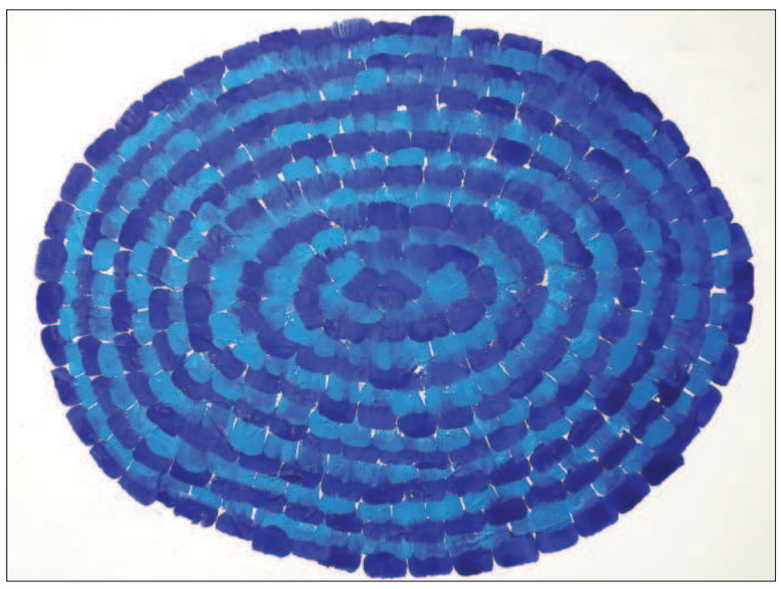
윤 교수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원은 천차만별이다. 이는 작품을 그려내기 전 꼭 행하는 명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윤 교수는 "작품을 그려내기 전, 반드시 명상을 한다"면서 "30분 정도 명상 후에 떠오르는 찰나의 이미지와 영감을 담아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양호 교수의 연작 '아는 것을 버리다(162×130cm mixed media on canvas, 2015).' 원과 다양한 색채를 통해 그는 변화와 반복에 담긴 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4월 8~19일 갤러리 고도서
禪美담긴 작품 25점 선보여
반복 · 변화 통한 정신성 추구

30분 명상 후 그려낸 작품들
번득이는 영감의 진수 '눈길'



윤양호 교수의 연작 '아는 것을 버리다(117x91cm, mixed media, 2016).' 이브 클라인이 깨달음의 색으로 '청색'을 선호했듯이 윤 교수도 청색을 많이 사용한다.

이어 "2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지만, 원형을 제외하고 나면 같은 크기와 이미지의 작품은 없다"면서 "명상 후에 얻어지는 '지금 여기'의 감정과 정신이 중요하다. 번득이는 영감을 담고 다시 버리고, 다시 얻고 버림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독일에서 32회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윤 교수는 올해에도 6번의 전시회와 아트페어에 참가한다.

당장 5월 20일부터 국제 아트페어 'ART 부산'에 참가하며, 6월에는 독일에서 전시회가 예정돼 있다.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국제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참가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02)720-222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으로 써 내려간 경전 '禪流'

사진집단 일우 '선류' 전시회
4월 11일까지 인사아트센터

김홍희 작가, 수불 스님 행적
사진으로 담아… 52점 전시

참선을 수행을 통해 대중들을 포교하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면면을 담아낸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수불 스님이 직접 쓴 선시(禪詩)도 함께 전시된다.

사진집단 일우는 4월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선류(禪流)' 사진 전시회 및 사진집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 및 사진집은 김홍희 사진작가가 수불 선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수불 스님의 친필로 된 '선시'가 조화된 '시 · 서 사진(詩 · 書 寫眞)'이 주된 구성이다. 전시 주제인 '선류(禪流)'는 절대적인 진리인 '선(禪)'을 현상화 · 문화하는 것으로 즉, 진리의 형상 구현을 뜻한다.

전시는 수불 스님의 면면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경내 △포트페이트(초상) △불교행사 △예술 △포교활동 △신자와 함께 등 6개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김홍희 사진작가가 담아낸 수불 스님.

이번 전시를 위해 김 작가는 스님을 따라 중국, 일본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다녔다. 김 작가는 평소 참된 선지식을 찾으러 다녔고, 촬영을 위해 올라간 범어사에서 만난 수불 스님에게 감화됐다. 이후 김 작가는 수불 스님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스님은 흔쾌히 승낙했다.

수불 스님의 선시와 김 작가의 사진은 사유의 체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체계화시킨 결과물이 아닌, 선을 통한 영감(靈感)으로 주어지는 즉발적인 결과물이다.

주최 측은 "스님과 작가의 선시와 사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나 분명히 존재하는 선(禪)"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섬세한 사진과 선시는 〈선류〉라는 이름의 흑백 4도, 494쪽의 대형사진집으로 묶였다. 사진과 더불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까지 4개 국어로 번역된 수불 스님의 선시가 수록됐다. 전시에는 이중 엄선된 52점의 작품과 아카이브가 공개된다.

주최 측은 "선지식의 면면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진리가 세상에 현현하는 찰나를 경험하고 이 같은 기록을 후대에 남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2)736-1020 신성민 기자

서예와 설치미술의 만남 신선하네

카이로스 허회태미술관 1주년 '허회태'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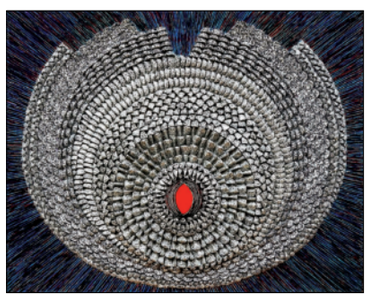
오는 4월 30일까지 개최

문자와 이미지의 만남인 이모그래피와 서예와 설치미술을 조합한 작품으로 주목 받는 허회태 작가의 개인전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카이로스허회태미술관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서예가이자 조형미술가인 허 작가의 50년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허 작가의 대표 시리즈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이다. 그의 사상과 철학을 특유의 글씨체로 작은 한지에 써 내려가 개체를 만들고 이를 모아 평면에서 공간으로 조형해낸다.

외형적 형식도 '만다라'와 유사하다. 또한 수많은 형상들이 맺혀 있는 '만화경'과도 닮았다. 외면과 내면을 이어내는 통로로서의 '만다라'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의 '만화경'은 둘이며 하나이다.

주최 측은 "허 작가의 작품세계에는 정신과 혼을 점령하기 위한 표현이며 자신만이 갖는 새로운 조형질서와 현대미학을 도입하여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신개념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허회태 작가의 '非想非非想(Neither thought nor non-thought,80x10cm)'

한편, 허회태 작가는 1995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원곡서예상, 서예문화상, 서예대전 전각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8회, 한 · 카문화재단 주최 국제미술전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02)588-3324 신성민 기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3.23~2015.3.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5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6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툴텐최된	불광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8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9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불광출판사
10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하려면 인색하지 말아라”

읽기만해도 신심나는 법구경이야기

원빈스님 지음 | 이층버스 펴냄 | 1만 5천원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입문서는 바로 〈법구경〉이다. 서울대 인문도서 100선에도 꼽히는 이 〈법구경〉은 초기불교의 중요한 게송들이 선별돼 있다. 이 〈법구경〉의 모든 게송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한 부처님 가르침인지를 알 수 있는 인연담인 법구경 이야기(주석서)가 있다. 〈법구경〉 이야기를 공부하면 부처님과 제자들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신심이 나고, 법구경 게송의 본래의 뜻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다. 하지만 〈법구경〉에 비해 법구경 이야기는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불교를 새로운 시각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신선한 강의로 호응을 얻는 청춘 멘토 원빈 스님이 법구경 이야기를 선별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친근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다. 제목처럼 읽기만 해도 신심 나는, 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책이 감동까지 선사한다. 기존 불교를 믿던 불자들에게도 유익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다가가고 싶던 사람들에게 권할만한 책이다. 책에서 불교에 입문하는 첫걸음은 올바

법구경이야기 선별해 스토리텔링화

‘의심이’와 ‘신심이’로 주인공 설정

른 신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원빈 스님은 강조한다.

스토리텔링인 ‘의심이와 신심이 이야기’의 주인공 ‘의심이’는 ‘신심이’라는 도반과 청정신심을 일깨워줄 ‘신심상자’, 그리고 ‘신심+’의 도움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구경 이야기〉를 경험한다. 현대인의 대표 ‘의심이’는 점점 의심의 장애를 걷어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신심을 되찾게 되고, 독자도 그 경험을 함께 하며 신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소설 같은 입문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색함에 대한 경계를 주문한다. 스님은 “인색함은 정신을 마비시켜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만들며, 가장 중요한 일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집의 덩어리만 점점 살찌운다. 인색함에 눈이 먼 사람은 결코 행복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단 하나의 행복도 인색함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라고 조언한다.

이어 스님은 몸에 종기가 나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듯, 마음에 종기가 난 사람 역시 그에 못지않은 번뇌의 고통에 휩싸인다. 마음에 분노의 종기가 가득한 사람은 누군가 성질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화가 터져버린다. 상황, 조건, 이유와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마음의 종기를 걷어내는 연습을 자주 하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깊이 듣기

틱낫한 지음 | 시공사 펴냄 | 1만 2천원



2014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되찾은 틱낫한 스님이 뗀 첫마디는 바로 ‘행복’이었다. 생사의 기로에서조차 잊지 않은 단어다. 이번 에세이의 주제도 바로 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를 꿈꾸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 분, 매초 고통과 마주한 현대인에게 틱낫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금방이라도 부서져버릴 것처럼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지구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 쉬면 된다’ 고. 늘 곁에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온 존재 지구. 스님은 지구별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이 지구별의 품으로 돌아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 설명한다. 행복을 주제로 다양한 서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근본적이고도 사실적인 관점의 에세이는 현지 출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독자의 이목을 끌었다. 문명의 발달에 쫓겨 잊고 있던 진정한 의미의 휴식, 그것을 통해 얻는 행복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이 책을 지식인들은 ‘위대한 지혜’라는 단어로 칭송했다.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차 한 잔 마시면서도 다음 업무를 생각한다면, 그저 하

“우리가 평소 스쳐지나온 존재

인지하는 순간 번뇌서 해방돼”

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생사의 기로에서조차 틱낫한 스님이 전하고자 했던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책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방법의 중심에는 ‘지구별’이 있다. 많은 사람이 “지구별은 단지 나를 둘러싸는 환경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는 지구별을 자신과 동떨어진 존재, 즉 객체로 보지만 사실 지구별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안에 지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 덩이의 빵이 토양, 햇볕, 빗물, 농부의 노력 등을 통해 형성된 존재이듯 우리 역시 지구별의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따라서 행복과 평화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지구별을 보호하고 또 지구별과 소통해야 한다.

지구별의 품으로 돌아가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잠시 멈추어 깨어 있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을 음미하고 거리를 걸을 때면 걷는 걸음과 호흡에 집중한다. 꽃을 볼 때는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세수를 할 때는 물의 시원한 감촉을 충분히 느낀다. 우리가 평소 스쳐 지나오던 것들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지금 이곳에 온전히 존재하게 되며 비로소 수많은 고민에서 놓여난다.

김주일 기자

불교내의 ‘특별법문’… 정토법문과 염불수행

정토삼부경 역해

번역 및 해설 서주 태원 | 운주사 펴냄 | 3만원



불교서 말하는 팔만사천법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참된 성품을 깨달아 성불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길은 부파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수행법으로 개발돼 남방불교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이 주를 이루고, 북방불교에서는 유식종의 유식관, 선종의 참선, 밀교의 주력, 정토교의 염불과 이 외에 참회, 사경 등의 많은 수행법이 실천된다.

이 가운데 정토법문과 이를 실천하는 염불수행은 인광대사 말에 따르자면 불교 내의 ‘특별법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다른 법문들은 대개 자신의 수행력으로 불성을 밝혀 깨달음을 얻는 자력의 측면이 다분한 반면, 정토법문은 아미타불이 세운 본원력에 의하여 타방정토인 극락에 왕생하여 깨달음을 얻는 타력 내지 불력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토법문은 자신의 힘만으로 계정혜를 닦아 생사를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한 중생이 아미타불의 본원력과 가피력에 의지해 서방정토에 왕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특별한 법문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정토법문을 믿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염불수행을 해왔다. 왜냐하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다른 수행에 비해 아주 간단하고 쉬워 출가나 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평생 정토를 신앙하며 학문적으로 정토교학을 깊이 연구하여 다수의 정토 관계 저술을 해온, 한국 정토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이라 할 수 있는 태원 스님이 정토삼부경을 번역하고 해설한 것이다. 경전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 기존의 여러 원전 판본을 꼼꼼히 대조하고 교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아울러 각 문단마다 경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간략하면서도 명쾌한 해설을 덧붙였다. 해설을 함에 있어서 원문의 자구적인 뜻과 교학적이고 학문적인 의미 전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정토법문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왕생을 발원하여 실제로 염불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면을 더욱 부각하여 해설하였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설하는 가르침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정토법문의 기본 교학적인 해설에 덧붙여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새의 두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는 데 기존의 정토삼부경 번역본과는 다른 특징과 의의가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정토법문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는 수행하기 쉽다는 점이다. 염불은 수행의 능력이 높고 낮음, 죄가 있고 없음, 남자와 여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학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르지 ‘아미타불’의 명호만 부르면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해 무생법인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평등하게 구원된다는 점이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남녀노소, 학식이 많고 적음, 죄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오직 염불하는 수행자는 다 구제한다. 아미타불께서는 상근기보다 하근기를 위해, 선인보다 악인을 불쌍히 여겨 본원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셋째는 생사를 단번에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의 영생, 도교

기존 여러 원전 판본 꼼꼼히 대조

깊은 이해 위해 명쾌한 해설 덧붙여

의 불로장수, 불교의 무량수(無量壽) 등을 지향하는 것들이 그렇다. 그런데 염불하는 사람은 생사가 끊어진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단번에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수행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퇴전할 뿐만 아니라 마장의 방해를 받아 언제 성불할지 기약이 없지만, 염불하여 정토에 태어나면 불퇴전의 지위에 올라 뒤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불이 언제나 눈앞에 있다. 다섯째는 수행하기 좋은 도량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향락에 쉽게 현혹되어 미혹에 빠지게 되고, 주위환경이 주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무상은 신속하여 몸은 늙고 병들어 간다. 하지만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건설된 수행공간으로 이러한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장엄된 모든 것들은 법음을 울려 수행을 독려하여 무생법인을 얻게 한다.

한국불교에서 수행 하면 보통 화두참선을 제일로 친다. 하지만 화두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자력으로 할 수 없으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의 근기가 낮은 대중들에게 수행의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김주일 기자

개복숭아,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5천이상 가능!!
●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2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고혈압, 당뇨, 항암, 기관지, 폐에 좋다고 소문난
건조된 구지뽕 열매 1kg 시중에
10만원 → 5만원 판매
구입문의 010-5114-7588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화 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마음챙김명상, 교사 스트레스 감소 '탁월'

美 버지니아·위스콘신 대학 관련 연구결과 발표 '주목'

수업과정서 교사들 압박 심해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 끼치기도
마음챙김명상, 대안으로 떠올라
감정 통제 어려울 때 '마음챙김'
경청·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



미국 대학교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편으로 '마음챙김명상'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mindfullifetoday

오전 7시 40분,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수업종이 울리고 선생님들이 바삐 움직인다. 과학 담당 맥클러스키(McCluskey) 선생님은 과중한 문서 업무를 끝내지 못한 채 서둘러 수업준비를 하고, 1교시 수업 교실로 들어간다.

치솟는 교육열 속 요즘 학생들만큼이나 선생님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맥클러스키는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 "가족관계, 건강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대부분은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할 시간이 주어진다"면서 "그러나 한 명의 교사로서 나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 하루 종일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맨 앞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생님들은 10대 아이들의 각기 다른 개성을 고려하고 그들을 항상 주시해야하며, 학생들의 수많은 요청을 모두 기억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하루 교과 과정을 모두 교육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 가운데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편으로 '마음챙김명상'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과학전문 소식지 'Student Science'는 3월 29일 "마음챙김명상은 선생님들이 교실과 사적인 공간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미국 버지니아대학 교육연구가 패트리카 제닝스(Patricia Jennings)의 연구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제닝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교육에서 비롯되는 자기인식 및 회복(the Cultivating Awareness and Resilience in Education, 이하 CARE)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는 펜실베니아 주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치 및 마음챙김명상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제닝스는 "교사들에게 교실은 매우 스트레스적인 환경일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정적인 상태, 교우 간의 관계 등 수업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특히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산만과 부주의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 극도로 심해진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닝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위협'의 일종으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객관성을 잃는다면 학생들의 행동을 '파괴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 때 바로 마음챙김명상이 필요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제닝스는 최근 '마음챙김명상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CARE 프로그램'을 개발, 펜실베니아 주 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CARE 프로그램'은 교사들을 A와 B집단으로 나누고 A집단에는 수개월간 마음챙김명상을 실시, B집단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A집단은 마음챙김명상과 함께 호흡 집중 명상훈련에 임하는 한편, 교단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다.

결과는 제닝스의 예상을 적중했다. A집단 교사들의 뇌수치를 검사한 결과, 수업과정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스트레스 수치가 적게 기록됐다. 또한 교사들의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업참여도를 높이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래했다.

이와 관련 'Student Science'는 "마음챙김 듣기 연습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얘길 들을 때 주관적인 판단이나 충고, 혹은 말 끊는 것 없이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서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과, 어떻게 그것이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마음챙김 연구원인 리사 플룩(Lisa Flook)이 실시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

플룩은 18명 교사를 대상으로 '코르티솔 호르몬(cortisol;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 수치를 측정, 이를 통한 마음챙김명상의 효과를 발견했다. 18명 중 10명으로 구성된 A집단은 8주간 총 26시간에 걸쳐 마음챙김 훈련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훈련에 임하지 않았다.

'Student Science'는 "두 그룹은 연구 시작 당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연구 종료 시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면서 "A집단은 우울 및 불안을 훨씬 덜 느꼈고, 삶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A집단 교사들의 수업관리 능력이 더욱 높게 평가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크게 달라진 점도 눈에 띄었다. 플룩은 "조사결과 A집단 교사들은 스트레스 반응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면서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개선적인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 연기실력 향상에 도움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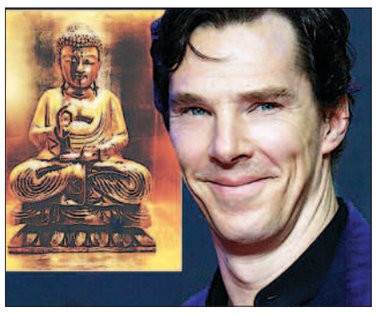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불교 명상에 '매료'

영국 드라마 '셜록(Sherlock)'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39)가 "불교는 내 연기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영국 언론 '더 미러'는 3월 28일(현지시간) "액션 판타지 닥터 스트레인지(Doctor Strange)의 주연을 맡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불교에 매료됐다"고 보도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배우로서 당신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명상을 하라"며 "불교 명상을 통해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고, 평온함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버배치와 불교의 인연은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 서벵갈주(州)에 위치한 사원에서 티베트 스님에게 영어를 가르던 컴버배치는 "나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명상에 무척 매료됐다"며 "명상을 통한 감각의 자각은 내가 연기를 할 때 감정 몰입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 '더 미러'는 3월 28일(현지시간) "액션 판타지 닥터 스트레인지(Doctor Strange)의 주연을 맡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불교에 매료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더미러

한편 컴버배치는 오는 11월 미국 개봉 예정인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Doctor Strange)'에서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 역을 맡았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외과의사인 닥터 스트레인지는 교통사고로 손을 다쳐 의사로서 삶을 포기하게 된다. 이에 스트레인지는 티베트에 은거하고 있는 마법사의 제자로 들어가 우주 최강 마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컴버배치는 "이번 영화 촬영을 위해 지난겨울 남아시아를 방문, 나에게 불교를 가르쳐줬던 스님들이 계셨던 사찰들을 돌아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블루스·록 음악으로 포교합니다"

日 스님 및 목사 밴드, 음악 포교에 '눈길'



일본에서 스님과 목사가 블루스(Blues)와 록(Rock) 밴드를 결성, 언더그라운드 공연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화제다. 목사들로 구성된 4인조 록밴드 박시 록스(Boxi Rocks·사진왼쪽)와 스님들로 구성된 블루스 밴드 '보주(Bozu)'. 사진출처=더데일리스타

스님들 밴드 '보주', 블루스 포교
도쿄서 BAR 운영하며 상담활동도
목사 밴드 '박시 록스'와 합동공연

일본에서 스님과 목사가 블루스(Blues)와 록(Rock) 밴드를 결성, 언더그라운드 공연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화제다.

인터넷 언론 '더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는 3월 20일(현지시간) 낮에는 종교 활동, 밤에는 음악으로 일본인들에게 포교를 하는 성직자 밴드를 소개했다. 이들은 바로 스님 블루스 밴드 '보주(Bozu)'와 목사 록그룹인 '박시 록스(Boxi Rocks)'다. 이들은 각자 활동뿐만 아니라 합동 공연을 펼치며 포교뿐만 아니라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보주(Bozu)' 리더인 요시노부 후지오카 스님(39)은 "나는 블루스를 좋아한다. 특히 밥 딜런(Bob Dylan)과 1960년대 음악을 좋아한다"며 "속세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으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위축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룹의 노래를 듣고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지오카 스님은 밴드활동 외에도 동료 스님들과 함께 도쿄에 바(BAR)를 열어 이색포교를 실천하고 있다. 방문객들에게 불교 상담을 해주는 한편, 무알콜 칵테일을 제공하며 마음치유를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후지오카 스님은 "우리는 심적 괴로움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바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간다. 그들이 이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목사들로만 구성된 4인조 록그룹 '박시 록스(Boxi Rocks)'는 낮에는 도쿄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설교하고 찬송가를 가르치지만, 저녁이 되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록 무대에 선다. 그들은 목사가운을 입고 "우리가 바로 록이다. 목사들이 바로 록이다"라고 외치며, 가죽 자켓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한다.

리더인 카즈히로 세키노(36)는 "나는 미국 출신 9인조 헤비메탈 밴드인 슬립낫(Slipknot)과 메탈리카(Metallica), 메가데쓰(Megadeth) 등을 좋아한다"며 "그들의 음악이 기독교인들 눈에 악마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적인 것에 대해 노래하며, 노래를 통해 위선이 아닌 진실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세키노 목사가 처음 '록 포교'에 나선 것은 일본에서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였다. 이에 평소 안면이 있던 후지오카 스님에게 도움을 청해 합동공연을 시작, 올해로 수년 째 음악 선교를 펼치고 있다.

세키노 목사는 "록은 사실 세속적인 음악일 수 있다. 하지만 성직자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같은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서 "가끔 너무 종교적으로 다가가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해 보일 때도 있지만, 신(神)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부처님과 신이 있었다면 이런 활동이 진정 원했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면서 "밴드활동이 천국, 불교적으로는 열반으로 향하는 길이 될 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사찰과 교회에선 할 수 없는 대중을 위한 활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46%인 약 5,500만 명이 불자이며, 2%인 약 240만 명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48%인 약 5,760만 명이 일본 고유 민족 신앙인 신도(新道)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형 객원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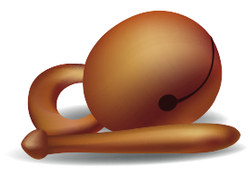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관상 · 손금 천기누설 강의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성명학 (이름으로 평생 사주 볼 수 있다)
- 사주+백초귀장술+타로
- 스님, 무속인, 일반인 – 특별 책임 개인지도
- 암, 질병, 재판, 산소, 교통사고 운을 한눈에 알 수 있다

010-4014-8822

역학, 구궁, 오행, 당사주, 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참여
- 배우면서 행사 함께 참여 하실 분 (대구)모집

010-8674-1149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運을 올리는 작명, 개명
- 이름과 숫자(은행비밀번호 등)가 運命을 좌우한다
- 아폴로13호 : 고장으로 귀환
- 2016년 5월 : 괴변이 예상됨
- 신생아는 진용일, 진용시에 출생신고 하여야 運이 크게 올라간다

작명제일 용님선원
010-2849-385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신심 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사천)
055-832-3668
010-8556-00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원 관음사)
010-5065-4800
063-620-9201~5

비구니 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875-6317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충북 음성)
010-5883-2255

사찰 운영을 책임있게
맡길 후계승을 찾고
계신 큰스님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법납 20년, 세수 60세, 보살과 함께하는 비구승입니다)
010-8671-338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이근원통 관음수행
(능엄경)
특별 개인지도
010-9036-679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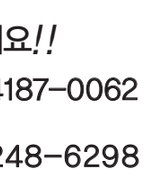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무연 분묘 개장 공고 (2차)
1. 소재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명리 산 15번지 (분묘 3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개인사유의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및 기간 : 금산군 서대산 추모공원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장익수 010-4074-3073
7.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광고로 같이함.

2016년 3월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36-1 대동아파트 110호
토지주 장주연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전통와가 사찰◀
- 위치 : 부산역 부근
- 총부지 : 200평, 주차장 13평 별도
- 건물 : 법당(25여평), 요사채(3동)
- 가액 : 1억 4천(은행대출 4억 2천)

▶관 광 사 찰◀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관광버스주차장
- 건물 : 법당 48평, 요사채38평, 원주실 15평
- 가액 : 14억 5천

※세계불교박물관 (벼락맞은 5,400여년전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여점 보유)

051-863-6622
010-3560-8522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추천 사찰 급 안내 (www.이박사.com)
- 100년 전통의 시내중심 사찰임
- 법당 110㎡, 요사채 90㎡, 공양간 90㎡, 토지 600㎡
- 급 양도이며 부산역 앞쪽, 포교사찰 적당함
- 4억이면 인수가능함
- 가액 : 7억원 조정가능(융자 3억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대지 : 65평 ◎ 대지 : 22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 5천 ◎ 양도 : 7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옛 금강공원입구)
- 총부지 : 203평
- 1건물 : 법당(30평), 요사채(2동), 주차장
- 2건물 : 사찰에 딸린 원룸 1동(룸12개), 점포(2개) 전세 2억 월 400만원 나옴
- 가액 : 은행대출안고 6억 5천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경주시(급) 사찰
불국사에서 울산방향
- 토지 6,400㎡, 법당,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 청정계곡산중이며 주변이 조용함
- 기도도량, 무속도 적당함
- 바위, 물, 전설, 수행하기 좋음
- 가액 : 9억3천만원(융자3억포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5,000만원, 월 9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 종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5천 (스님 건강문제로)

010-4628-5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포교원
- 2층 법당 50평 1층 공양간 40평
- 가액 : 전세 1,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112-04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토굴 팝니다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면사무소에서 3.6km)
- 건물 : 30평(목조기와) 대지 : 100평
- 금액 : 1억 5천만원
- 위치 : 문경읍 관음리(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목조강판기와),부지 : 82평
- 금액 : 7천만원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 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연등,집기일체,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
- 평수: 50평, 4층건물에 3층
- 법당,상담실,친견실,침실
- 보증금 : 2천만원-월세 20만원
- 시설비는 급 양도로 3천만원 들어간자리 1200만원만 받습니다.

010-6220-235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아차산역 5분)
- 2층 50평
- 방3, 법당1, 화장실2, 거실, 주방
- 가액: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2333-3005

농 장 안 내
- 위치: 충북 보은 산 아래
- 대지 1,570㎡, 전 860㎡
- 축사 413㎡, 관리사 77㎡
- 경동자동온수기(대), 방2, 거실, 욕실
- 2차선접
- 요양원, 절, 별장, 공장 가능
- 가액 : 1억 7천만원

010-4074-307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 2층 10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매수, 전세, 월세) 매수 시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2천만원(가격절충)

010-4564-8108
010-7161-2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문화재 사찰
- 터 또는 작은 암자
- 귀농하실 분 주택포함
- 융자가능
- 직거래

010-3288-1317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건물포함)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평수 : 약 80평, 2층 건물의 2층, 법당, 방 3개
- 화장실, 옥상사용 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500만원(조정가능)

010-5298-7357
010-4916-9499

사 찰 안 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3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7억8천(1억8천 융자)

010-6898-9114

사찰 부지 안내
- 위치: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258-22
- 평수 : 대지 911㎡, 건평 99.2㎡, 단독주택(삼존불)
- 경부고속도로(서울-용인-안성-세종시) 확정착공
- 원삼면 IC선정 예정지역, 마당넓고, 주차 및 차량 출입 양호
-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한 명당 자리
- 가액 : 3억 2천만원, 소유주 직거래 꼭 필요한분 조정가능

010-4743-8540

아주 큰 포교원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전철역 5분거리
- 4층 건물의 4층, 약 90평, 법당 30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 용왕, 영가단, 지장탱화, 삼성각 10평, 영가단 20평, 공양간 20평
- 방 3개, 밖에 가마솥 4개 도시가스 설치 바닥 전체 도시가스, 해우소 2개,연등 3천개, 에어컨 4개, 냉장고 2개 ●6년째 운영
- 가액: 5천만원 월 155만원(관리비 포함) 시설비는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010-2127-4755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300평, 대지 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가격조절가능)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 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큰방 1, 작은방 2 중 1방은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가액 : 2억 4천만원
- 산중 작은 암자나 토굴 교환가능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011-9551-3374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설산, 적송숲 가람조성 5년!
- 종교부지 650평, 삼존불, 노천약사석불, 조립식건물 3동
- 가액 : 2억 2천만원
- 산 1만3천평 사용가능함
- 전세 가능함

011-677-8525

흙집 토굴안내(현대식)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 1일 1475
- 토지 : 대지 91평, 건평 20평, 법당삼존불,소불, 방2, 주방, 목욕실
- 산 밑이며, 교통 좋으며 주차장 시설 구비, 집기일체 제공
- 가액 : 5,000만원

010-3911-3646
054-745-364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
- 창고, 에어콘1, 냉장고1,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000, 주차

010-7583-1235

법당 포교원 임대
- 위치: 해운대 마린시티 중심가
- 시설비포함 3500/월세 60 실평수 23평
- 지하철, 홈플러스 걸어서5분. 초역세권. 입지조건 최고 갤러리아백화점 신축확정, 아파트 학교 회사밀집지역
- 법당 상담실겸 스님방 주방 다용도실
- 법당시설 완비(불,탱,CCTV, 전기조명,기타) 풀리모델링
- 주차장편리. 단골신도포교에 유리. 민원없음

총무 010-5967-3689
010-8532-891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1층 37평, 욕실, 도시가스 방 2칸, 앰프 시설 완비
- 부처님은 청동불 (석가모니, 지장)
- 주차 시설 완비
- 가액: 5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2,300만원(절충가능)

010-9150-002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 토지 315평
- 건물 요사채 40평
- 법당 20평
- 종각 일주문 및 사천왕
- 가액 : 3억 5천만원 상담후 금액 조절가능

017-488-1909

전원 주택지 명당터 안내
하늘이 내린 천생산 자락에 명예와 부귀를 부르는터 ..."정남향"
- 위치 : 경북 구미시 신동 사각지 못 바로 앞
- 대지 : 1.약 200평 2. 300평
- 기반시설 완료 : 오셔서 건축 바로 하시면 됨
- 가액 : 평당 170만원
- 현장 답사후 가격 절충

010-3503-416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IC 5분거리
- 평수: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 1동 33평
- 약사기도 도량임
- 가액 : 2억 5천만원 (은행대출 6천5백만원) 시설물 일체
- 양도, 전 월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1억 월30만원)

010-7183-01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3개, 친견실, 공양간,화장실3개, 삼성각 12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대웅전 10평, 산신각2평, 용왕각 1평반, 요사채15평. 11평
- 차실8평, 종교부지176평
- 가액 : 1억 5천 7백만원 (절충불가)

010-6628-827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내
- 4층 건물중 2층 40평
- 삼존불,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2,000만원, 월40만 시설비 1,500만

010-8758-131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강촌 IC 옆
- 총평수 : 1,250평
- 건물 : 법당30평, 요사3동 70평
- 가액 : 2억

011-370-5904
033-263-590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8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산과 강구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터
- 암자 및 별장, 요양지로 적합
- 시골집 한채, 방2개, 부엌1
- 약 100평 땅 평생무료 토지세 없음
- 가액 : 2,500만원

010-9670-36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반송로
- 3층 건물중 3층, 삼존불, 지방, 신중, 산신 탱화, 소불 200불 등
- 40평, 방 2, 공양간
- 가액 : 2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200만원

010-3389-813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대사리 206번지 337㎡ 토굴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대사리 207번지 486㎡ 땅
- 저수지가 바로 보이며 마을 끝집 7년째 스님들이 정진하시고 있는 토굴임
- 법회도 가능하며 입식 화장실 임

010-8953-13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 500평
- 산 아래 경지 양호 (건물 5동)
- 가액 : 2억 6천만원

010-6341-347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금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4370-0072
010-3722-2738

사찰(급) 안 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암자터 및 전원주택
- 위치 : 경남 거창군
- 자연경관 수려함, 3면소나무숲
- 진입도로 접함
- 전기,수도유(자연우물 있음)
- 400평,1300평(평당10만원)

010-3848-2452
010-4661-7734

도심숲속 공원內 사찰
- 위치 : 부산 범일동 공원 內
- 교통부 R위 10m 버스도로 옆 계단 있음
- 대지 98평 (건 100평)
- 2층 법당 35평, 1층 법당30평 1층 요사채(방2개, 거실 별도 대문) 화장실5, 방8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511-7000

암 자 (급)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 4천

010-3305-4559
010-9004-7212

사찰(신축)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구미공단과 왜관인접)
- 작오산 호국공원을 배경으로 낙동강 칠곡보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기도처요,요양지 임
- 1층: 요양원 및 요사채 90평 2층: 법당 삼존불 30평
- 대지면적 : 538평,동시주차 20대
- 가액 : 20억

010-4545-0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IC 5분거리 (마을 제일 윗집)
- 토지: 173평(종교부지)
- 건평 : 인법당 25평 요사 28평
- 가액 : 3억

010-4344-8667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금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4370-0072
010-3722-2738

사 찰(급) 안 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산과 강구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터
- 암자 및 별장, 요양지로 적합
- 시골집 한채, 방2개, 부엌1
- 약 100평 땅 평생무료 토지세 없음
- 가액 : 2,500만원

010-9670-36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반송로
- 3층 건물중 3층, 삼존불, 지방, 신중, 산신 탱화, 소불 200불 등
- 40평, 방 2, 공양간
- 가액 : 2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200만원

010-3389-813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대사리 206번지 337㎡ 토굴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대사리 207번지 486㎡ 땅
- 저수지가 바로 보이며 마을 끝집 7년째 스님들이 정진하시고 있는 토굴임
- 법회도 가능하며 입식 화장실 임

010-8953-13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 500평
- 산 아래 경지 양호 (건물 5동)
- 가액 : 2억 6천만원

010-6341-3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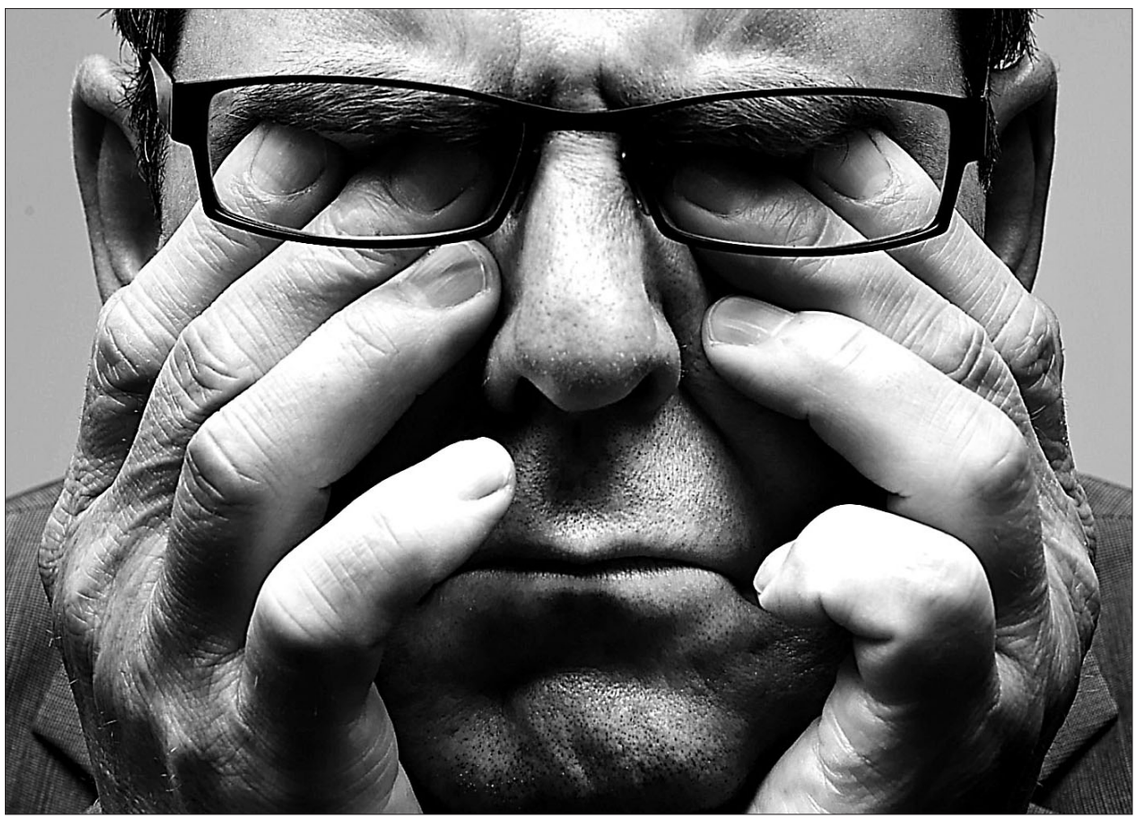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생각 바꾸기

〈2〉 마음은 스트레스 발전소 ㊥

김정호(심리학 박사)

나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가 '꿈틀'



스트레스를 만드는 '흑백논리'

흑백논리는 이분법적 사고, 절대적 사고, 실무율적 사고라고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로 부르기도 한다. 중간은 없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현상을 양극단의 범주 중 하나로 평가한다. 흑백논리는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존중과 경멸, 좋아함과 미워함, 훌륭한 것과 비천한 것, 아름다움과 추함, 친구 아니면 적 등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분법으로 도식화한다.

두 가지로 구분하지는 않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수의 구분만으로 현상을 구획지으려는 태도(인지전략)도 흑백논리로 볼 수 있다. 많은 사회적 혹은 개인적 편견이 흑백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흑백논리로 생각하게 되면, 다양한 측면을 갖는 자기 자신 혹은 세계(사람, 사물, 일, 사건, 상황 등)의 실재 혹은 현상을 양극단의 범주로 나눔으로써 현상을 왜곡한다. 실재 혹은 현상은 다면적인 특징을 가지며, 또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흑백논리로 규정지으면 실재 혹은 현상을 왜곡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흑백논리가 완벽주의와 결합될 때 스트레스를 구성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완벽주의에서는 완벽한 한 가지 상태(즉 '백')가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부족한(완벽하지 못한) 상태(즉 '흑')로 분류된다. 하나라도 '백'의 요소가 있으면 '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흑'의 요소가 있으면 싸잡아서 '흑'이 되는 것이다.

또한 흑백논리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특정한 사람(개인, 집단), 행동, 사물, 일, 사건, 상황 등을 '백' 또는 '흑'의 이원적 범주에 쉽게 집어넣는다. 그러면 부적절한 우월감이나 월등감, 혹은 친밀감이나 적대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흑백논리의 인지전략은 당사자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기능도 한다. 사회적 혹은 개인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대부분이 흑백논리에 바탕을 두고 정형화된 인지다.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흑백논리의 예들을 보자.

"성공 아니면 실패다."

매사에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며 완벽주의의 성향까지 있으면 일을 추진하는 초반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와 흑백논리의 결합에는 커다란 단점이 있다. 일을 추진하다가 어쩌다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모든 열의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완벽주의에서 추구하던 '백'의 행동과 정반대인 '흑'의 행동을 자포자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다. 다이어트를 몇 주째 잘하다가도 하룻밤 야식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규정짓고, 그 후 폭식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금연을 잘하다가도 술자리에서 단 한 모금의 담배만 피우게 되어도 금연에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줄담배로 돌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놈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면 비도덕적이다.'라는 사고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평가할 때 열 가지 훌륭한 점을 지니고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점이 발견되면 나쁜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비열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완벽주의의 흑백논리 잣대를 들이대면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찾을 수 없다. 함께할 수 있는 친구, 선배, 동료, 후배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은 내 편 아니면 다른 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내 편이 아닌 대부분의 중립적인 사람들은 잠재적인 적으로 대하게 된다. 또한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의 흑백논리를 사용하게 되면 중립적인 사람을 싫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 친구로 돌아올 사람도 영구적인 적으로 남게 한다. 결국 내 편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고 도처에 싫은 사람들과 적들로 넘쳐날 것이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과일반화'

특정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결론을 관련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일반화라 한다. 이는 적절한 인지전략으로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한 일반화가 충분한 증거나 논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과일반화라 일컫는다. 과일반화는 일부 경험(직접경험뿐만 아니라 간접경험도 포함) 혹은 거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무리하게 혹은 성급하게 전체에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과일반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일반화와 세상(다른 사람 포함)에 대한 과일반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충분하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과일반화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불필요한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으로 삶이 위축되거나 경직될 것이다.

세상에 대한 과일반화를 통해 세상을 과도하게 부정적 혹은 염세적으로 바라보면 삶이 제한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이나 출신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도 과일반화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큰 집단의 사람들을 한두 가지의 특징으로 규정짓는 것은 부정확하기 쉽고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과일반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과목을 망치면 나머지 시험 모두 망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이 정해진 바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중간시험이든 기말시험이든 자신이 그 시험을 어떻게 볼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시험의 앞부분을 보면 뒷부분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인지전략이다.

> **흑백논리, 현상 양극단으로 나눠 왜곡 시각 갖게 돼 스트레스 유발**
> **'과대 해석'도 동기좌절의 일종 긍정적 부분 '선택'해 상기해야**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특정한 시기의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으니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일반화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침투해 있다.

참고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흑백논리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완벽주의의 흑백논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험을 한 과목만 망쳐도 전체 시험을 망친 것으로 본다. 사실 흑백논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과일반화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과일반화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첫 문제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번 시험은 망쳤구나.

· 아침에 접시를 깼으니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겠다.

· 지난번 면접에도 실패했고 이번 면접도 불합격했다. 다음 면접도 잘못 볼 것 같다.

과일반화가 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의 경향이 강하다.

· 소개팅에서 거절당했다. 나는 역시 매력이라곤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평생 싱글로 늙어 죽을 것이다.

· 점수가 모자라 이류 대학에 들어갔다. 내 인생은 결코 일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한두 가지 부정적 사례를 가지고 과일반화하여 자신의 운명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심각한 스트레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주변 사람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과일반화하면 대인관계에서 소통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 쉽다. 과일반화에는 동기좌절이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내포되므로 동기좌절이 증폭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도 분명하게 포함되므로 증폭된 동기좌절예상이 추가되어 더 큰 스트레스가 생겨난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확대-축소'

확대-축소는 어떤 현상의 중요성이나 정도를 심하게 왜곡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 측면은 확대하고 다른 측면은 축소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기억이나 추론 등에서도 특정한 기억이나 추론을 더 많이 하고 다른 기억이나 추론을 더 적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확대-축소의 인지전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대-축소는 '선택적 주의'와 관련이 있고 선택적 주의는 인간 정보처리의 용량제한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의식을 무대에 비유하면, 의식의 무대는 좁아서 한 번에 장치를 할 수 있는 사물 수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의식의 무대를 작업기억(working memory) 또는 단기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 크기가 7±2라고 한다. 7개 정도의 정보 단위가 들어오면 더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처리에서 선택적 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처리의 용량제한성 때문에, 주변세계를 처리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제한이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정보에 주의를 주지 못하고 선택해서 줄 수밖에 없다. 자신의 기억을 돌아볼 때도 장기기억에 있는 과거의 기억 중 일부만을 선택해서 회상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선택받은 부분은 더 많이 더 오래 처리되는 등 '확대'되고 선택받지 못한 부분은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어진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구성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대-축소를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에 주로 주의를 주며 전전긍긍하고, 과거를 회상할 때는 부정적인 기억을 주로 떠올리며 후회와 자책을 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만을 골라서 생각하며 걱정을 한다. 이런 경우 인간 정보처리의 용량제한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부분은 의식의 무대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토굴(터)안내
- 위치 : 경산 남천 신석리
- 정남향 조용하고 아늑함, 뒤는 낮은산
- 나대지 98평
- 실제 사용평수 110평
- 전기 측량 완료
- 평당 30만원

010-3805-2778

포교원 안내
- 위치 : 금정구 구서동
- 평수 : 50평, 3층 건물 중 2층
- 법당 25평, 방3,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삼존불 지장
- 가액 : 2000만원. 60만원
-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절충. 정말 복된 포교원

011-1750-4040

사찰안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법당 1, 요사채 1, 주차장 완비
- 2층 건물 각 75평,
- 건평 149평, 대지 136평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0억(절충가능)

010-3752-2601
031-217-263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원로 54-10
- 대지 100평, 텃밭 200평(합 300평)
- 단일건물 약 60여평(농가주택 개조)
- 법당1, 방4, 화장실2, 에어컨3대 CCTV 4대, 기름 보일러
- 주방, 전기렌지(가스 별도 설치)
- 가액 : 1억 8천, 전세1억

010-3364-0390(스님)
033-638-0390(스님)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 3길 41
- 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공양간1, 방2개
- 가액 : 2억 8천(전세가)

010-3508-7710

멋진 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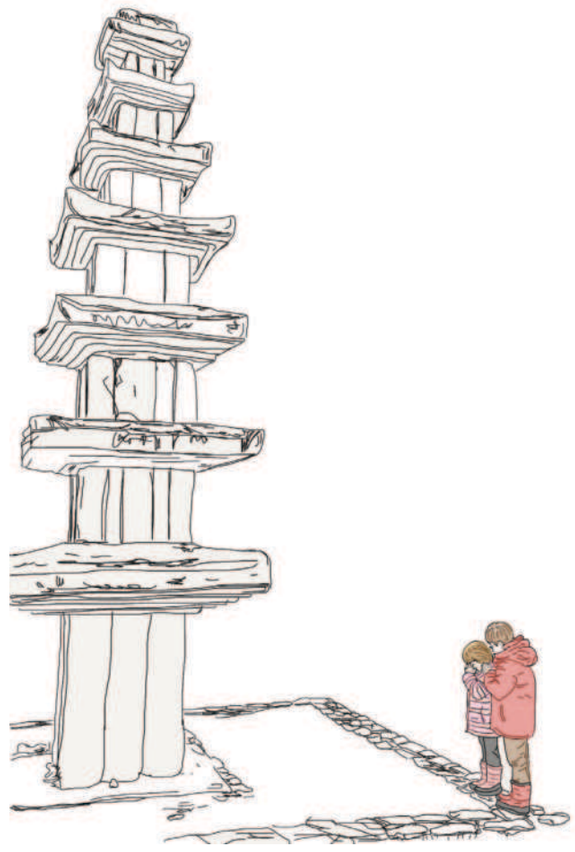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카툰

나방과 아이들

고요하던 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방 불빛 때문에 날아든 나방 한 마리 때문이다. 아이들은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나방은 아이들과 장난을 하려는지 아이들이 숨는 곳으로만 쫓아 날아다닌다.

너무 소란해진 것 같아 나방을 잡으려 했더니 죽이지 말고 수건으로 툭툭 쳐서 방 밖으로 내보내라고 난리다. 여긴 절이라고, 그럼 안 된다고 말이다. 어디서 그런 이야길 들었는지...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장이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나무처럼.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심술궂은 겁쟁이와 한심한 도깨비 ㊦

"단 한 명이라도 날 믿고 사랑해준다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정민이를 빙 둘러쌌다.

"빗자루를 가져왔니?

"거기에 빗자루 같은 건 없었어."

아이들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빗자루가 묶여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 지난 설날에 아빠랑 성묘 가다가 봤다고."

재민이가 말했다.

"빗자루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내가 갔을 땐 이미 밤이었고, 빗자루는 도깨비로 변신한 후였으니까."

"그럼 도깨비를 봤다는 거야?"

윤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보기만 한 줄 아니? 이야기도 했지."

아이들은 일제히 재민이를 봤다. 눈빛이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허풍이야. 호, 혼자서 거, 거, 거길 다녀왔을 리 없잖아."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하는 재민이의 표정을 보는 게 즐거웠다.

"그럴 줄 알고 증거를 가져왔지."

정민이는 주머니에서 방울을 꺼냈다. 무당집 대문 앞에 꽂혀 있는 기다란 대나무 꼭대기에 걸려있던 것이었다.

"도깨비가 가져다준 거야. 이거면 내가 무당집에 다녀갔다는 걸 믿을 거라고 말했어."

재민이는 방울을 요리조리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졌다.

"쳇, 거짓말쟁이. 어디서 굴러다니는 방울을 주워 와서 허풍이나 떨고."

재민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정민이 주위에 남아 있었다.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섭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이 날아왔다. 정민이는 신이 나서 자세하게 대답해 주었다.

도깨비와 친구가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다. 정민이는 매일 밤 도깨비를 찾아갔다. 도깨비에게는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니 도깨비는 피자가 뭐냐고 물었다. 정민이는 다음날 피자 사진을 가져갔다. 도깨비가 피자를 뚝딱 만들었다. 하지만 그 피자는 먹을 수가 없었다. 고추장 빈대떡 같은 맛이었다. 프라이드치킨도 탕수육도 마찬가지였다. 도깨비는 자기가 모르는 것은 만들지 못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도깨비는 으름이나 개암 같은 맛있는 산열매를 주었고, 도깨비와 같이 있으면 컴퓨터도 장난감도 필요 없었다. 도깨비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민이는 충분히 즐거웠다.

가장 재미있는 놀이는 쑥쑥 놀이였다. 도깨비는 정민이를 어깨에 앉히고 키를 쑥쑥 키웠다.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갔다.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었다. 도깨비 어깨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아주 작아 보였다. 작아진 세상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아빠는 곁에 없었지만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주 멀게 느껴졌던 거리도 작아진 세상 속에선 가깝게 느껴졌다.



그림 · 강병호

"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정민이가 물었다.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어. 우린 그냥 생겨나. 사람들이 물건을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도깨비가 되는 거야. 아끼면서 오래 쓰다 보면 그 물건에 정령이 깃드는 거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 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지. 그래서 도깨비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나는 무당 할멈의 남편, 그러니까 먹구 할아범이 총각 때 만든 싸리 빗자루야. 하도 오래 써서 몽당 빗자루가 됐지. 그러고 보니 내 아빠는 먹구 할아범인 셈이네."

"친구들은 모두 어디 있어?"

"친구들은 산속으로 떠났어. 그들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어. 하지만 난 사람들이 좋았어. 가마솥 뚜껑을 솥 안에 넣어놓으면 다음 날 아침밥 지으러 나온 할멈이 솥뚜껑을 꺼내려고 쩔쩔매는 꼴을 보고 키득거렸지. 지게 작대기를 장작더미 속에 숨겨 놓거나 쇠똥을 마당에 수북하게 쌓아 놓기도 했어. 할멈이 부지깽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지. 이 녀석 잡히면 혼쭐을 내줄 테다! 도깨비들은 이런 나를 한심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도깨비들이 잊은 게 있어. 믿을 수 없다던 사람들이 우리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말이야."

이 세상에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존재는 단 하나라도 충분하다고 정민이는 생각했다. 도깨비는 무슨 이야기든 들어주었고, 정민이의 슬픔과 화와 두려움을 같이 아파하고 위로했다. 단 한 명의 친구가 생겼을 뿐인데, 정민이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정민이는 더 이상 반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윤호의 장난감을 모두 돌려주고 사과도 했다. 정민이가 아이들을 괴롭힌 건 사실 겁이 났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정민이를 무시하고 따돌릴까 봐 일부러 사납게 굴었다. 정민이가 먼저 마음을 열자 아이들도 정민이에게 성큼 다가왔다.

"정민아 너 어디 아프니? 얼굴색이 이상해."

주희가 말했다. 정민이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기도 하고 초록빛이 돌았다. 머리가 간질간질했다. 머리카락을 들춰보니 정수리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다.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혹처럼 솟아오른 정수리를 보며 도깨비가 말했다.

"도깨비와 가깝게 지내면 도깨비를 닮게 된단다. 조금 있으면 정수리를 뚫고 뿔 하나가 뾰족 솟아오를 거야. 나도 이제 친구들에게로 가야겠어. 정민이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깨비가 정민이에게 구슬 하나를 주었다. 손안에 쏙 들어오는 유리구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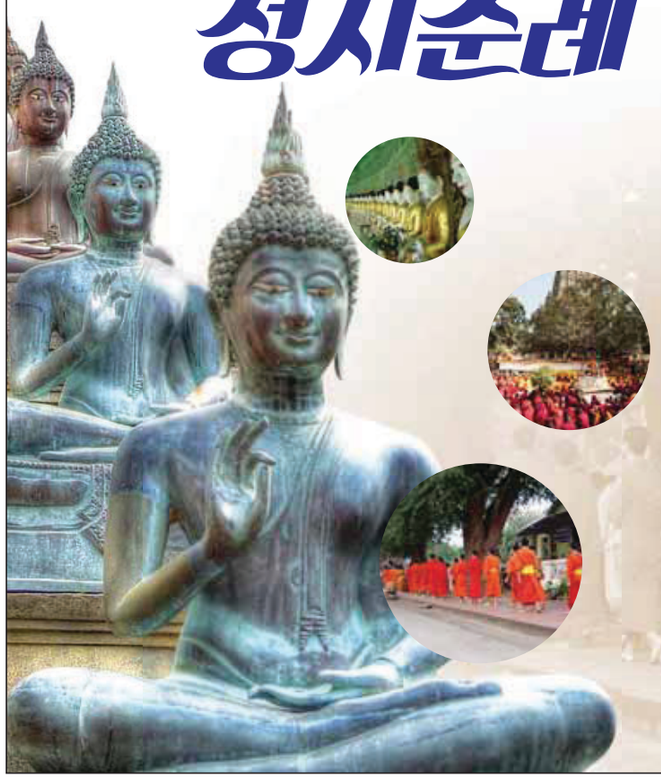
"제석천이라는 궁전에는 커다란 그물이 있대.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그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거야. 정민이 구슬 옆에 엄마 아빠 구슬이 있고, 재민이, 주희, 윤호, 영재 구슬이 있지. 재민이 구슬에는 정민이가 비치고, 정민이 구슬에는 주희가 비쳐. 정민이가 슬프면 엄마 구슬이 흐려진단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 구슬이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모습이 보이지. 정민이는 나와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까."

정민이는 도깨비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도깨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민이는 단골나무 둘레에 묶여 있는 줄을 풀었다. 매듭은 아주 단단했지만, 차근차근 풀었다.

이따금 도깨비가 그리울 때면 도깨비가 준 구슬을 들여다보았다. 구슬 속에는 도깨비의 얼굴이 보였다. 정민이는 환하게 웃었다. 도깨비의 구슬이 반짝일 수 있게 가장 환한 웃음을 보여 주었다. 〈끝〉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뻰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암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당–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091호 현대불교
2016년 4월 6일(2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는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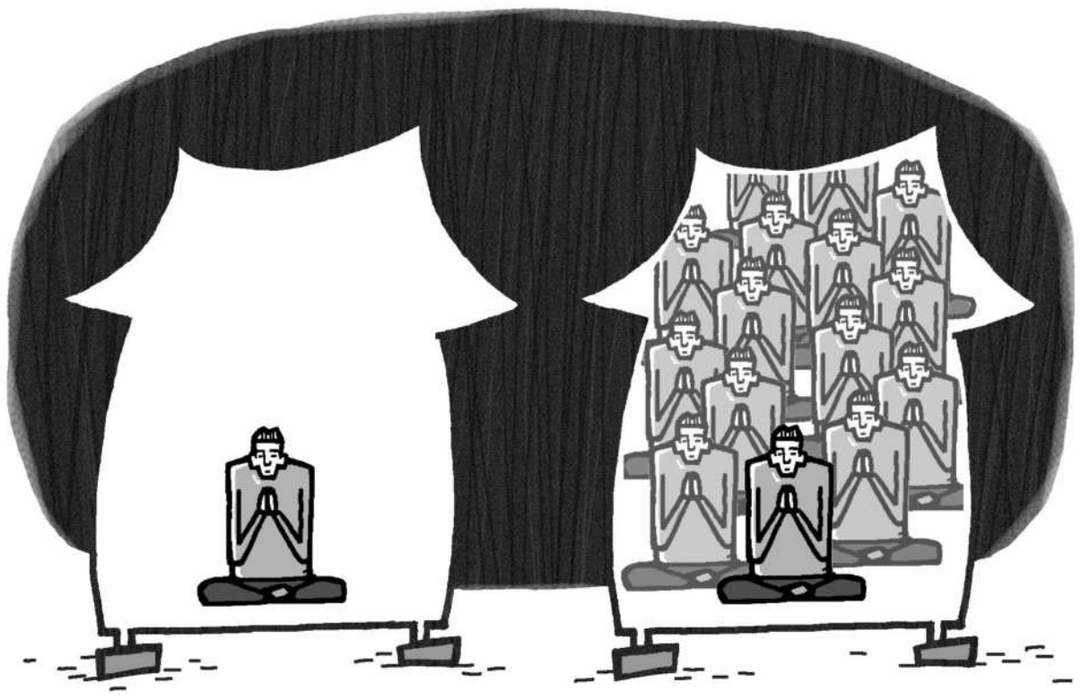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백지 한 장을 뚫으려면

질문 스님 법문 중에 부(父)와 자(子)는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둘이 아닌 부와 자가 만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백지 한 장 차이로 만나기가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 백지 한 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뚫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말하자면 영원한 근본의 그 마음이 현실의 나를 진화시켜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 그 테두리는 부(父)가 되고, 즉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하고, 마음 내는 것은 자(子)가 됩니다. 전력은 부가 되고 이 들어오는 전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전력은 부가 되고 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와 전력이 둘입니까, 어디? 둘이 아니죠. 전구가 없어도 안 되고 전력이 없어도 안 되죠. 그 가운데 가설이 되지 않아도 안 돼요. 찾는 마음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 무난히 돌아갑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자체가 바로 전력을 알아야 이게 상통한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끌고 다니던 내가 과거뿐 아니라 현실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내가 없으면, 부모 한테 몸을 받았어도 영원한 내가 없으면 거기에 삼합이 한데 합쳐지지를 않아서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대로, 업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인연이 돼서 만남이 뭉쳐지는 거는 바로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입니다. 생명들,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닌 줄 알아야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자기가 온 데가 어딘지, 가는 데가 어딘지,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만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좀 더 열심히 정진을 하려면

질문 저는 재가 신도로서 나름대로 매일매일 좀 더 열심히 정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에 얼마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는지요. 다른 절에서는 용맹정진 비슷하게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일과 중에 하나 둘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요, 저도 좀 더 열심히 정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중에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특별한 그런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참선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가 똥 누고 밥 먹고 자고, 우리가 그냥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고 서 있고 싶으면 서 있고 그냥 명상을 하고 싶으면 명상, 앉아서 좌선을 하고 싶으면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일하면서도 참선이요, 자면서도 참선이요. 아니, 그러면 앉았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고 그래, 참선을 안 할 때는, 좌선 안 할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모두가 자나 깨나 돌아가요, 그냥. 이 탁자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랬거든요. 모두들 공부한다고 토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좌선을 하고 꽉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일어나지도 말고 오줌 누지도 말고 똥 누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이 돌아가는 진리가 끊어지지 않지."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고 하는 동안에 그만 무릎을 탁 치고 깨쳐서 일어났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회양이 말입니다, 마조 스님더러 그랬죠. 가만히 마조 스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데 뭉치고 앉아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 아시죠? 아, 그래 기왓장을 갖다가 좌선하는 앞에 앉아서 싹싹 갈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또 마조는 "스님, 그거 뭐 하시려고 기왓장을 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 망령 나셨군." "나는 망령 났다 하더라도 너는 앉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처를 이루려고 그럽니다." 이러거든. "앉았다 일어나면 부처가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그때 그만 선뜻 그 뜻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고 그러지, 누가 그럭하질 말라나요?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말하고 그냥 자유스럽게 사는 게 그대로 참선이란 말입니다.

대상과 둘 아니게 하나 되려면

질문 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책을 보다가도, 남과 대화하다가도 관한다는 생각에 나를 의식하게 되어 오히려 집중이 깨지고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둘 아닌 도리를 말씀해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일진대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걸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음 도리로 대상과 둘 아니게 하나 되어 걸림 없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관하라' 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다. 역대를 한군데서 들고 나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바깥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 한군데로 들고 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요새 이렇게 하죠.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생산될 걱정까지 하면서 거기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르고 빠른 세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등이며, 마음의 향기로운 향이며, 밥 한 그릇을 놓고 바로 다 먹이고도 한 그릇이 되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바로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같이 계합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따로 없이 계합해서 중용을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 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올 때,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두 달라요. 참선하고 좌선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들이 달라요. 이거는 저녁에 단 한 시간이나 30분 앉았는데 말입니다,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전부 끊어졌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끊어뜨리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 이러니 언제 공부는 하느냐." 하고 한탄들을 하거든요. 그래 나는 그때 빙긋이 웃었죠. 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는데, 즉 말하자면 둥근 톱니가 아래 위의 게 마주쳐서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끊어진 게 붙을 자리가 어디 있고, 이어지는 게 끊어질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대로 돌아간 건데. 그대로 돌아갔고, 그 24시간 끊어졌다는 생각 하기 이전에, 그냥 그 생각이 순간 날 때에 톱니는 24시간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또 하루 종일 일한 것은 누가 일을 하게 만들었던가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걸 만들었지 누가 딴 사람이 시킨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듯,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부처가 있고 모두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시자 부리듯이 그렇게 부렸지 누가 부렸을까요? 그놈이 시킨 거지. 그놈이 시킨 거니까,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의 집이니까, 그놈의 시자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순응해서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질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생활을 가족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가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오직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생활이 옳은 일이겠지요?

☞ 26면으로 계속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모든 것을 그놈한테다가 딱 맡기고 콧방귀 콱 뀌세요!

☞ 25면에서 계속

답변 아버지이니까요. 하하하…. 이 세상의 어떤 회사든 중역으로 돼 있는 사람은 중역이기 때문에 직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댁도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전하고 아버지가 돼 가지고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나니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장가들기 전이라면 딴 자식들이 그럭하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 곤충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다,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그 부처의 마음은 모두 갖춰 가지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찰나찰나 나투면서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청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또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이란 그저 내 자식, 내 재산, 내 것만 아는 개별적인 그릇으로서만의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나로서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나투면서 이끌어 주시는, 즉 말하자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뭐 갖은 이름의 일체 보살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 각계각층 중생들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서 그런 거니까,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라는 점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으로, 또는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이거나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 주는 것이고, 그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맡기면, 서로 남편이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모든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또 자식도 몸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잘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그 모든 업식을 녹여 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당신 주인공에 둘 아니게 맡겨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만이 부드럽게 행하게 하고, 아주 정말 보배로운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모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싱싱하게 키워 주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방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고 다니더라도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속에 들어 있는 업보가 그러는 거니까, 바로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주인공! 그 뿌리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공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해 주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진짜 진실로써 그렇게 해 주고 한다면 정말 이 고(苦)의 테두리에서 몰락 벗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고,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서원과 욕심의 구별이 잘 안됩니다

질문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원과 욕심 탐심의 구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서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탐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 네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그게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내면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도 하는데, 이 서원과 욕심이나 탐심을 불교하고 연관지어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돈이 없으면 참 궁하고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묘한 법이 있습니다. 돈을 꼭 써야 할 때는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 남한테 꾸러 가지 않고 돈을 쌓아 놓지 않고도 어느 거든지 내 것 아님이 없이, 내가 쓸 때가 되면 딱 나오게끔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 방법을 몰라서야 어찌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이거 바가지가 없어서 물을 풀 수가 없는데….' 이러면 벌써 주인은 알고 '어, 바가지가 있어야 내 심부름을 하겠구나!' 이러고 바가지를 덜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돈이 당장 없을 때, '돈이 없는데 이거 참, 어떡해야만 돈을 만들어서 쓰나. 어떻게 해야만 이걸 갚나.' 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빼꼼히 들여다보다가 달아나가요. '저 집으로 내가 들어갔다가는 그냥 찢기고 온통 야단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람의 마음도 몸도 모두, 일거수일투족 한마음이 돼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주인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이 법당를 지을 때 말입니다, 돈 한 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집 한 채를 갖다가 그냥 털컥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러더니 사람들이 돈을 그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게 된 겁니다. 오래 끌지도 않고요. 만약에 내 사사로운 욕심을 내서 이거를 그냥 움켜쥐려고 했다면 이거 안 됐습니다. 이거는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넉넉히 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돈 없다고 돈을 생기게 해 달라고 원을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줄 거….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하고, 살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심부름꾼에게 돈을 안 줘서 심부름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놈이 다 시키는 거니까 그놈한테다가 딱 맡기고 콧방귀 콱 뀌라고요. 아, 무슨 걱정입니까? 예를 들어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으면 하인은 그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지, 돈이 없고 있고에 무슨 참견을 하느냐 이겁니다, 네? 살림할 게 없으면 주인이 어련히 줄까 봐. 아, 주인이 주면 하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는 진짜 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하인도 없고, 진짜 그 가운데 그냥 자기가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

불을 지피는데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 마른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쏘시개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하죠. 그러니까 마른 나무와 젖은 나무에 똑같이 불쏘시개를 한다면 젖은 나무는 안 타요. 그렇죠? 마른 나무는 불쏘시개를 조금만 해도 타 버리는데 젖은 나무는 불쏘시개를 똑같이 갖다 놓고 하더라도 그 불쏘시개만 홀랑 타 버리고는 안 타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나무가 말라서 잘 타는 것과 같고, 수행이 돼 있지 않다면 아주 젖은 나무와 같아서 안 타죠. 그러니까 아직도 껍데기에, 즉 말하자면 타의에서 구하는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녹이려면 아예 진짜로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훨훨 탈 테니까요.

좌선할 때의 마음가짐

질문 좌선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의식들을 내 근본에 맡겨 놓듯이 좌선할 때도 머리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근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들었으면 그냥 생각이라는 생각도 말고 그냥 거기서…. 그 뜻,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뜻! 그 무거운 뜻이 있다면, 그냥 그 뜻을 알면 되지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뜻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 뜻! 그 뜻으로 관한다 이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가 머리로 상기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로 올라갔던 걸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야! 머리로 올라가면 어떡해? 머리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 이렇게 하라고요. 허허허…. 그것도 다 생명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하고 앉아 있느냐.' 하는 거죠? 똑같이 관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이 일체가 한군데 주처에서 나고 든다는 것만 알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뜻으로 무겁게…. 왜, 이런 게 있죠? 뜻으로 '아 참, 광대무변하고 뭐하고도 바꿀 수 없고 참 신비하구나!' 하는 그 즐거움이 있죠? 네.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만 알면 내가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할 거라는 거죠. 참 이거, 여기에서는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갖은 짓 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힘만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게 원심력이죠, 원동력이고. 그게 주처고, 그게 바로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묵직한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이 있으면…. 그전에는요, '이 뭣고?' 하고서 관했는데 지금 세상에는 너무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정말이지 훌쩍 뛰어 넘어가리만큼 아주 머리가 선명해지고 지혜가 많아지고 물리를 많이 깨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뭣고?' 한다면 빈 맷돌 돌아가는 거와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뜻으로 본다면, 이게 들이고 내는데 들어갈 문도 없고 나올 문도 없이 나고 든다는 걸 안다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근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 지금 현실의 나에게 내놓을 수 없는 나가 있어요. 거기서 다 들이고 내는데,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든 보이는 세계든 천만 가지를 다 이 육신과 더불어 같이 그냥 회전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묵직한 심력이 있단 얘깁니다. 그럼 그 심력을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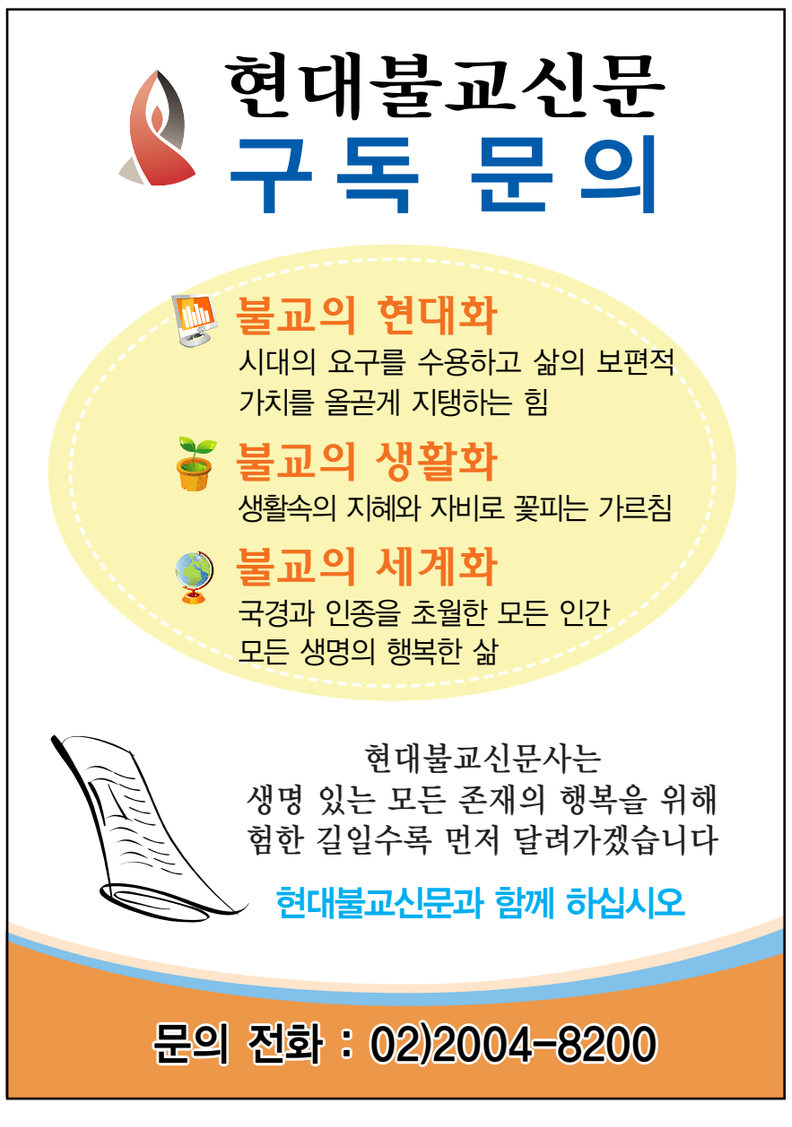
그러니 관한다 하면 마음의 눈으로 거기를 지켜보는 겁니다. 언제나 거기만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지금 더 뜨지도 않고 내려뜨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은 (가슴을 짚으시며) 여길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눈이 여길 향하고 그 너무나…. 그래서 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장. 지장은 땅속에 묻혀 있는 보배를 말한 겁니다. 이 몸속에 묻혀 있는 보배를 말한 겁니다, 지장이. 그러니까 그 보배가 바깥으로 나와서 광을 내면 바로 관세음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 따로 있고 지장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이거 어지러워서 종교를 어떻게 믿습니까, 귀찮아서요.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야, 산신 찾으러 가라. 칠성 찾으러 가라." 이런다면 나 못 믿어요. 내가 피곤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여기 놔야 되고 저기 놔야 되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아예 다 타파하고 부처님 한 분 모셔 놓고, 그 몸이 내 몸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고 둘이 아닌 그 도리를 아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일체 만물의 근원과 물질, 모든 이름과 이치, 허공, 유생 무생(有生無生)을 다 알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고, 이런 풀잎하고도 같이 말할 수 있고 송장하고도 말할 수 있고 말 없이도 말할 수 있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으로, 눈은 이렇게 건성 뜨고 마음의 눈으로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를 지켜서 관하면서 하시라 이겁니다. 마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

>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 주는 것이고,
> 그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은
> 전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불자 세상보기

대학은 '더불어 살기'를 배우는 곳



석 길 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환영회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술 권하는 모임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술을 핑계로 고삐 풀린 방임과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입맛을 씁쓰레하게 만든다.

대학교! 한때는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최일선이었고, 한때는 사회적 양심을 외면하지 않는 지식인들의 보루이기도 했던 곳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란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대학은 미래의 한국사회 공동체를 꿈꾸고 만들어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교는 조금 다르다. 지금의 대학교는 철저하게 출세를 위한 인생의 중간 목표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출세하는 길에 당연히 챙겨야 하는 스펙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대학마저 순위를 매겨 출세의 스펙으로 삼는 것을 당연한 풍토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5년에 이르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대학에 갈 것인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린다. 다섯, 혹은 여섯 살이 되면, 이미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 쌓기 혹은 대학 수능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왜 공부해야 하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요."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어느 순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삶은 온통 '대학 가기' 하나에만 쏠려버린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삶 전체가 밥 먹는 것 외에는 모두 '대학 가기'와 연관되어 있는 숨찬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왜? 주위의 모든 친구들도 역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신입생에게 대학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곳이 아니고, 방임하고 방종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다.

목표를 성취하고 나니 허망함이 가득한 까닭이다. 그런데 그 대학이 다시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해서 다시 한 번 경쟁의 스펙을 강요하며 압박을 가한다. 이제 대학준비생이 아니라 취업준비생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대학생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아닐까?

대학준비생의 경쟁사회에서 갓 벗어난 대학생에게 취업준비생의 경쟁을 강요해야 하는 모순. 우리 사회는 그리고 그 사회구조의 모순에 예속되어 버린 대학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한다는 생존경쟁만 가르치는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런 현장에서 강요당하는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생이다. 술, 언어, 몸짓에서 일방적인 폭력이 자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회인 셈이다.

우리가 만나는 대학사회의 모순은 대학사회만의 모순이 아니다. 인류사회는 짐승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추구하는 정점에 대학이 존재하고 대학생이 존재해야 한다.

대학은 생존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함께살기, 더불어살기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계율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기'를 위한 지침들이다. 거기에는 생존을 위한 경쟁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일탈한 듯 한 대학생만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스무 살 인생 전부가 대학준비생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자유로울 것 같았던 대학이 취업경쟁소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대학생은 탈출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일탈, 방종 그리고 힘겨움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이 남기신 승가공동체가 더불어 살기의 희망적인 사례이듯 우리 사회의 대학공동체 또한 미래의 공동체를 예비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에게도, 대학생활에 익숙해진 재학생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생존경쟁의 밀림이 아니어야 한다고! 인생은 더불어 살기 위한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현장이라고!

社說

총무원장 선거변화, 치밀한 준비 필요

조계종이 종단 행정수장인 총무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중공사추진위는 3월 31일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을 주제로 첫 대중공사를 열었다. 특정 제도개선을 화두로 대중공사를 열 만큼 종단 안팎의 고민은 크다.

가장 먼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도입된 현행 간선제의 폐단이 많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및 흑색비방전 방지와 그동안 교구본사 대표 및 종회의원 등 321명의 손으로 뽑아온 총무원장의 대표성 확보가 주된 과제다.

대중공사에서는 현재 염화미소법으로 일컬어 지는 추첨제가 선거제의 대안으로 중점 소개됐다. 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도 선거제도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추첨제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첨제가 종도들의 대표성이란 점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염화미소법 상에는 총무원장 추천인단에 비구 스님 대비 비구니 스님의 참여 비율이 소수에 불과하다. 재가신도의 참여 조항도 있지 않으며 후보 검증을 위한 갈마위원회에 단 1인이 참여할 뿐이다. 추첨제가 지닌 장점과 함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추천인단과 후보검증단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는 선거제도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선거 투명성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개혁 이후 조계종은 사회제도와 종단제도의 골격을 맞춰왔다. 조계종이 이제 사회 흐름과 별개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 · 환경 관심없는 무능한 정치권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 중 전통문화 진흥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한다.

정당별 총선 공약을 살펴보니 새롭게 도입된 공약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 강화방안이 유일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 당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방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의당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6개 권역 지역문화재청 신설 및 문화유산지식개발원 설립 등을 비롯해 문화유산 관리 내실화, 전통문화 콘텐츠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무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다 보니 표심과 관련된 분야에만 공약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편중 현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불교계다.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 제정 등의 규제완화 공약이 남발되고 있어서다. 실제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살리기 분야에서 관광을 통한 지방 일자리 창출을 선언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9월 문체부가 입안을 시도해 불교계가 강력히 반대한 법안이다. 사실상 각 정당이 국토 파괴와 상업주의를 부추기는 정책만을 표심 잡기에 편승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국토환경과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심도 깊은 정책 제안에 나서야 한다는 게 불교계의 주문이다.

발언대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추진위는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2016년 첫 대화의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총무원장 선거를 1여년 앞두고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의 주요발제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제도 상관없이 집행이 중요"



법안 스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불교사적으로 보면 대표자 선출에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

제기된 안건을 검토해보자. 선거인단 확대안도 교구에서 결국 민주적으로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숫자만 늘어난 것이다.

추첨제 또한 추천인사를 검증하는 갈마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검증을 한다면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선제 또한 각 선거진영에서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돌아보면 1994년 선거제도 도입 후 우리가 율장과 종헌종법에 근거해 노력했느냐를 반성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과연 선거로 인한 폐단이 발생했을까. 선거법 저촉시 선거권 박탈 등의 법을 만들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불교계 내에서 제도를 지키고 제대로 집행하는 의식변화부터 일어야 한다.

"바보 셋, 문수 지혜다"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

신뢰와 연대로 묶인 대중의 힘은 그 어떤 제도와 위계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현재로써는 교구종회 정도가 이러한 변화의 기운을 전파하고 실험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직선제와 추첨제는 각기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교구종회의 선거인단을 대폭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과열과 부정선거를 막는데 교구종회라는 책임있는 단위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총 선거인을 2500명 규모로 늘린다면 금권 과열에 대한 우려도 어느정도는 씻어낼 수 있다. 문제는 금권선거를 부의 재분배로 여겨 당연스럽게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대중의 높아진 의식과 실천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교구 선거인단 확대는 직선제가 담보하지 못하는 질적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교구종회 선거인단 구성에서는 사부대중의 공의를 반영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선거 본연의 가치를 지켜야"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운영위원

종단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했다.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이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종단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선거는 종단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선거제도 폐지는 종단의 구조 전체를 변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본다.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대표자 선출을 위해서는 직선제가 확실한 대안이다.

현행 간선제보다 강화된 대표성을 기반으로 총무원장은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각종 종책을 구현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 대사회적으로도 종도의 대표자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확보된다.

직선제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4월 6일(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이 시대의 화제의 인물, 세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어야 한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

소원성취, 氣 효험 입소문 하루에도 수 십명 찾아와..

매년 100회 이상 (氣, 역학) 전국 순회강연
뜨거운 찬사,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의
숨겨진 비밀은..

NAVER 검색창에 만녕스님 을 쳐보세요

| 만녕스님 친견 인생상담 접수중 |


황금 복 돼지를 그리시는 만녕스님

정월 초하루 새벽 팔공산 갓바위 공기는 차고 매서웠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어김없이 갓바위로 신년기도에 들어가는 만녕스님 여느 해와 다름없이 108배를 올리고 무상의 경지에 들은 스님에게 갑자기 무아의 경지에 빠져드는 현몽을 꾸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세상이 온통 황금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니 금의를 입은 부처님의 형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앉아계셨다. 그 부처님 사이로 금빛이 유별나게 빛나는 황금 복돼지 두마리가 달려와서는 스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었다. 그 현몽을 하고나니 날아가고픈 맑아진 영혼을 느끼며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매일 해오던 냉수마찰로 몸을 씻은 후 갑자기 붓을 들었다. 현몽에 보았던 황금 복 돼지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돼지 그림이라고는 처음 그려보는 데도 현몽에서 본 돼지 모양이 똑같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사주에 따라 그려지는 ..

그때 마침 달마도 한 점을 모셔가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서 광학렌즈사업을 하시는 중년 보살님 한 분이 정해년 첫 손님으로 아침일찍 송곡사에 찾아오셨다. 달마도를 모셔가기 위해 찾아온 보살님에게 달마도는 그려 드리지 않고 그리고 있던 돼지 그림을 한 번 모셔가 보십시오 하고 돼지 그림을 드렸다. 그런데 보살님은 이 돼지 그림이 달마도 인줄 알고 두말 않고 가져 가서는 아들 방 머리맡에 걸어두고 다음날 돼지 그림인 줄 알았지만 마흔 두 살 먹은 큰 아들이 십년동안 선을 약 5~60번 보았는 데도 결혼 성사를 시키지 못 하였는데 이 그림을 걸고 보름만에 성사가 이루어 지는 것 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노처녀 노총각을 둔 부모님들이 하루 에도 수십명씩 돼지그림을 모셔가기 위해 찾아오는 것 이었다.

대전의 모 젊은 보살님은 시집 장가 못 가서 찾아 오신게 아니고 남편이 공사장에 막노동을 하시는데 하루는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병원을 찾아가 보았으나 특별히 부러진데 다친데 진단이 나오지 않아 열흘동안 집에 누워 계시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가져다 걸고 이틀만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

대구 경산에서 삽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처사분은 식당운영이 되지 않아 식당을 정리하고 전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돼지 그림 한점을 식당에 걸자 팔려고 하던 식당에 손님이 넘쳐나 옆 가게까지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 시켰다고 한다.

부산 동래 온천동에 계신 보살님은 오년전에 지인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소식도 끊어지고 돈 받을 길이 없어 화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모셔놓고 열흘만에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고맙다는 답례로 문안전화가 자주 온다고 한다. 위 사례 외에도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및 여러 사례의 감사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

만녕스님은 원래 달마도 백호도, 같은 기화로 명성이 높았는데 황금 복 돼지를 줄곧 몇 년 동안 고집하여 그리시는 이유는 그려가신 분 마다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효험의 소문을 듣고 하루에도 수십명씩 찾아오니 계속 그릴 수 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중생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관용과 가피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리실거라고 하신다. 사주 (생년, 월, 일, 시)가 스님의 머리속에 입력이 되면 혼이 담긴 한 점 한 점의 작품이 사주 따라 붓끝이 움직여 그려지는 것은 바로 갓바위에서 현몽해 주신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려 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 053-657-0108

대구 수성구 황금동 773-2 송곡사

www.songgoksa.com